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

2025. 3.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DMISSIONS

목 차

Ⅰ. 선행학습영향평가 개요 ····· 2

1.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 ····· 2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영향평가 실시 결과 ····· 3

Ⅱ. 선행학습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 7

1. 선행학습영향평가 관련 대학의 자체 규정 ····· 7

2.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조직 구성 ····· 8

3. 대학별고사 및 선행학습영향평가 일정•절차 ····· 8

Ⅲ.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 10

1. 출제 전 ····· 10

2. 출제 과정 ····· 13

3. 출제 후 ····· 14

4. 분항 분석 및 평가 ····· 15

Ⅳ.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 38

1. 출제 및 검토 개선 ····· 38

2. 출제 후 점검 강화 ····· 38

3.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 ····· 38

Ⅴ. 부록 ····· 40

1. 선행학습영향평가 우리 대학 자체 규정 ····· 40

2. 대학별고사의 문항 제출 양식 : 『문항카드』 ····· 42

Ⅰ. 선행학습영향평가 개요

2025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숙명여자대학교는 정부의 대학입학정책에 따라 우리 대학의 신입학 전형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 않도록 대학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대학의 신입생 선발 관련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의 적절함에 대한 사회적 공인을 확보하고, 신입생 선발 전형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I. 선행학습영향평가 개요

1.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 X)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기타	
수시	학생부종합	인문계, 자연계, 약학부	○		○				X
	학생부종합 (기회균형전형)	인문계, 자연계	X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선발전형)	인문계, 자연계	X						
	논술	인문계, 자연계	○	○					○
	실기/실적	예체능계	○			○			X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인문계, 자연계	X						
	학생부종합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인문계, 자연계	X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문헌정보학과, 소비자경제학과, 경영학부, 앙트러프러너십전공	X						
	학생부종합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전체	○		○				X
	재외국민	인문계, 자연계	○	○ (선다형)					○
	재외국민	예체능계	○	○ (선다형)		○			○ (선다형만 해당)
정시	수능	인문계, 자연계, 약학부, 첨단공학부, 자유전공학부	X						
	수능	시각·영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공예과, 체육교육과	○			○			X
	실기/실적	무용과, 피아노과, 성악과, 작곡과, 관현악과, 회화과	○			○			X
	수능 (사회배려전형)	인문계, 자연계, 약학부	X						
	학생부종합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인문계, 자연계	X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문헌정보학과, 소비자경제학과, 경영학부, 앙트러프러너십전공	X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영향평가 실시 결과

□ 선행학습영향평가 관련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법령 이행	교칙	**선행학습영향평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교칙이 있는가?**	O
	위원회 구성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이 참여하였는가?**	O
	결과 공개	**선행학습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우리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 '입시 도우미' 메뉴 > '통합 공지사항' 메뉴)	O
영향평가 시행 범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모든 유형의 입학전형에 대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가?**	O
자체평가		**대학별고사 출제•검토 과정 참여자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는가?**	O
결과 분석	분석 범위	**교과 지식에 관련된 모든 문항에 대한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충실히 하였는가?**	O
	작성의 충실성	**교과 교육과정 관련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를 문항카드 등 양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O
	현황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O

□ 선행학습영향평가 실시 결과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 ×)	영향 평가 실시 결과
				논술 등 필답 고사	면접 · 구술 고사	실기 · 실험 고사	교직 적성 · 인성 검사	기타		
수시	학생부종합	인문계, 자연계, 약학부	○		○				X	준수
	학생부종합 (기회균형전형)	인문계, 자연계	X							준수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선발전형)	인문계, 자연계	X							준수
	논술	인문계, 자연계	○	○					○	준수
	실기/실적	예체능계	○			○			X	준수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인문계, 자연계	X							준수
	학생부종합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인문계, 자연계	X							준수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문헌정보학과, 소비자경제학과, 경영학부, 앙트러프러너십전공	X							준수
	학생부종합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전체	○		○				X	준수
	재외국민	인문계, 자연계	○	○ (선다형)					○	준수
	재외국민	예체능계	○	○ (선다형)		○			○ (선다형만 해당)	준수
	수능	인문계, 자연계, 약학부, 첨단공학부, 자유전공학부	X							준수
정시	수능	시각·영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공예과, 체육교육과	○			○			X	준수
	실기/실적	무용과, 피아노과, 성악과, 작곡과, 관현악과, 회화과	○			○			X	준수
	수능 (사회배려전형)	인문계, 자연계, 약학부	X							준수
	학생부종합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인문계, 자연계	X							준수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문헌정보학과, 소비자경제학과, 경영학부, 앙트러프러너십전공	X							준수

□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

평가 대상	입학 전형	계열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인문·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고사	논술 우수자 전형	인문계	없음	인문1회차-1	1-1	○	○							
					1-2	○	○							
				인문1회차-2	2-1	○	○	○						
					2-2	○	○	○						
				인문2회차-1	1-1	○	○	○						
					1-2	○	○	○						
				인문2회차-2	2-1	○	○	○						
					2-2	○	○	○						
		자연계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자연일반 -1, 2, 3	1-1				○					
					1-2				○					
					2-1				○					
					2-2				○					
					3-1				○					
					3-2				○					
		자연계 (약학부)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자연약학 -1, 2, 3	1-1				○					
					1-2				○					
					2-1				○					
					2-2				○					
					3-1				○					
					3-2				○					
선다형 고사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 계열	국어	재외국어	1~40	○								
		인문계	영어	재외영어	1~33									○
		자연계	수학	재외수학	1~20				○					
면접 및 구술 고사	학생부종합 (숙명인재 (면접형)전형, 소프트웨어 인재전형, 특수교육 대상자전형)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고사는 교과 지식과 관련이 없는 '인성'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출제 문항 없이 개별 면접으로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Ⅱ. 선행학습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II. 선행학습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선행학습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대학은 관련 내용을 규정화함.

- 2015년 2월 6일자로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를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에 두어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 우리 대학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규정 제2조, 제5조 및 제5조의2

■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규정

제2조(기능)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6.26.)

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개발·면접구술고사제도 개발·논술고사 개발·학생부 반영기업 개발·자격증 및 특기 반영기법 개발 등)
4.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전형유형·전형자료·자격기준·사정방법·전형일정·모집인원의 배분·전형관리 등)
5. 대학입학제도 통계 및 조사·홍보에 관한 사항(각종 통계분석·국내 외 대학 입시제도 자료 조사, 홍보 계획 수립 등)
6. 주요 전형관리 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전형위원 배분 등)
7. 대학별고사에 따른 선행학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5.2.6.)
8. 그 밖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호번호변경 2015.2.6.)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술제도개발·면접제도개발·통계분석·자료조사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분과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개정 2014.6.26.)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4.2.)
⑤ 분과위원회의 연구 및 자료 조사 등의 경비를 입시경비 중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5조의2(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조신설 2015.2.6.)

① 위원회는 제2조 제7호에 따른 선행학습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6.20)
②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는 위원장,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6.20)
③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6.20.)
④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6.20.)
   1. 선행학습영향평가 계획 수립
   2.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자체 분석 및 평가
   3. 향후 대입전형 개선방안 제시
   4.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보고
⑤ (삭제 2020.06.20.)
⑥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계획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3월 말일 이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0)

2.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조직 구성

□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는 입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

• 내부위원은 논술 출제 경력 위원을 포함한 5인, 외부위원은 현직 교사 4인으로 구성하였다.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입학처	교수/입학처장	이OO	당연직
위원	영어영문학전공	교수	전OO	내부위원 (본교 교수)
위원	통계학과	교수	노OO	
위원	한국어문학부	교수	박OO	
위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OO	
위원	서울고등학교	교사	이OO	외부위원 (현직 교사)
위원	낙동고등학교	교사	한OO	
위원	정신여자고등학교	교사	한OO	
위원	장충고등학교	교사	정OO	
간사	입학처	직원	우OO	-

3. 대학별고사 및 선행학습영향평가 일정•절차

절차	일정		담당
입학처 자체평가 자료 작성 및 평가	'24. 4. ~ '25. 1.		입학팀
	재외국민 필답고사	'24. 7. 19.	
	논술고사	'24. 11. 16. ~ '24. 11. 17.	
입학처 자체 평가에 대한 결과 심의 및 평가	'25. 1. ~ '25. 2.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1차 회의	'25. 1. 8. ~ '25. 1. 13.	
	2차 회의	'25. 2. 19. ~ '25. 2. 24.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확정 및 처리	'25. 3.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Ⅲ.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III.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전형 및 모집계열별 출제·검토위원		전체 위원	교수 위원	교사 위원 (일반고 교사위원)
논술우수자전형 (인문계, 자연계)	출제위원	12명	12명	-
	검토위원	4명	-	4명 (4명)
재외국민특별전형 (전체)	출제위원	6명	6명	-
	검토위원	3명	-	3명 (3명)

1. 출제 전

○ 자체 고교 교육과정 분석 자료 활용

외부 위원 6인(장학사 1명, 현직 고교 교사 5명)이 참여하여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에게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고교 교육과정 분석 자료를 제작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였음.

위원 성명	위원 소속
손○○ 장학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박○○ 교사	목동고등학교
조○○ 교사	장충고등학교
이○○ 교사	원묵고등학교
김○○ 교사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이○○ 교사	서문여자고등학교

○ 고교 교육과정 준수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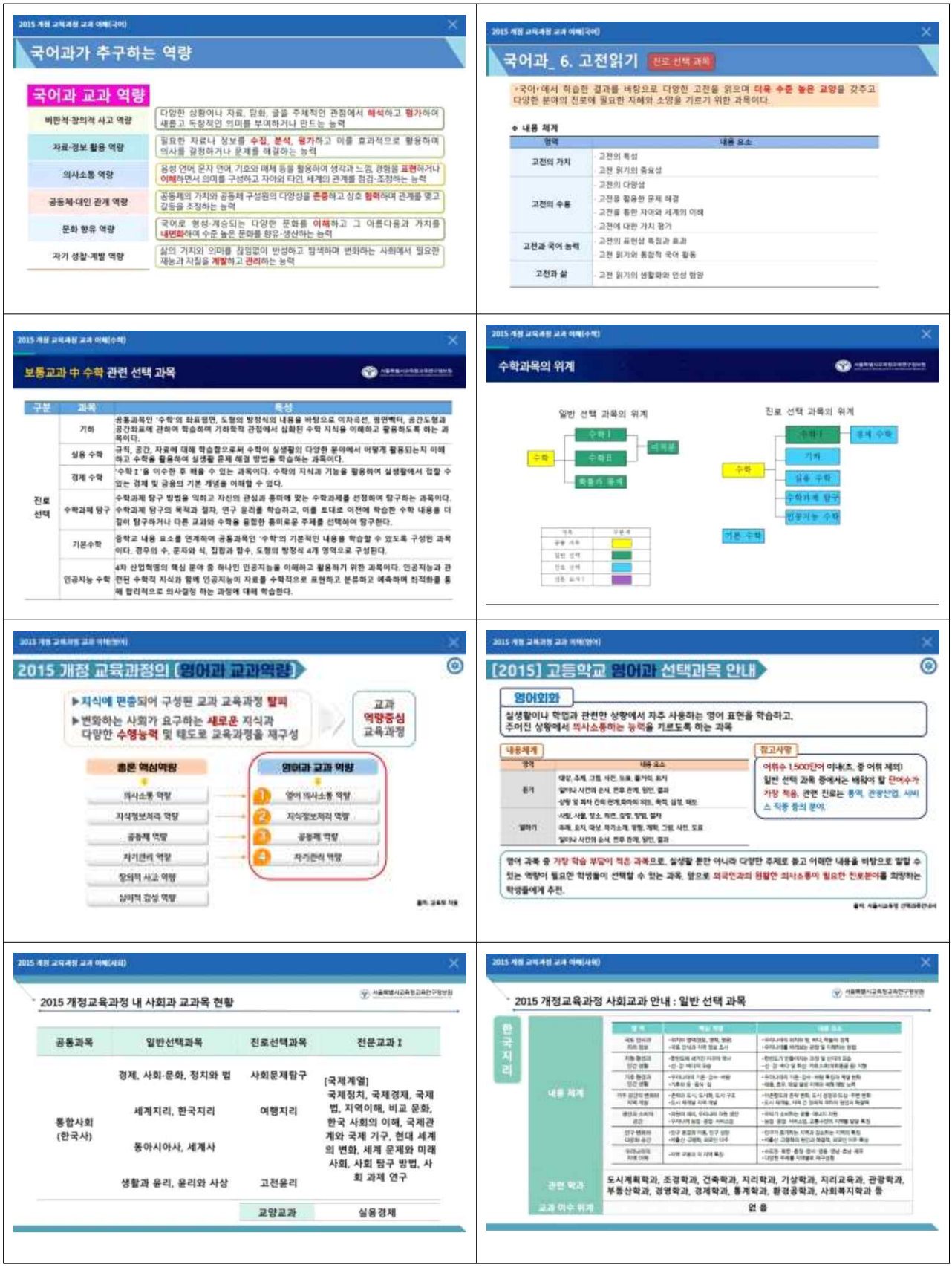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에게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대학의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출제 전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자료를 위원별로 별도 배부하여 출제 중에도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제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가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관리함.

교육일자	교육명
24.05.09.-24.07.12.	2025학년도 모의논술 출제위원 고교 교육과정 사전 교육
24.06.25.-24.07.16.	2025학년도 재외국민 필답시험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고교 교육과정 사전 교육
24.10.11.-24.11.05.	2025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고교 교육과정 사전 교육

○ 교육내용

-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별 이해
-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별 성취기준 안내
- 문항카드 작성 시 고려사항 안내
- 고교교육과정 내 출제 위배사례 안내

[참고] 모의논술 및 대학별고사 출제위원·검토위원 사전 교육 자료 과목별 예시



○ 모의논술 시행

- 수시전형 전 모의논술 운영 후 결과를 논술고사에 반영
- 논술우수자전형 대비 수험생에게 출제 방향 안내 및 답안 채점, 우수답안 제공을 통한 논술 준비 지원
- 논술고사에 대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입시부담 경감, 사교육 유발 억제
-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통한 논술고사의 방향과 난도 측정

<table>
<tr><th>구분</th><th>온라인 모의논술</th></tr>
<tr><td>일시 및 장소</td><td>온라인 모의논술 : 2024.07.05.(금)~2024.07.10.(수), 입학처 홈페이지</td></tr>
<tr><td>대상자</td><td>2025학년도 우리 대학 논술우수자전형에 관심 있는 수험생</td></tr>
<tr><td>신청</td><td>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모의논술 신청 페이지 가입을 통해 학생 개인 선착순 접수 및 응시
온라인 : 2024.07.05.(금) 10:00~2024.07.10.(수) 17:00, 기간 내 신청 후 응시, 선착순 1,000명</td></tr>
<tr><td>세부 프로그램</td><td>- 2024.07.05.(금) 10:00~2024.07.10.(수) 17:00
: 참가 신청 후 응시
- 2024.07.31.(수) 17:00~2024.08.30.(금) 24:00
: 응시결과 조회, 모의논술 우수답안 및 채점 결과 총평 입학처 홈페이지 공개
- 2024.07.31.(수) 17:00
: 모의논술 특강 입학처 홈페이지 공개
<table><tr><th colspan="2">문항해설 및 특강자</th></tr><tr><td rowspan="2">인문계열문항</td><td>박○○ 교수</td></tr><tr><td>이○○ 교수</td></tr><tr><td>자연계열문항</td><td>신○○ 교수</td></tr></table></td></tr>
<tr><td>채점 결과 제공</td><td>- 개인별 채점 결과 제공 : 문항별 평가 등급 및 응시자 전체 평균 등급 제공, 작성 답안에 대한 채점자의 피드백 제공(「내 답안 다운로드」시 하단에 채점자의 피드백이 있음)
- 모범답안 공개 : 채점위원이 전체 응시자 중 각 계열별 모범답안 선정 및 공개
- 총평 공개 : 모의논술 전체 응시자의 채점결과에 대해 출제/채점위원이 인문, 자연계열에 대한 각각의 평을 작성하여 수험생들에게 피드백 제공(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
- 특강(문항해설) 동영상 공개 : 모의논술 특강 영상을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함
- 출제 문제 및 해설 공개 : 출제된 문제와 문제 해설을 입학처 홈페이지-기출문제 게시판에 공지하여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td></tr>
</table>

○ 전년도 대비 개선 및 변경 사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별 고사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와 전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를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들에게 주지
· 현직 장학사 및 고교 교사가 참여한 고교 교육과정 분석 과정을 통해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사전 연수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우리 대학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함
· 검토위원 중 일반고 교사의 비율을 100%로 유지함
·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에게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수준 내 출제 지침 전달
· 출제위원으로 하여금 문항 카드를 작성하게 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검토위원을 통해 사전 검증
· 출제자에게 고교 교육과정 교육 이후 출제팀별로 고교 교육과정 검토 실시
· 현직 고교 교사 검토위원이 출제 문항 검토 후 출제위원과 합동회의에서 의견 개진
· 검토위원 대상 검토 보고서 제출 통해 검토 결과 확인
· 온라인 모의논술 시행을 통한 수험생의 논술고사 준비 조력
· 기출문제, 문제해설 입학처 홈페이지 공개, 문제해설 동영상 공개
· 2015 개정 교육과정 반영 출제 및 향후 출제 방향성에 대한 논의
·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위원 확충 유지
· 문항별 검토의견서 분할하여 내용 검토를 구체화함

2. 출제 과정

○ 입시의 공정성을 위하여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입실 출제 진행(보안요원, 공정위원 포함)
- 해당 고사 종료 시까지 외부와의 접촉 단절

○ 논술고사의 경우 모의논술 결과 적극 반영
- 모의논술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당해연도 출제 방향 및 난도 설정

○ 철저한 분석 및 다수/다단계 검증을 통한 주제/제시문/문항 선정
- 기출문제 분석, 교과서 분석, 관련 도서 분석 등을 통한 주제/제시문/문항 후보군 도출
- 주제/제시문/문항 후보군에 대한 다수/다단계의 토론 과정을 통해 최적의 주제/제시문/문항 선정

○ 현직 고교 교사 검토위원의 검토 및 피드백
- 현직 고교 교사 검토위원의 주제/제시문/문항 검토 및 피드백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엄수

○ 가이드를 준수한 문항카드 작성
- 문항카드 작성 가이드를 준수하여 채점 기준 등 세부 사항 결정

○ 검토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한 문항 출제 완료
- 현직 고교 교사 검토위원의 문항카드 검토 및 피드백을 통해 문항카드 최종 확정 및 출제 완료

입실
입시의 공정성을 위하여 해당 고사 종료 시까지 외부와의 접촉 단절 (출제위원, 검토위원, 공정위원, 보안요원)

⇩

출제 방향 및 난도 설정
논술고사의 경우 모의논술 결과 분석을 통해 당해연도 출제 방향 및 난도 설정

⇩

주제/제시문/문항 선정
기출문제, 교과서, 관련 도서 등 철저한 분석 작업을 통해 주제/제시문/문항 후보군 도출 후 다수/다단계 토론 과정을 통해 최적의 주제/제시문/문항 선정

⇩

검토위원 1차 피드백
현직 고교 교사 검토위원의 피드백을 통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엄수

⇩

문항카드 작성
문항카드 작성 가이드를 준수하여 채점 기준 등 세부 사항 결정

⇩

검토위원 2차 피드백
현직 고교 교사 검토위원의 피드백을 통하여 문항카드 최종 수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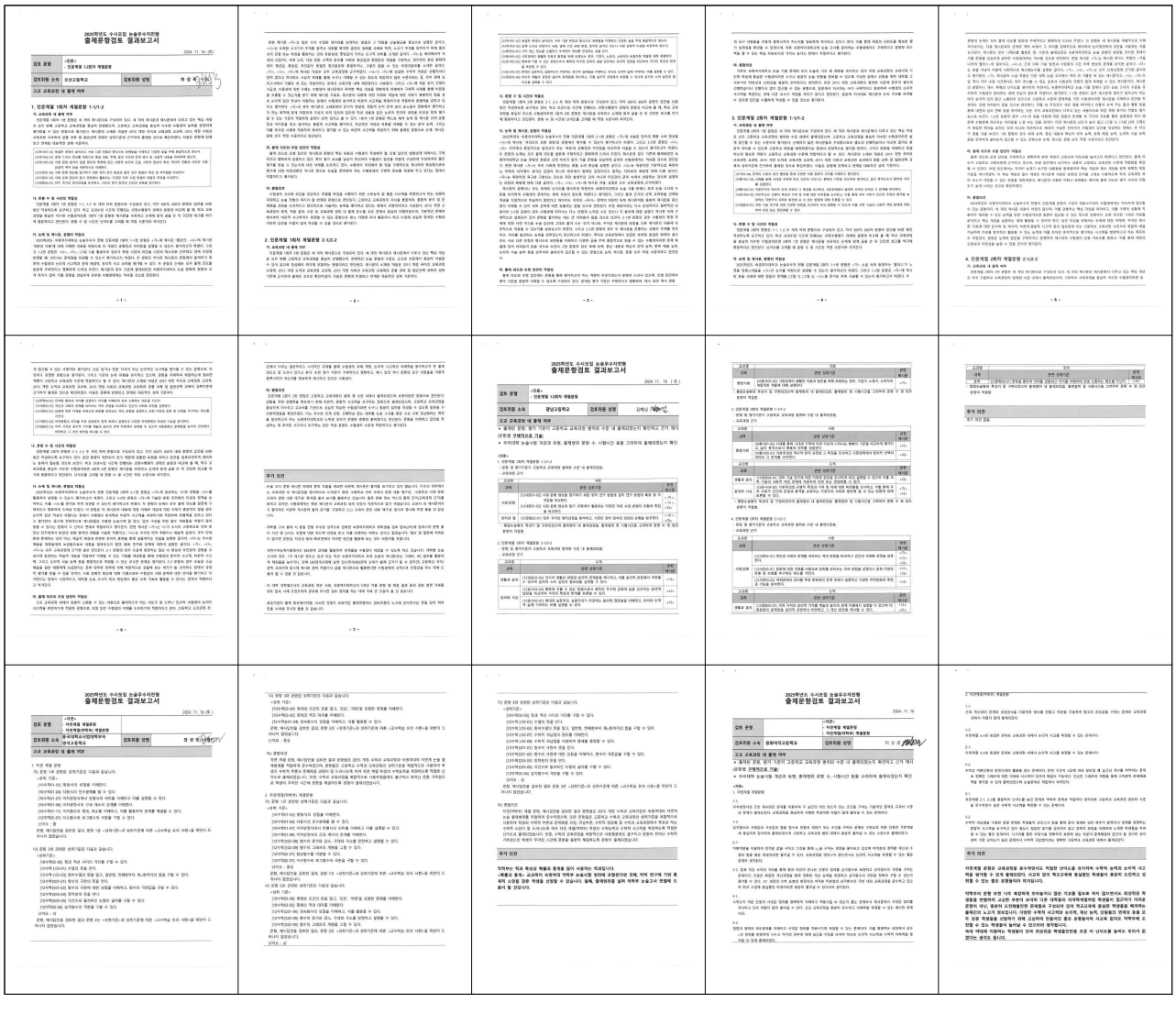
출제 완료
출제 문항 검토 결과 보고서 제출 / 시험 종료 후 퇴실

3. 출제 후

○ 출제위원, 검토위원 대상 피드백

- 출제문항, 평가기준의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 확인, 제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출하게 함
- 검토 결과 고교 교육과정 범위 준수, 출제 과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 나타남

[참고] 현직 고교 교사 검토위원 결과보고서 제출 예시



4. 문항 분석 및 평가

1)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평가 대상	입학 전형	계열	관리 번호 /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 붙임 번호*	위원별 검토 결과
논술 고사	논술 우수자 전형	인문계	2025-1 / 인문1회차-1	1-1 / 1-2	• 국어과(독서) • 사회과(사회·문화, 정치와 법)	○	문항카드①	**적합**
			2025-2 / 인문1회차-2	2-1 / 2-2	• 국어과(국어) • 사회과(통합사회) • 도덕과(생활과 윤리)	○	문항카드②	**적합**
			2025-3 / 인문2회차-1	1-1 / 1-2	• 국어과(국어) • 사회과(통합사회) • 도덕과(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문항카드③	**적합**
			2025-4 / 인문2회차-2	2-1 / 2-2	• 국어과(문학) • 사회과(사회·문화) • 도덕과(생활과 윤리)	○	문항카드④	**적합**
		자연계	2025-5 / 자연일반 -1, 2, 3	1-1 / 1-2 / 2-1 / 2-2 / 3-1 / 3-2	• 수학과(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	문항카드⑤	**적합**
			2025-6 / 자연약학 -1, 2, 3	1-1 / 1-2 / 2-1 / 2-2 / 3-1 / 3-2	• 수학과(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	문항카드⑥	**적합**
선다형 고사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계열	2025-7 / 재외국어	1~40	• 국어과(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	문항카드⑦	**적합**
		인문계	2025-8 / 재외영어	1~33	• 영어과(영어I, 영어II,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	문항카드⑧	**적합**
		자연계	2025-9 / 재외수학	1~20	• 수학과(수학, 수학I, 수학II)	○	문항카드⑨	**적합**

*문항 붙임 번호는 [붙임]으로 제시한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번호 기재, 세부 문항 분석과 부록에 첨부함

2) 전형별 분석 결과

□ 논술고사 개요 및 분석 결과 요약

•전형명 : 논술우수자전형
•모집인원 : 214명 (인문계 142명, 자연계 72명)
•모집시기 : 수시
•모집단위 : 인문계 및 자연계(글로벌협력전공, 앙트러프러너십전공, 테슬(TESL)전공, 첨단공학부 제외)
•지원자격 :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논술시험 90 + 학생부(교과) 10
•수능최저학력기준
- 인문계/자연계(약학부 제외) :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5이내(탐구 선택 시 1과목 반영)
- 약학부 :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4이내(수학 반드시 포함, 탐구 선택 시 1과목 반영)
•전형일정(논술시험일)
- 인문계열, 의류학과 : '24.11.16.(토), 17.(일)
- 자연계열(의류학과 제외) : '24.11.16.(토)

차수	시험시간	구분
1회차 (11.16.)	10:00~11:40	화학과, 생명시스템학부, 수학과, 통계학과, 화공생명공학부, 인공지능공학부, 지능형전자시스템전공, 신소재물리전공, 컴퓨터과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기계시스템학부, 식품영양학과, 약학부
	14:30~16:10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홍보광고학과, 소비자경제학과, 사회심리학과, 법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미디어학부, 의류학과
2회차 (11.17.)	10:00~11:40	한국어문학부, 역사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중어중문학부, 독일언어·문화학과, 일본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화관광학전공,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공, 교육학부, 가족자원경영학과, 아동복지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유형 : 통합논술형
•출제 범위 :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범위에서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
•문항 수
- 인문계, 의류학과 : 인문계열 2문항(세부문항 있음)
- 자연계(의류학과 제외) : 자연계열 3문항(세부문항 있음)
•시험 시간 : 100분
•답안 분량
- 인문계열문항 : 전체 답안 분량 1,800자 내외(원고지형식)
- 자연계열문항 : 노트형식
•성적 산출 : 평가위원 2인이 각각 등급(최고 900점~최저 675점)으로 평가함

• 논술고사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각각 계열별로 운영하였다.
• 인문계열(의류학과 포함)은 2개 회차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자연계열은 1개 회차 내에서 자연계열 전체 모집단위 대상(의류학과, 약학부 제외)과 약학부 대상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 논술고사 출제 문항 분석 내용 요약

- 논술고사의 문항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평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사고력 함양을 위한 관련 교과 학습활동의 수준과 목표성취 정도를 고려하여 출제되었다.
-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깊이 공부하여 우수한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을 평가 및 선발하려는 의도에 부합하며, 본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학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에 적합한 문항이 출제되었다고 판단된다.
- 인문계 논술 문항은 고등학교 국어, 사회, 도덕 교과의 교육과정과 내용을 통합하여 구성하였으며,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였다. 또한 자연계 논술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 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문항 각각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독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러한 출제경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논술고사 방식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어휘력과 이해력과 적용력을 측정하고, 나아가 고등정신기능인 비판능력과 종합능력을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 재외국민 필답고사 개요 및 분석 결과 요약

•전형명 : 수시모집 특별전형

•모집인원 : 재외국민 43명(인문계 34명, 자연계 6명, 예체능계 3명), 북한이탈주민(정원외) 제한없음

•모집시기 : 수시

•모집단위 : 전 계열(일부 학과 제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기타 요건은 모집요강 참조)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구분		국어	영어	수학	실기	서류	합계
재외국민 (1단계)*	인문계	50	50	-	-	-	100
	자연계	50	-	50	-	-	100
	예·체능계	40	-	-	60	-	100
북한이탈주민	인문계	30	30	-	-	40	100
	자연계	30	-	30	-	40	100
	예·체능계	40	-	-	60	-	100

*2단계 : 지원 자격 심사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전형일정 : '24.07.19.(금)

차수	시험시간(제출서류 기반 면접 제외)	과목
1교시	10:30~11:30	국어
2교시	11:45~12:45	인문계 : 영어, 자연계 : 수학

•유형 : 선다형

•출제 범위 :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

•문항 수 : 국어 40문항, 영어 33문항, 수학 20문항

•시험 시간 : 교시당 60분

•성적 산출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재외국민 필답고사는 아래와 같이 계열별로 과목을 지정하여 2개 교시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 인문계열(국어, 영어) / 자연계열(국어, 수학) / 예·체능계열(국어, 실기*) *실기는 필답고사에 해당하지 않음
• 재외국민 필답고사 출제 문항 분석 내용 요약

구분	분석 내용
재외국민 필답고사 (국어)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어 문항은 지원자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할 수 있는 기초 역량과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개발되었다.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취지에 맞게 실제 국어 생활을 바탕으로 한 문법 체계와 어휘 사용에 대한 문항과 대표적인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총 40개의 문항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언어와 매체와 문학 과목에 기반하여 출제되었고, 모든 문항이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40개의 문항은 4지선다로 구성되어 60분 내에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재외국민 필답고사 (영어)	이 시험 문제들은 다양한 유형과 상황에 걸쳐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 배정과 60분이라는 시간 제한은 충분한 도전이며, 실제 수능 영어 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학생들의 어휘, 문법, 독해 능력을 평가한다. 문항은 대학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독해력, 어휘력, 논리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항 난이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적절히 설정되었으며, 제공된 모범답안은 정확성과 명료성을 갖추고 있다. 제시문은 대체로 잘 구성되어 있으며, 출제 의도와 모범답안은 각 문제의 학습 목표에 부합하도록 잘 설계되어 있다. 본 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문항 구성과 제시문 주제가 다양하고 심화되어 있어 평가 도구로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다. 학생들의 기본적 영어 역량과 대학 교육 준비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으로 판단된다.
재외국민 필답고사 (수학)	재외필답고사는 1학년 수학부터 수학1, 수학2에서 학습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제대로 익혔는지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려운 고차원적 수학적 사고력보다는 대학 진학 후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들이라고 판단된다. 문항은 1학년 수학과 수능 수학에서의 공통과목인 수학Ⅰ, 수학Ⅱ로 구성되었으며, 기본적인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문제들이 전 영역에 걸쳐 고르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문항 모두가 교과서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찾아볼 수 있는 만큼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60분 안에 20문항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난이도로 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3) 문항카드별 분석 결과

□ 논술 및 재외국민 필답고사 문항 제출 양식 『문항카드(①~⑨)』은 "V. 부록"에 첨부함.

- '문항카드'는 각 문항별 일반정보, 문항 및 자료, 출제 의도, 출제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예시답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

□ 소위원회 위원들의 문항카드별 검토 의견

문항카드①(논술우수자전형 인문계열 1회차 1번) 검토 의견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인문계열 1회차 1-1, 1-2 문항은 평균 또는 중심 경향치를 주제로 정치, 사회문화 등 인문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문항은 인문사회계열 진로를 탐색하는 고등학생이라면 마땅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수학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융합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통합 교과적 학습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재구성한 좋은 평가 도구이다. 제시문들은 고교 사회과 교육과정 중에서 [사회·문화]와 [정치와 법] 교과목에서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민주 국가와 정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독서] 교과목에서 '독서의 본질', '독서의 분야' 등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문항 출제 근거 성취기준으로 직접 제시한 [12사문01-02] 등, [12정법03-01] 등, [12독서01-02] 등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수하면서 출제한 우수한 평가 도구라고 판단한다. 또한 사회 현상 분석에 있어서 양적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가 대세로 매우 시의적절한 논제로 판단된다. 한편, 일상적으로 쓰이는 '평균'이라는 개념이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의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정교하게 독해하고 적용하도록 유도한 문항 설계는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성취 수준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인 [9수05-06] '중앙값, 최빈값, 평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를 활용하여 학생의 이전 교육과정의 기초 학력 수준을 달성하였는지를 평가에 반영한 점을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이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초 학력 보장 시책에 호응하는 평가 문항이라는 점에서 문항의 취지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표한다.

▸문항 수 및 시간의 적절성

해당 문항은 두 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했고, 50분간 총 900자 내외의 글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통의 수행평가 글쓰기 과제의 분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주어진 분량 및 시간은 자료를 숙독하고 논제에 맞게 글을 쓴 뒤 간단한 퇴고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논제 및 문항의 적절성, 제시문의 적절성

300자 분량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1-1 문항의 경우 (가)의 산술평균과 (나)의 중앙값을 분석적으로 비교하도록 요구하여 고등학생이 교실 수업에서 다뤄봄직한 분석적 글쓰기 과제의 수준을 충족한다. 제시문 〈가〉에서 참값의 근접치로서의 '산술평균'의 기능과 활용에 관한 내용과 〈나〉에서 참값의 근접치로서의 '중앙값'의 기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 〈가〉의 평균인과 〈나〉의 '대중의 지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야 한다. 수험생은 〈가〉의 '평균인'은 산술평균을 통해 도출된 평균 측정값에 해당하는 인간이며, 〈나〉의 '대중의 지혜'는 중앙값을 통해 도출된 사람들의 평균적인 의견임을 이해하고, 산술평균과 중앙값이 참값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다수의 데이터를 요약한 수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평균인은 산술평균 그리고 대중의 지혜는 중앙값으로 그 수치를 산출하는 방식에서는 차이점을 가진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답안 구성이 300±30자이므로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600±60자 분량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1-2 문항의 경우 사회 교과뿐 아니라 국어, 수학, 정보 교과에서 강조하는 계량 자료의 비판적 분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은 먼저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에 '사회에서 평균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시민'의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한 결정을 〈나〉의 '대중의 지혜'에서의 의사 결정과 연계하고, 여기서 '평균'이 가지는 다의미성을 '산술평균'과 '중앙값'으로 구분하고, 정책에 대한 시민 전체의 관점

과 평균적인 시민의 관점에 차이(오차 또는 오류 등)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히고, 관련 사안에 대한 시민 의견의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하여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평균 개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험생은 평균적인 시민의 관점과 시민 ⓐ의 관점의 일치 여부는 데이터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림 1]은 시민 ⓐ의 응답이 '시급성'에 대해서는 시민 다수의 의견과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기준에서 동일하지만, '수용성'에 대해서는 시민 소수의 의견에 해당함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그림 1]은 평균적인 시민이 '시급성'에 대해서는 한 개의 평균을 중심으로, 즉 중립적인 의견으로 집중되어 있고 '수용성'에 대해서는 두 개의 평균을 중심으로, 즉 2개의 대비되는 의견을 가진 하위 집단으로 분리될 수 있고 각 집단은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이후 수험생은 시민 ⓐ가 사안에 대해서 사회의 평균적인 경험을 대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고 이 때문에 산술평균이나 중앙값에 해당하는 시민 ⓐ의 의견을 시민 전체의 의견에 대한 최대 근접치로 사용하는 것은 '시급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나, '수용성'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지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하면 그림에서 제시한 핵심 문제 상황에 대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본 문항은 수험생의 분석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전체적으로 제시문들은 가독성이 적절하고 답안 구성을 위한 필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어 수험생의 사고력 및 비판적 분석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출제 의도의 적절성, 모범답안의 적절성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개별 관찰값과 참값 간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평균을 사용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평균의 일반적인 의미와 데이터 특성에 따른 평균 개념의 차이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데에 있다. 이 문항은 수험생에게 친숙한 평균의 다양한 의미와 사회 현상 분석에 있어서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적용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고 및 분석 능력 평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공개된 평가 기준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예시 답안 역시 평가 기준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출제진이 문항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문항의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를 통해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한 평가 설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숙명여대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학습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본다.

▸종합의견

인문계열 1회차 1-1, 1-2 문항은 관련 성취 기준의 의도를 적절하게 반영한 타당도 높은 문항이며, 문항 및 제시문의 구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험생들에게 친숙한 개념과 사회 현상을 소재로 하여 개념 적용에 의한 사회 현상 분석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수험생의 분석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논리적 서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문제로 평가한다. 이 문항을 통해 지원자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의 수학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하여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항카드②(논술우수자전형 인문계열 1회차 2번) 검토 의견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인문계열 1회차 2-1, 2-2 문항은 '명품 소비'라는 일상 속 인문사회 현상을 소재로 하여, 학생들이 주변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고등학교 학습 내용과 연결 지어 성찰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지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SNS의 발달로 인해 인문사회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비평 대신 즉자적이며 선동적인 인상 비평이 공론장을 잠식하는 세태는 사회 교사로서 학생 지도의 어려움 중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학

생들에게 명품 소비와 같은 일상적 사례에 대해 깊은 사유와 정교한 분석을 요구하는 이 문항이 현장 교사로서 무척 반갑다. 해당 문항은 제시문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은 고교 도덕과 교육과정 중에서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 교과목에서 '서양윤리사상'과 '문화와 윤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독서] 교과목에서 '독서의 본질'과 '독서의 방법', [통합사회] 교과목에서 '시장경제와 금융' 등에서 다루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한다. 특히 명품 소비가 유난히 많아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적절한 논제이며, 전체적으로 문항 내용이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 것으로 평가한다. 국어, 도덕, 사회를 비롯한 여러 과목의 학습 내용이 이 문항의 해결에 도움을 주겠지만, 이 문항 해결에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학습 내용은 도덕·윤리 교과에서 학습하는 응용 윤리 부분이다. 응용 윤리는 이론 윤리를 구체적 사회 현상에 적용하여 그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인간의 도덕·윤리적 판단과 그에 근거한 실천을 이끄는 윤리학의 분야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과목의 중핵적인 학습 내용이다. '명품 소비'를 매개로 여러 사상가의 이론 윤리적 논리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 문항은 '생활과 윤리' 과목의 핵심 학습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대부분 이수하는 '생활과 윤리' 등의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적절히 소화하였는지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우수한 도구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총평하자면, 인문계열 1회차 2-1, 2-2 문항은 출제 근거 성취 기준으로 직접 제시한 [12운사03-07], [12생윤05-02], [12독서01-02], [10통사05-02] 등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준수하면서 출제한 우수한 평가 도구라고 판단된다.

▸문항 수 및 시간의 적절성

해당 문항은 두 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했고, 50분간 총 900자 내외의 글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통의 수행평가 글쓰기 과제의 분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주어진 분량 및 시간은 자료를 숙독하고 논제에 맞게 글을 쓴 뒤 간단한 퇴고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논제 및 문항의 적절성, 제시문의 적절성

300자 분량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2-1 문항의 경우 먼저 명품 소비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욕망'과 '주체'의 개념을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글쓰기 과제이다. 이 문항을 통해 학생들은 국어, 사회, 도덕·윤리 교과 수업 시간에 수행한 현상의 쟁점을 파악하는 과제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를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명품 소비의 현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따라 하게 된다는 것은 욕망의 모방적 성격을 통해 이해해야 하며, 부자만이 아니라 서민까지 소비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은 모방 욕망의 형이상학적 속성, 곧 주체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욕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아울러 수험생은 욕망하는 주체와 모델 사이의 거리가 소멸된 평등한 사회라는 점을 설명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서로 과시 소비를 통해 보여 주려고 하는 만큼 삶은 더욱 궁핍해져 갈등이 더욱 격화된다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다만 답안구성이 300자 내외이므로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600±60자 분량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2-2 문항의 경우 입론으로 제시한 지라르의 견해를 라캉의 견해에 근거하여 비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생의 분석력과 비판력을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과제는 국어, 사회, 도덕·윤리 교과에서 자주 활용하는 논쟁 문제 학습의 수업 전개 과정을 평가 도구로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은 욕망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성립한다는 공통점을 제시해야 한다. 이어 수험생은 욕망의 근원이 제시문 〈나〉에 있어서는 타인이지만 제시문 〈다〉에서는 욕망하는 주체 자신의 내면이라는 점, 〈나〉에서는 욕망하는 이유가 뛰어난 모델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데 있다면, 제시문 〈다〉에서는 내면의 자기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아

를 실현하려는 데 있다는 점, 〈나〉에서는 욕망하는 주체와 타인 간의 차이가 소멸할수록 욕망의 강도는 강해지고 사회는 경쟁적으로 되는 데에 반해, 〈다〉에서는 욕망하는 자아와 자신 안의 무의식적 자아 간의 간격이 커질수록 욕망은 강렬해지고 자기 소외는 심해진다는 점 등을 차이점으로 제시해야 한다. 각 지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기에 본 문항은 수험생의 분석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전체적으로 제시문들은 가독성이 적절하고 답안 구성을 위한 핵심 개념을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어 수험생의 독해력 및 분석력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2-1, 2-2 두 문항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으로 적절히 선정되었다.

▸출제 의도의 적절성, 모범답안의 적절성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각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게 하는 데에 있다. 출제 의도 및 모범답안은 출제진이 문항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모범답안은 평가 기준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은 수험생에게 친숙한 명품 과소비 문제에 대해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욕망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수험생의 독해 및 분석 능력 평가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공개된 평가 기준은 구체적이고 명료하며, 예시 답안 역시 문항의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를 통해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한 평가 설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숙명여대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학습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본다.

▸종합의견

전체적으로 인문 1회차 2-1, 2-2번 문항은 수험생들에게 친숙한 개념과 사회 현상을 소재로 하여 개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통해 사회 현상 분석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수험생의 독해력, 분석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논리적 서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문제로 평가한다. 관련 성취기준의 의도를 적절하게 반영한 타당도 높은 문항이며, 문항 및 제시문의 구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문항을 통해 지원자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학습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항카드③(논술우수자전형 인문계열 2회차 1번) 검토 의견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해당 문항은 통합사회와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교과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에 근거해 출제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통합사회 교과의 삶의 이해와 환경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핵심 개념 중 '행복'을 중심으로 인간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 실현의 의미를 성찰하고 그 내용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제시문 〈가〉는 문학 작품으로서 문학 작품을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를 평가하도록 한 국어과 성취기준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 치를 이해 하고 평가한다."에 부합한다. 그리고 제시문 〈나〉의 주제인 '사회의 무한한 경쟁에 대한 경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방향을 다룬 도덕과 교과과정 중의 윤리와 사상의 성취기준 "[12윤사04-05]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와,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다룬 "[12생윤04-01] 과학 기

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여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성취기준과 깊게 연관된다. 또한 〈다〉의 주제인 '효율성에 대한 믿음과 행복의 기준'은 사회과 교육과정 중 통합사회 과목인 "[10통사01-02] 사례를 통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의미를 성찰한다."에 부합한다. 각각의 다른 과목들을 통합하여 그 공통점과 비판적 지점을 찾게 질문한 문제로서 문항에서 활용된 제시문들은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해당 교과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고 고등학생 수준에서 충분히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되었으며, 교육과정을 준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항 수 및 시간의 적절성

2회차 1번 문항은 〈가〉, 〈나〉, 〈다〉의 세 지문으로 구성되어 50분 내에 300자 내외, 600자 내외의 답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가〉의 내용이 한 페이지, 〈나〉, 〈다〉를 합한 내용이 한 페이지인데 〈가〉의 경우는 소설이므로 가독성이 좋아 길게 배치하고, 〈나〉, 〈다〉의 경우 사회 계열 지문이라 핵심적인 부분만 인용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충분히 숙고하여 풀 시간을 적절히 배려한 조처로 평가된다. 1-1 문항은 〈가〉와 〈나〉 두 지문 간의 관계에서 소설 속 주인공인 '앨리스'가 느끼는 당혹스러움의 내용을 300자 내외로 서술하도록 하였고, 1-2 문항은 〈나〉와 〈다〉 및 그래프와 도표 자료를 통해 효율 사회의 믿음의 한계를 600자 내외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발문에서 핵심 주제가 제시되었다는 점과 문제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해당 시간에 무리 없이 기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논제 및 문항의 적절성, 제시문의 적절성

〈가〉의 주제는 '달려도 달려도 제자리인 상황'이다. 남들만큼 해서는 제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며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가려면 남들보다 두 배는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현대사회의 경쟁을 은유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에서는 유사한 주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즐기고 있는가를 반문하면서 사회적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확보한 그 시간만큼 일을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한다.

1-1 문항의 경우, 제시문 〈가〉에 나타난 앨리스의 당혹스러움의 이유를 제시문 〈나〉에 나타난 현대인의 시간 부족 현상과 연결지어 설명하도록 출제되었다. 결국 같은 상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문제를 통해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먼저 제시문 〈가〉에서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에 머무르는 엘리스의 모습과 제시문 〈나〉의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쟁 심화로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모습 사이의 유사성을 확인하도록 문항이 설계되었다. 제시문 〈가〉에 나타난 앨리스의 당혹스러움을 제시문 〈나〉의 사회적 경쟁이 심화를 연결하여 서술하는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이다. 서술 분량 또한 300자 내외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시문 〈가〉의 앨리스의 상황과 제시문 〈나〉의 시간 부족의 핵심 개념만 연결하여 서술하면 완성도 높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1-2 문항은 제시문 〈다〉의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그림 1]과 [그림 2]의 그래프와 도표 자료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시문 〈나〉의 시간 부족 현상과 연결하여 효율성의 증대가 여유와 만족을 가져오지 못하고 경쟁을 심화하고 있음을 설명하도록 문항이 설계되었다. 〈나〉의 주제는 〈다〉의 주제와 연관된다. 〈다〉의 주제는 '효율성이 우리를 노동 시간으로부터 해방시켜 행복을 증대해 줄 수 있는가?'인데, 〈나〉에서 이미 부정적으로 보였듯이 〈다〉의 효율성에 대한 추구가 행복과 비례하지 않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된다. 이를 도표를 통하여 한번 더 실마리를 주면서 '〈다〉의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의 한계를 [그림 1], [그림 2],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묻고 있는데 지문을 적절히 활용한 문항으로 평가된다. 그래프와 도표 자료는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GDP 증가는 삶의 질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하고 있음

과 물질적 상태와 삶의 질이 비례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항에서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의 한계'를 단서로 제시하였고, 비교적 용이한 수준의 그림 자료와 이미 앞서 살펴본 제시문 〈나〉의 시간 부족 현상을 활용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하였다. 문항에서 핵심 주제를 제시하였고, 도표와 그래프 자료도 명확한 논리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초적인 수준의 도식자료 이해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갖추었다면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600자 안에서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의 한계를 밝히고,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난 통계 자료의 의미 서술, 제시문 〈나〉의 경쟁 심화가 현대인을 시간 부족으로 내몰고 있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논리적 단계를 갖추어 작성할 수 있는 문항이다.

▸출제 의도의 적절성, 모범답안의 적절성

이 문항은 효율성과 경쟁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이해하고, 그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과 한계를 성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과연 효율성을 중시하고 경쟁을 통하여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효율성이 높을수록 더 좋은 삶이라는 기치 속에 살고 있다. 특히 대입이라는 목표에 몰입되어 학업에 열중해 온 학생들에게 효율성과 경쟁은 당위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양식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러한 맹목적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다양한 지문을 통하여 생각하게 해 본 의미 있는 문제로 판단된다. 소설 속 주인공 앨리스가 겪은 당황스러운 상황이 현대사회의 효율성과 경쟁 추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성찰하도록 설계한 점에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그래프와 도표 자료의 해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되어 논리적 사고력도 확인하도록 의도되었다. 답안의 채점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각 답안에서 요구하는 핵심 개념들이 간결하게 나타나 있다. 채점 기준과 등급을 9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여 자신의 답안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구분을 제시하였다.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채점 과정에서도 채점 위원 간의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모범답안 역시 문항의 출제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여 서술되었고 제시문에 나타난 표현과 단어들을 재진술한 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지문과 문제를 잘 반영하여 제시되었다고 본다.

▸종합의견

이 문항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당위적이라고 여겨지는 경쟁과 효율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게 출제되었다. 대입이라는 목표에 몰입될 수 있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현대인의 건강한 삶의 자세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수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시문을 활용한 점이 인상적이다. 제시문 〈가〉, 〈나〉, 〈다〉 모두 교과서에 인용된 작품이나 도서가 아니지만 처음 읽어보는 수험생에게도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와 주제로 구성되었다. 문학과 도덕, 그리고 사회 분야의 지문을 하나씩 뽑아 '현대사회의 경쟁과 효율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를 묻고자 하였다. 〈나〉를 중심축에 놓고, 〈가〉와는 공통점을, 〈나〉와는 차이점을 묻는 구성을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몇 가지를 자문해 볼 수 있다. 첫째, 주제는 시의적절한가?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효율성과 행복이라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닥뜨려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문이 적절한가? 이에 대한 대답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문학적 언어로 쓰인 글과 지시적 언어로 쓰인 글이 조화되면서 각계 분야가 내는 현대사회에 대한 경고음을 잘 듣도록 하고 있다. 셋째, 변별력이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도 '그렇다'이다. 특히 〈가〉의 '앨리스'가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인 것이 의미하는 바를 포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변별될 수 있고, 〈다〉의 도표가 시사하는 바를 〈다〉의 내용과 대비적으로 기술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변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항카드④(논술우수자전형 인문계열 2회차 2번) 검토 의견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가〉는 문학작품으로서 '나'의 경험을 설명하도록 한 부분에서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국어과 성취기준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에 부합한다. 그리고 〈나〉는 문화적 이중성에 대한 지문으로 인간의 사회화 과정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 다양성 존중, 주류 문화와 하위문화의 관계 등을 다룬 사회과 교과과정 중의 사회문화 과목의 성취기준 "[12사문03-02] 하위문화의 의미를 주류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다양한 하위문화의 특징과 기능을 분석한다."와 깊게 연관되며, [12사문02-01], [12사문03-01] 등에 근거하여 문화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하고 비판하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다〉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다루고 있으므로 도덕과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의 "[12생윤05-01]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예술과 윤리의 관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에 부합한다. 종합적으로 각각의 다른 과목들을 통합하여 그 공통점과 비판적 지점을 찾게 질문한 문제로서 문항에서 활용된 제시문들은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해당 교과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고 고등학생 수준에서 충분히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되었다.

▸문항 수 및 시간의 적절성

2회차 2번 문항은 〈가〉, 〈나〉, 〈다〉의 세 지문으로 구성되어 50분 내에 300자 내외, 600자 내외의 답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가〉의 경우는 소설이므로 가독성이 좋아 내용 파악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나〉의 경우는 다소 길게, 〈다〉의 경우는 핵심적인 부분만 인용하였다. 〈가〉와 〈다〉는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고, 〈나〉는 관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한 지문이다. 300자 내외로 작성하는 2-1 문항은 〈가〉의 '나'가 경험한 문화 충격의 내용을 〈나〉를 근거로 분석하도록 하여 두 지문 간의 관계에서 답이 도출되도록 하였다. 600자 내외로 작성하는 2-2 문항은 〈다〉에 제시된 '문화 민주화' 정책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해 이를 요약하고, 2-1 문항과 마찬가지로 〈나〉를 근거로 비판하도록 하였다. 질문이 명확하며, 문항의 발문에서 핵심 주제가 제시되었다는 점과 제시문의 요약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정도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주어진 시간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논제 및 문항의 적절성, 제시문의 적절성

〈가〉의 주제는 '두 계층 간의 이질적인 문화 경험'이다. 같은 반 친구가 지닌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지은이가 따라가려 해 보았지만 역부족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문의 마지막 구절 '우정도 역사라는 중력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로 문화가 지닌 계층적 중력을 대변하고 있다. 〈나〉의 내용도 〈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술에 대한 감성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학교나 가정에서의 훈련에 따라 다르게 길들여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가〉와 〈나〉 제시문의 유사성이 성립되고 있다. 〈다〉에서는 문화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문화 민주주의 역시 두 계급의 예술에 대한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로써 〈가〉, 〈나〉, 〈다〉 제시문은 모두 문화의 이중성에 대한 공통 기반을 가진 것이 된다.

2-1의 경우 〈나〉에 나타난 이론을 〈가〉의 현실에 적용하는 문항으로서, 〈가〉에 '나'의 경험을 〈나〉에 나타난 취향과 감성을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나누는 것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부르디외의 견해를 토대로 설명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가〉에 나타난 '나'가 겪는 문화 충격을 〈나〉의 계급적 차이가 쉽게 해소될 수 없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두 제시문의 핵심 주제가 분명하고 문화 충격의 원인을 문화에 대한 이분법적 견해로 연결하여 서술하는 평이한 수준의 문항이다. 서술 분량 또한 300자 내외로 요구되어 '나'의 문화 충격과 문화의 이분법적 형태를 연결하여 서술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항이다.

2-2는 〈다〉의 한계를 〈나〉를 활용해 제시하는 문항으로서, 〈다〉의 '문화 민주화 정책'의 이념과 특징을 요약하고, 이를 〈나〉에 나타난 부르디외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문제이다. 〈다〉에서 문화 민주화 정책은 순수예술을 인류의 주요한 정신적 성취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술의 형태를 고급 예술이라고 정의하고, 이 모델을 대중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 민주화 정책에 나타난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파악하고, 대중은 문화를 향유하는 능동적 주체가 아닌 피동적 존재라는 인식을 강화하였다는 점을 비판하도록 설계되었다. 특정 정책의 이념과 특징을 먼저 요약하도록 하여 글의 이해를 도왔고, 이어 〈나〉의 견해를 바탕으로 비판하도록 하여 2-1 문항에서 이해한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문항에서 핵심 주제를 제시하였고, 요약을 바탕으로 한 기초적인 수준의 이해 능력과 비판적인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어 고등학생 수준에서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출제 의도의 적절성, 모범답안의 적절성

이 문항은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브루디외의 견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나〉에서 미학과 윤리는 분리되지 않으며, 미술 작품이나 음악에 대한 취향은 현실 세계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성향'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의 주장을 토대로 〈가〉와 〈다〉에 접근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문학에 대한 취향과 해석은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이라는 장치를 통해 산물로 주어진다는 부르디외의 견해를 바탕으로 '문화 민주화 정책'의 한계를 비판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가〉, 〈나〉, 〈다〉의 지문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잘 활용하였고 그 의도 또한 잘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문화와 예술이 엘리트나 전문 계층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제시문을 근거로 비판적 사고를 유도함으로써 특정 정책의 한계나 단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 의도가 드러난다.

모범답안 역시 지문과 문제를 잘 반영하여 제시되었다고 본다. 답안의 채점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각 답안에서 요구하는 핵심 개념들이 간결하게 나타나 있다. 채점 기준과 등급을 9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여 자신의 답안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구분을 제시하였다.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채점 과정에서도 채점위원 간의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모범답안 역시 문항의 출제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여 서술되었고 제시문에 나타난 표현과 단어들을 재진술한 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지문과 문제를 잘 반영하여 제시되었다고 본다.

▸종합의견

'예술이란 본능적인 것인가, 아니면 사회 계급이나 정책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 능력과 더불어 문화나 정책에 대해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제시문을 활용한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작품 속 고등학생이 겪는 문화 충격의 내용과 이유를 부르디외의 견해를 통해 설명하도록 설계되었고, 비판적 사고의 근거를 해당 분야 전문가의 논증 결과에서 찾도록 하였다. 특히 문화나 예술이 특정 계층에만 향유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차이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나타난 문제임을 파악하도록 설계된 점이 돋보인다.

논술문 작성 과정은 비교적 단순한 제시문의 요약에서 시작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사고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되었다. 〈나〉를 중심축에 놓고, 〈가〉와는 공통점을 기술할 수 있는가, 〈나〉와는 비판적 지점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구성을 하고 있다. 지문들이 유사하면서도 변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의 독해력을 변별력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문제 또한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이 파악한 바를 논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항카드⑤(논술우수자전형 자연계열(약학부 제외) 1~3번) 검토 의견

〈자연계열(약학부 제외) 문항 1〉

1-1은 근과 계수의 관계(제시문 〈가〉), 다항식의 곱셈공식(제시문 〈나〉)을 이용하여 두 근의 차를 실수 k의 함수로 표현한 후 2차함수의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이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조건에서 제시문 〈가〉를 이용하여 $\alpha+\beta$, $\alpha\beta$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식 $(\alpha-\beta)^2=(\alpha+\beta)^2-4\alpha\beta$를 이용하여 $(\alpha-\beta)^2=(\ln k+2)^2+4$임을 구할 수 있다. $A^2\geq 0$이므로 $(\ln k+2)^2\geq 0$이고, $\ln k=-2$일 때 최소가 되므로 k값을 구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문항의 난이도 및 풀이과정은 평이하며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풀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1-2는 문자 k가 포함되어 있는 3차함수에 대해 극대, 극소에 대한 이해,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곱셈공식등을 활용하여 극댓값과 극소값의 합을 실수 k의 3차함수로 표현하고 다시 제한된 영역에서의 3차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도출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지식 등을 이용하여 풀이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각각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만이 쉽게 풀이할 수 있도록 출제된 좋은 문제라고 판단된다.

삼차함수의 도함수가 이차함수이므로 제시문 〈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판별식을 사용하여 두 실근이 존재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극댓값과 극솟값의 합이 k에 대한 삼차함수가 된다는 아이디어를 캐치해야 한다. 이후 최대·최소 정리(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극댓값과 $f(-1)$, $f(1)$의 값을 비교하여 닫힌 구간 $[-1,1]$에서의 최댓값을 구하여 답을 구할 수 있다. 제시문 〈다〉에서 충분히 문제의 풀이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f(-1)$, $f(1)$의 값이 모두 0으로 계산이 간단한 점을 고려할 때 극댓값과 극솟값의 합 $f(\alpha)+f(\beta)$이 k에 대한 함수가 됨을 추론하고 그 함수를 구해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 여겨진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으며 문항의 난이도, 문제 풀이 시간 등이 논술고사의 의도에 맞게 적절하게 출제되었다.

〈자연계열(약학부 제외) 문항 2〉

2-1은 도형의 넓이(제시문〈라〉), 정적분의 성질(제시문〈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제시문〈바〉), 삼각함수의 성질 등의 다양한 수학적 지식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이해하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여 수열의 일반항을 유도하는 문제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풀 수 있는 평이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정적분을 이용하여 a_n을 구하라는 문제와 주어진 조건문을 연결하면 $x>0$에서 $f(x)>0$이므로 $\int_{a_1}^{a_n}|f(x)|dx=\int_{a_1}^{a_n}f(x)dx$임을 구할 수 있다. 제시문〈라〉와 〈마〉, 치환적분법과 등비수열의 합 공식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식 $\int_{a_1}^{a_n}\frac{2x}{e^2-1}e^{x^2}dx=\left[\frac{1}{e^2-1}e^{x^2}\right]_{a_1}^{a_n}=\sum_{k=1}^{n-1}e^{2k-1}=\frac{1}{e^2-1}\left(e^{2n-1}-e\right)$으로 정리하여 수열 $\{a_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 문항은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제시문을 충분히 읽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문제를 풀려고 접근했다면 풀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 예상된다. 제시문과 문항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제공되었으며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게 잘 구성된 문제로 보인다.

2-2는 문항 2-1에서 구한 a_n을 활용하여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원이 직선 $y=\left(\tan\frac{1}{n}\right)x$와 만나는 두

점 P_n, Q_n으로 만들어지는 선분 P_nQ_n의 길이 제곱의 극한을 삼각함수의 극한을 이용하여 구하는 문제이다. 이를 구하기 위해 삼각함수의 적절한 변형이 필요한데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공부하는 삼각함수 지식을 학습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삼각함수와 연관된 극한 문제를 학습한 학생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선분 P_nQ_n이 원에서의 현이므로 현의 길이 l_n을 구하기 위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제시문〈바〉)를 이용하여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수선의 길이를 구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l_n을 구한다. ${l_n}^2$의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의 계산식이 다소 복잡하지만, 삼각함수의 성질 $1+\tan^2\theta=\sec^2\theta$와 삼각함수의 극한 $\lim_{t\to 0}\frac{\sin t}{t}=1$을 이용한다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풀이할 수 있다. 제시문과 문항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제공되었으며 수학 개념을 응용하고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해결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이다.

〈자연계열(약학부 제외) 문항 3〉

3-1은 사잇값의 정리(제시문〈사〉)를 활용하여 근의 존재성을 밝히는 문제이며, 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함수값의 부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이다. 고교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문제이지만,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한 학생이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열린구간 $(-2,1)$에서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가지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사잇값의 정리를 두 번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f(0)=-1<0$이므로 $f(-2)>0$, $f(1)>0$임을 보이면 된다. n이 자연수이므로 $f(1)=2n-1>0$임은 자명하나 $f(-2)$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모범답안과 같이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지 않고

$$f(-2)=2^{2n}-2^{2n-1}+\cdots+2^2-2-1$$
$$=(2^{2n}-2^{2n-1})+\cdots+(4-2)-1>1>0$$

으로 서술하는 학생들도 있으리라 예상된다. 수학Ⅰ, 수학Ⅱ의 교과서 수준의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출제되었으며, 제시된 함수도 어렵지 않아 기본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지니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2는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서술하고 그것을 증명함으로써 원명제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이다. 학생들이 명제의 대우를 서술할 수 있는 논리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출제된 문제라고 판단된다. 또한, 대우 명제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사잇값 정리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f(c)=0$인 경우와 $f(c)<0$인 경우를 구별하여 증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고교 교육과정 중의 기본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자체는 제시문 〈아〉에서 언급하고 있어 비교적 간단하지만, '모든'이 포함된 명제의 부정까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제시문 〈사〉를 통해 사잇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대우 명제를 증명해야 한다는 실마리를 얻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증명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열린구간 (a,b)의 어떤 x에 대하여 $f(x)\le 0$이면'이라는 조건에서 '$f(c)\le 0$인 실수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증명하는 것 자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모범 답안을 보면 결코 어렵지 않은 증명이지만 $f(c)=0$인 경우와 $f(c)<0$인 경우로 나누어 증명한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아 사고력을 측정하는 논술고사에 출제되기에 적합한 문항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 간단한 증명 문제이지만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제시된 문제로 논술고사의 의도에 맞게 적절하게 출제되었다고 판단된다.

문항카드⑥(논술우수자전형 자연계열(약학부) 1~3번) 검토 의견

〈자연계열(약학부) 문항 1〉

1-1은 근과 계수의 관계, 곱셈공식,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성질을 이용하여 $\alpha^3+\beta^3$를 실수 k의 3차함수로 표현한 후 3차함수의 최댓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이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와 곱셈공식이라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익숙한 유형의 문제로 주어지지만 $\alpha^3+\beta^3$의 값이 지수함수식으로 서술되므로 치환을 통해 다시 삼차함수로 변환하여 함수의 증가, 감소를 이용하여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또, 치환을 사용하지 않고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며 논술고사의 의도에 부합해 보인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면서도 주어진 제시문으로 해결 전략의 실마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만들어진 문항이며, 모범답안 역시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되어 있다.

1-2는 문자 k가 포함된 3차함수에 대해 극대, 극소에 대한 이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곱셈공식등을 활용하여 극댓값과 극소값의 합을 실수 k의 3차함수로 표현하고, 다시 제한된 영역에서의 3차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도출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지식등을 이용하여 풀이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각각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만이 쉽게 풀이할 수 있도록 출제된 좋은 문제라고 판단된다.

삼차함수의 도함수가 이차함수이므로 제시문 〈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판별식을 사용하여 두 실근이 존재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극댓값과 극솟값의 합이 k에 대한 삼차함수가 된다는 아이디어를 캐치해야 한다. 이후 최대·최소 정리(제시문〈나〉)를 활용하여 극댓값과 $f(-\sqrt{3})$, $f(\sqrt{3})$의 값을 비교하고 닫힌구간 $[-\sqrt{3},\sqrt{3}]$에서의 최댓값을 구할 수 있다. 제시문 〈나〉를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고 극댓값을 최댓값으로 바로 제시했을 때 오답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끔 k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만큼 최대·최소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제시문 〈나〉에서 충분히 문제의 풀이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극댓값과 극솟값의 합 $f(\alpha)+f(\beta)$이 k에 대한 함수가 됨을 추론하고 그 함수를 구해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 여겨진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으며 문항의 난이도, 문제 풀이 시간 등이 모두 논술고사의 의도에 맞게 적절하게 출제되었다.

〈자연계열(약학부) 문항 2〉

2-1은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서술하고 그것을 증명함으로써 원명제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이다. 학생들이 명제의 대우를 서술할 수 있는 논리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출제된 문제라고 판단된다. 또한, 대우 명제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사잇값 정리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f(c)=0$인 경우와 $f(c)<0$인 경우를 구별하여 증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고교 교육과정 중의 기본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자체는 제시문 〈다〉에서 언급하고 있어 비교적 간단하지만, '모든'이 포함된 명제의 부정까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 제시문 〈라〉를 통해 사잇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대우 명제를 증명해야 한다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명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열린구간 (a,b)의 어떤 x에 대하여 $f(x)\le 0$이면'이라는 조건에서 '$f(c)\le 0$인 실수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증명하는 것 자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모범답안을 보면 결코 어렵지 않은 증명이지만 $f(c)=0$인 경우와 $f(c)<0$인 경우로 나누어 증명한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논술고사에 출제되기에 적합한 문항이라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 간단한 증명 문제이지만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제시된 문제로 논술고사의 의

도에 맞게 적절하게 출제되었다고 판단한다.

2-2는 함수의 그래프와 방정식의 근의 관계, 미분을 이용한 함수 그래프 개형 파악 등을 이용하여 주어진 방정식의 특정 범위에서 근을 갖도록 하는 조건을 찾는 문제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지만 함수의 그래프 개형와 방정식의 근의 관계에 대해 잘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주어진 문제만 읽었을 때에는 제시문 〈라〉에서 제공하는 사잇값의 정리를 활용한 풀이 전략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아 다른 풀이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우선, $f(x)=x^3-2x$으로 잡아 도함수를 활용하여 함수 $f(x)$의 그래프와 극댓값, 극솟값을 구한 후 $y=f(x)$와 $y=k$의 교점을 구하여야 한다. 이때 $g(x)=f(x)-k$로 잡고 (1)$0<k\leqq 1$인 경우, (2)$1<k\leqq f\left(-\frac{\sqrt{6}}{3}\right)=\frac{4}{9}\sqrt{6}$인 경우, (3) $k>\frac{4}{9}\sqrt{6}$인 경우로 나누어 사잇값의 정리를 적용하여 $g(x)=0$이 닫힌구간 $[-k,k]$에서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한다. 사잇값의 정리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근을 존재하는 범위를 추론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었다고 보인다. 제시문과 문항 모두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남 없이 충실하게 이행되었으며, 수학적 사고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게 잘 구성된 문제라 생각된다.

〈자연계열(약학부) 문항 3〉

3-1은 정적분의 성질과 정적분을 활용하여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길이 제곱의 극한을 삼각함수의 극한을 이용하여 구하는 문제이다.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잘 이해하여 수열의 일반항을 유도하는 과정, 유도된 수열의 일반항으로 표현된 길이 제곱의 극한을 구하기 위한 삼각함수 변형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나 각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연습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정적분을 이용하여 a_n을 구하라는 문제와 주어진 조건문을 연결지으면 $x>0$에서 $f(x)>0$이므로 $\int_{a_1}^{a_n}|f(x)|dx=\int_{a_1}^{a_n}f(x)dx$임을 구할 수 있다. 제시문 〈마〉와 〈바〉, 치환적분법과 등비수열의 합 공식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식 $\int_{a_1}^{a_n}\frac{2x}{e^2-1}e^{x^2}dx=\left[\frac{1}{e^2-1}e^{x^2}\right]_{a_1}^{a_n}=\sum_{k=1}^{n-1}e^{2k-1}=\frac{1}{e^2-1}\left(e^{2n-1}-e\right)$으로 정리하고 수열 $\{a_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데, 이 풀이과정을 서술해 내는 것이 3-1 문항 전체를 푸는 데 핵심이다. a_n을 구한 후 선분 $\mathrm{P}_n\mathrm{Q}_n$이 원에서의 현이므로 현의 길이 l_n을 구하기 위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제시문〈사〉)를 이용하여 원의 중심 (a_n,a_n)에서 현까지의 수선의 길이를 구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l_n을 구한다. ${l_n}^2$의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의 계산식이 다소 복잡하지만, 삼각함수의 성질 $1+\tan^2\theta=\sec^2\theta$와 삼각함수의 극한 $\lim_{t\to 0}\frac{\sin t}{t}=1$을 이용한다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풀이할 수 있다. 제시문과 문항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제공되었으며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게 잘 구성되었다. 단,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제시문을 충분히 읽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문제를 풀려고 접근했다면 풀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3-2는 3-1에서 구한 일반항 $a_n=\sqrt{2n-1}$으로 부등식을 구하고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문제이다. 수학적 귀납법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어진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절한 부등식의 변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좋은 문제라고 판단된다.

부등식으로 제시된 명제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문제는 높은 논리적 사고력과 추론능력을 필요

로 한다. 특히 $n=k+1$일 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증명 과정에서 $n=k$일 때 성립하는 부등식의 양변에 한 개의 항이 아닌 $(2k+1)$개의 항을 더해야 한다는 점과 아래 부등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다.

$$\frac{1}{\sqrt{2k^2+1}}+\frac{1}{\sqrt{2k^2+3}}+\cdots+\frac{1}{\sqrt{2(k+1)^2-1}}\geq\frac{2k+1}{\sqrt{2(k+1)^2-1}}\geq 1$$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이행되었고 증명의 난이도, 증명 시간, 모범답안 모두 논술고사의 의도에 맞게 적절하게 출제되었으며, 과정의 논리적 서술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문항이라고 판단된다.

문항카드⑦(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어 1~40) 검토 의견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어 문항은 지원자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할 수 있는 기초 역량과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개발되었다.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취지에 맞게 실제 국어 생활을 바탕으로 한 문법 체계와 어휘 사용에 대한 문항과 대표적인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총 40개의 문항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언어와 매체와 문학 과목에 기반하여 출제되었고, 모든 문항이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40개의 문항은 4지선다로 구성되어 60분 내에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1~4번 문항은 [12언매02-01]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의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한다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음운의 체계와 변동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출제되었다. 비음과 구개음에 대한 확인을 묻는 문항과 비음화 현상, 단모음 체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5~8번 문항은 [12언매02-02]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품사에 따른 개별 단어의 특성을 탐구한다와 [12언매02-03] 단어의 짜임과 새말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생활에 활용한다는 성취기준에 근거해 단어의 품사를 찾고 단어의 짜임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9번 문항은 [12언매02-05]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는 성취기준에 근거해 문장의 짜임을 확인하는 문제로 구성되었다. 1~9번 문항은 문항 순서대로 음운, 단어, 문장 수준에서 출제되어 교육과정 상의 위계를 따라 구성되어 있는 점도 확인하였다.

10~11번 문항은 〈용비어천가〉의 문장을 인용하여 보기 자료로 구성하였고, 중세 국어의 의미와 현대 국어의 의미 확인, 중세 국어의 표기 방식 등을 물어 [12언매02-08]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는 성취기준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2~15번 문항은 고유어의 의미, 단어의 쓰임, 속담과 관용 표현의 의미 등 [12언매02-04]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에 근거해 출제되었다. 사용된 어휘나 표현은 현대 국어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매우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16~18번 문항은 띄어쓰기와 맞춤법 규정, 어문 규범에 대한 문항으로 [12언매02-11]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을 한다를 근거로 출제되었다.

19~20번 문항은 한자성어의 사용과 한자의 독음을 묻는 문제로 문맥의 의미 파악과 기초 한자 이해 정도를 판단하는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총 40개의 문항 중 20개의 문항이 언어와 매체 교과에서 출제되었다.

21~24 문항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에리히 프롬의 '소유나 존재냐'를 일부 발췌해 구성하였고, 문장의 문맥적 의미 파악, 빈칸 추론, 내용 전개 방식과 글의 내용 확인 등 독서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초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25~28 문항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고릴라를 못 본 이유'를 일부 발췌해 구성하였고, 글의 내용 전개 방식, 단락의 내용 파악, 어휘의 의미 파악, 문장의 의미 추론 등 과학 관련 지문의 내용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29~32 문항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김수영의 〈눈〉과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를 제시하였고, 시어

의 상징적 의미, 시상 전개 방식, 시의 표현 방식, 감상의 확장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제시된 두 작품 모두 널리 알려진 작품이면서 화자가 바라 본 우리 사회의 모습이나 바람을 담고 있다. 수험생들에게 친숙한 작품을 활용해 시에 담긴 의미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33~36 문항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염상섭의 〈만세전〉을 제시하였고, 소설의 시점, 등장인물에 대한 지시 표현, 내용 이해, 작품 속 현실 등 현대 소설의 감상을 중심으로 출제되었다.

37~40 문항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정읍사〉, 정철의 〈속미인곡〉, 평시조를 복합 지문으로 구성하였고, 고전 시가의 표현 방식과 시구의 의미 파악, 표현법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전반적으로 대학 수학을 위한 기초 언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1~20번)과 독서 수준을 평가하는 문항(21~28번), 현대문학과 고전 문학에 대한 기초 감상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29~40번)이 고르게 출제되었고, 인용한 제시문이나 작품이 평이해 제외국민특별전형에 부합하게 출제되었다.

문항카드⑧(재외국민 특별전형 영어 1~33) 검토 의견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재외국민 특별전형 영어 영역의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영어Ⅰ 및 영어Ⅱ의 성취기준에 맞춰 출제되었다. 성취기준 [12영Ⅰ03-06]에 따라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며, 성취기준 [12영Ⅱ03-04]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글에서 필자의 의도 및 글의 목적을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 주제는 과학, 역사, 문화, 사회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문항 수 및 시간의 적절성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제들은 각각 3점, 특정 문항은 4점으로 시험의 각 문항이 고르게 배치되어 있어 총 배점도 적절하다. 또한, 수험생이 제한 시간 60분 안에 모든 문항을 풀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시간 관리 능력 또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수능영어 시험과 비교하면, 이 문제들은 다양한 문항 유형을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수능영어 시험과 마찬가지로 어휘, 문법, 독해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상황과 문맥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할 수 있다. 또한 문항 난이도와 풀이 시간을 고려했을 때,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제 및 문항의 적절성, 제시문의 적절성

1-3번 문항은 어휘 문제로 영영 풀이를 바탕으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번은 “prohibition”과 같은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번은 “stall”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고, 단어의 맥락적 활용을 평가하며, 3번은 “disposition”의 복합적 정의를 요구하며, 추상적인 의미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이는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어휘와 정의를 기반으로 출제되었으며,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보인다.

4-6번 문항은 문법 문제로 문장의 문법적 오류를 찾아내는 문제로, 고등학교 문법 교육의 주요 항목을 다루고 있다. 4번은 “less than”의 적절성을 포함해 문장의 통사적 구조를 점검하고, 5번은 “inevitable” 사용의 문맥상 오류 여부를 점검하며, 추론 능력을 측정하며, 6번은 단수/복수 형태의 불일치 여부를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문법 범주가 폭넓고, 출제 의도가 명확하며, 지문 내용이 교과과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7-9번 문항은 밑줄 친 표현의 의미 추론 문제로 문맥 이해와 어휘적 연관성을 평가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7번은 “marvel”의 유의어 추론을 통해 독해 능력을 평가하고, 8번은 “encourage”와 같은 긍정적 단어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며, 9번은 “heartbreaking”의 의미를 파악하며 감정적 문맥 이해를 평가하고 있

다. 밑줄 친 단어와 선택지 간의 관계가 명확하며, 학생들의 맥락 추론 능력을 평가하기 적합하다.

10-12번 문항은 빈칸 어휘 문제로 특정 단어가 문맥상 가장 적합한지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0번은 “smoking”의 형태소 활용을 평가하며, 명사형/동명사형 구별을 요구하고, 11번은 “intertwined”의 쓰임새를 맥락 내에서 파악하도록 하며, 12번은 생리학적 설명과 관련된 “absorbed”의 선택을 통해 과학 지문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있다. 빈칸 어휘 선택은 문법적, 맥락적 요소를 포함하여 균형 잡힌 문제 구성을 보인다.

13-15번 문항 지문은 1983년에 발명된 ‘snap bracelet’의 구조, 디자인, 유행, 그리고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초기 제품과 모방 제품 간의 차이 및 관련 안전 문제가 설명되어 있다. 13번 문항은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 선택으로 선택지는 제품의 다양성, 활용성 등을 다루며, 지문 속 설명에 적합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14번 문항은 “fad”를 선택하도록 하여 해당 제품이 당시 유행했다는 맥락적 단어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15번 문항은 지문 요약 문제로,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요약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은 제품의 역사적 맥락과 세부 정보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으며, 문항은 독해력 및 세부 정보 파악 능력을 고르게 평가하고 있다.

16-17번 문항 지문은 체육 수업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성 고정관념과 그 영향을 다루며, 경쟁적 분위기와 커리큘럼이 여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16번 문항은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연결어 선택으로 연구 결과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표현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며, 논리적 사고를 측정하고 있다. 17번 문항은 지문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찾는 문제로, 세부 사항 이해와 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은 체육 수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며, 문항은 논리적 사고력과 세부 사항 이해도를 고르게 평가하고 있다.

18-19번 문항 지문은 나이지리아의 정치, 사회 문제를 설명하며, 젊은 세대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18번 문항은 밑줄 친 “credits”의 동의어를 선택하는 문제로 작가의 긍정적 태도를 반영한 어휘를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19번 문항은 지문의 핵심 메시지를 제목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주제 파악 능력을 측정한다. 따라서 제시문은 희망적이고 명확한 주제를 포함하며, 문항은 주제 파악과 어휘 추론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고 있다.

20-21번 문항 지문은 재산 재분배, 사회적 격차 감소, 공동체적 관계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문항의 출제 의도는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문을 통해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20번 문항은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비교급 표현 선택으로 문장의 구조적 이해 및 사회적 현상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21번 문항은 지문의 제목 선택으로 지문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제목을 고르는 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제시문은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문항은 논리적 사고력과 주제 파악 능력을 고르게 평가하고 있다.

22-24번 문항 지문은 논쟁 상황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문항의 출제 의도는 실용적 상황에서 제시문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22번 문항은 지문의 제목 선택 문제로 제시문의 실용적 핵심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23번 문항은 제시문에서 설명된 갈등 완화 방법 선택으로 세부 사항 이해 및 적용 능력을 요구한다. 24번 문항은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 찾기로 실용적 글쓰기에서 문법적 오류를 파악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지문은 실용적이고 구체적이며, 문항은 세부 사항 이해와 적용 능력을 균형 있게 측정하고 있다.

25-33번 문항 지문은 문화 번역, 기억력, 수면 문제 등의 현대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25-26번 문항 지문은 문화 번역이 단순히 언어적 변환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 이해를 포함함을 강조하고 있다. 어휘 선택(“bridge”) 및 지문의 핵심 목적 파악을 통해 추상적 사고력을 평가하고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7-28번 문항 지문은 불안감 극복을 위한 교육적 접근 방식을 다루고 있다. 속담과 생리학적 현상을 바탕으로 구체적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9-30번 문항 지문은 건강한 수면 습관

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번역 문제 및 지문 요약 능력을 요구하며, 적용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1-33번 문항 지문은 그리스 및 로마 신화 두 신화의 차이와 역사적 맥락을 비교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과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해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 지문은 고등학생들이 학습한 다양한 배경지식을 활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문항은 분석력, 추론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들의 제시문 및 문항은 실제적 상황과 연결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적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문항 10은 현대사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생각하게 하며, 학생들이 실제 정치적 논의를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평가한다. 또한 문항 18에서는 나이지리아의 노벨상 수상 작가의 견해를 통해 문화 간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학생들에게 국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문항 33은 뇌 과학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여 과학적 지식과 일상생활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한다. 이는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문항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시문들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고, 다양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종합해 볼 때 문제들은 다양한 학습 영역을 평가하고, 학문적 지식의 실용적 적용을 보여줌으로써 현실 세계의 이슈와 연결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출제 의도의 적절성, 모범답안의 적절성

출제 의도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중점을 두는 것은 문제들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분석적 능력을 촉진하며, 대학 수준의 학업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다양한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이다. 문항 10, 18, 33과 같은 문제들은 공중 보건 정책, 국제 문화 이해, 신경 과학의 개념을 영어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이는 학생들이 실제 상황과 연결되는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들이 학교 밖 세계에서의 이슈를 이해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국제적인 관점에서 사고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제공된 모범답안들은 각 문제의 의도와 학습 목표에 매우 적절하게 부합한다. 예를 들어, 문항 10의 'smoking'이라는 답안은 흡연 금지 정책과 관련된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항 18에서는 'An Author's Hope in Young People'이라는 답안이 Wole Soyinka의 나이지리아 청년에 대한 희망적 관점을 잘 요약하며, 문항 33의 답안은 뇌의 가소성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정확히 반영한다. 이 모범답안들은 문제의 중심 주제와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히 응답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도를 자가 평가하고 필요한 지식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각 문항은 대학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독해력, 어휘력, 논리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출제되었고, 출제 의도는 교육적 가치가 높으며, 교육과정의 목표와 잘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항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적절히 설정되었으며, 제공된 모범답안은 정확성과 명료성을 갖추고 있다.

▸종합의견

이 시험 문제들은 다양한 유형과 상황에 걸쳐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 배정과 60분이라는 시간 제한은 충분한 도전이며, 실제 수능영어 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학생들의 어휘, 문법, 독해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은 대체로 잘 구성되어 있으며, 출제 의도와 모범답안은 각 문제의 학습 목표에 부합하도록 잘 설계되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문항 구성과 제시문 주제가 다양하고 심화되어 있어 평가 도구로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생들의 기본적 영어 역량과 대학 교육 준비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이니 평가 수단으로 판단된다.

문항카드⑨(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학 1~20) 검토 의견

재외필답고사는 1학년 수학부터 수학1, 수학2에서 학습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제대로 익혔는지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려운 고차원적 수학적 사고력보다는 대학 진학 후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들이라고 판단된다.

문항 1 : 다항식의 뺄셈, 곱셈과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2 : 나머지 정리와 항등식의 성질, 혹은 조립제법을 활용하여 다항식을 구하는 문제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3 : 다항식의 인수분해 혹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가능한 두 자연수의 조합을 구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무난하게 풀 수 있다.

문항 4 : 복소수 z를 $z=a+bi$로 두고 z^2이 실수가 될 조건을 유추하여 적용하면 무난하게 풀 수 있다. 주어진 복소수를 실수부분과 허수부분끼리 모은 후 z^2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문항 5 : 주어진 유리함수가 평행이동한 후의 함수식과 $y=\frac{ax+b}{cx+d}$ 꼴로 주어진 함수식을 $y=\frac{k}{x-m}+n$ 꼴로 고친 후 두 함수식을 비교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6 : 일대일 함수의 정의와 순열의 개념을 활용하여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7 : 지수법칙을 활용하여 밑을 통일한 후 지수의 부등식으로 변환하여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8 : α, β가 주어진 로그방정식의 근임을 이용하여 두 개의 식을 연립하여 해결할 수 있다. 또는, 주어진 로그방정식을 치환하여 이차방정식으로 변환한 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풀 수도 있다.

문항 9 :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정의와 로그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10 : 삼각함수의 성질 $\sin^2\theta+\cos^2\theta=1$과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11 :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여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으로 변환하고 삼각함수의 성질 $\sin^2\theta+\cos^2\theta=1$과 코사인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12 : 주어진 두 항 a_n, a_{n+1} 사이의 관계식을 변형하여 수열 $\left\{\frac{1}{a_n}\right\}$이 등차수열임을 착안하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는, n에 자연수를 순서대로 대입하였을 때 수열 $\{a_n\}$의 규칙을 쉽게 파악하여 답을 구할 수도 있다.

문항 13 : $\sum$의 정의를 이용하여 식을 전개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14 :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상수를 구하고, 연속함수의 성질을 활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15 :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한 점에서의 미분가능성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단, 보기의 ㉠, ㉡ 함수가 미분가능하지 않음을 판단한 후에는 ㉢, ㉣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아도 가능한 답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답지 구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항 16 :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삼차방정식을 풀어 점 B를 구한 후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여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17 : 함수의 극값을 구하고 주어진 구간에서의 극값과 양 끝값을 비교하여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문항 18 : 부정적분의 정의와 함수의 실수배, 합의 부정적분,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을 이용하여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19 : 절댓값이 포함된 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하는 문제로, 범위를 나누어 정적분을 계산하면 무난하게 풀 수 있다. 혹은 정적분의 성질과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를 활용하여 넓이의 개념으로도 풀 수 있다.

문항 20 : 정적분의 정의와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이용하여 풀 수 있는 문제이다.

기본적인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문제들이 전 영역에 걸쳐 고르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문항별로 분석해보면 1번부터 6번까지의 문항은 방정식과 부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복소수, 도형의 이동, 집합과 함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고, 7번부터 13번까지의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 I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수열의 합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14번부터 20번까지의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 II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다항함수의 도함수, 부정적분, 다항함수의 정적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과목으로 구분하자면 1~6번은 수학, 7~13번은 수학Ⅰ, 14~20번은 수학Ⅱ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9, 10, 11번 문항은 수학과 수학Ⅰ의 내용이, 16번 문항은 수학과 수학Ⅱ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용해야 하는 문항으로 출제되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내용의 숙지 여부는 물론 지식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풀어내는 문제해결 능력까지 판단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 문항은 교과서에서 유사한 유형의 문항들이 수록되어 있는 만큼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60분 안에 20문항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고 판단된다.

Ⅳ.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IV.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 우리 대학은 현행 관련「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실시 후 선행학습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고, 차년도 입학전형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규정에 명시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참고] 선행학습영향평가 및 반영 절차

절차	내용	시행 주체
(1) 대학 입학 전형 실시	· 입학 전형 실시	입학처
(2) 선행학습영향평가 실시	· 선행학습영향평가 계획 수립 ·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자체 분석 및 평가 · 향후 대입전형 개선방안 제시 ·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보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소위원회
(3)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심의 및 공개	· 소위원회의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와 전형 개선방안 보고서를 심의하고 공개(매년 3월)	대학입학전형 개발위원회
(4) 입학전형계획 수립에 반영	· 전형 개선방안 보고서에 근거하여 차년도 전형계획수립에 반영	대학입학전형 개발위원회

1. 출제 및 검토 개선

□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사전 교육 및 교육과정 준수 여부 지속 점검

-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에 대한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중요성, 성취기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 실시
- 출제위원은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스스로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출제하도록 하며, 출제 과정 중 검토위원의 점검 및 최종 검토 결과 제출을 통하여 출제 전부터 출제 후까지의 단계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

2. 출제 후 점검 강화

□ 출제와 평가의 연계 강화

- 출제자가 평가에 참여하면서 본인의 출제 의도에 맞는 답안이 작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자 사전 교육을 진행하여 출제와 평가의 연계를 강화함

3.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

□ 현재 우리 대학의 대학별고사 형태 및 수험생 지원 방향 유지

- 2019학년도부터 시행한 계열 문항 확대 기조를 유지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계열별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학능력 및 통합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를 준수함.
- 모의논술 실시, 기출문제 및 해설 공개 등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의 대학별고사 출제 방향 및 형태를 경험하게 하고, 수험생이 별도의 사교육 없이 대학 제공 자료만으로 충분히 대학별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 추가 평가의견들을 참고하여 문항 구조 및 난이도, 지문 개수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우수한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고함.

Ⅴ. 부록

V. 부록

1. 선행학습영향평가 우리 대학 자체 규정

□ 선행학습영향평가 시행 배경 및 관련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에 규정화

- 2015년 2월 6일자로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를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에 두어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의 대학입학전형과 관련된 제도 개발 및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을 심의할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6.)

제2조(기능)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6.26.)

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개발·면접구술고사제도 개발·논술고사 개발·학생부 반영기법 개발·자격증 및 특기 반영기법 개발 등)
4.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전형유형·전형자료·자격기준·사정방법·전형일정·모집인원의 배분·전형관리 등)
5. 대학입학제도 통계 및 조사·홍보에 관한 사항(각종 통계분석·국내외 대학 입시제도 자료 조사, 홍보계획 수립 등)
6. 주요 전형관리 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전형위원 배분 등)
7. 대학별고사에 따른 선행학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5.2.6)
8. 그 밖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호번호변경 2015.2.6.)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고,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에 실무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입학처장 및 사무·관리처장)은 해당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6.26./2020.06.20.)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술제도개발·면접제도개발·통계분석·자료조사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분과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4.6.26.)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4.2).

⑤ 분과위원회의 연구 및 자료 조사 등의 경비를 입시경비 중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5조의2(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조신설 2015.2.6)

① 위원회는 제2조 제7호에 따른 선행학습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6.20)

②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는 위원장,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6.20)

③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6.20)

④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6.20)

1. 선행학습영향평가 계획 수립
2.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자체 분석 및 평가
3. 향후 대입전형 개선방안 제시
4.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보고

⑤ (삭제 2020.06.20)

⑥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계획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3월 말일 이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0.)

2-1. 문항카드 ① <인문계열 1회차 1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회차) / 문항 (1-1, 1-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정치와 법,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사회문화현상 탐구, 양적 연구방법, 의사결정, 데이터 요약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1

〈가〉

요즘에는 뉴스 기사를 열 때마다 도표와 마주친다. 그런데 수치를 이미지로 표현한다는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크림전쟁 당시 나이팅게일이 많은 수를 한눈에 설명할 수 있는 도표를 이용한 덕분에 사람들은 군대 의료가 처한 암울한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19세기 초반 더욱 많은 수의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수집된 수를 분석할 필요 또한 커졌다. 도표와 함께 '평균'도 흔히 사용되었다. 나이팅게일은 두툼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방법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는데, 이를테면 전쟁 기간 중 매달 평균 환자수를 계산했다.

평균은 16세기 말부터 천문학자들이 사용해 오고 있었다. 천문학자들은 개별 천체 측정값에는 예외 없이 어느 정도의 오류가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들은 측정한 값의 총합을 측정한 개수로 나눈 평균 측정값을 일단의 개별 측정값 전체에 걸쳐 축적된 전체 오류값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했다. 예를 들어, 한 과학자가 잰 토성의 속도 측정값은 오류를 가지나 여러 과학자들이 잰 토성 속도 측정값이나 한 명의 과학자가 잰 여러 가지 측정값과 같이 축적된 전체 오류값은 평균 측정값을 통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균 측정값이 측정값의 참값(예를 들어, 토성의 진짜 속도)에 대한 기대 가능한 최대 근접치라는 것은 후에 수학자 가우스의 유명한 증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9세기에 케틀레는 평균을 천체가 아닌 인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다. 케틀레는 왜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의문을 던졌고, 인간의 행동에는 특정 패턴이 존재해야 한다는 답안을 찾는 과정에서 **평균인(l'homme moyen)**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평균인이 참 인간이며 개개인이 오류에 해당한다. 즉 그는 평균적 인간이 인간의 보편적 원형이며, 우리 모두가 이러한 원형의 결함 있는 모사작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케틀레는 평균인의 개념을 키와 몸무게와 같은 계측 가능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특성들, 예컨대 어느 개인이 환자가 되거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케틀레에게 평균인은 완벽 그 자체이자 자연이 꿈꾸는 이상이며 오류 없는 인간의 표상이었다. 케틀레는 평균적 인간을 우러러 받든 반면, 평균에서 벗어난 불운한 개인들에 대해서는 그에 맞먹는 혐오감을 가졌다.

〈나〉

영국 과학자 골턴과 관련한 일화가 있다. 1907년 어느 봄날 골턴은 항구도시 플리머스로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에서 커다란 황소를 무대 위에 올려놓고 도축했을 때 손질된 고기의 무게를 맞추는 대회를 목격하였다. 소에 관한 천차만별의 지식을 가진 참가자들은 6펜스를 내고 산 티켓에 이름과 주소, 숫자(무게)를 적어 냈고, 그중 가장 근접한 수치를 적어 낸 사람이 상금을 탈 수 있었다. 골턴은 소 무게 맞추기 게임에 참가한 집단의

지혜를 확인하고 싶어 그 티켓 787개를 손에 넣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 무게를 너무 크거나 작게 추정했다고 단정했고, 중앙값인 547㎏을 민주적 결정의 결과값으로 선택했다. 실제 손질된 고기의 무게는 543㎏으로 밝혀졌다. 놀랍게도 골턴이 제시한 대중의 선택은 정답에 매우 가까웠다. 골턴은 이 경험을 "인민의 목소리(Vox Populi)"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출판하였는데, 오늘날 그의 발견은 **대중의 지혜(wisdom of crowds)**로 알려져 있다.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이항 또는 연속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평균(average)'이라는 통계량(statistics)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집단의 대푯값으로 사용된다. 평균은 일상에서 평균 임금, 평균 시험 점수, 평균 온도 등과 같이 자주 쓰이지만, 그 의미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명확하지 않다. 평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데이터의 총합을 데이터 개수로 나눈 값인 산술평균(mean), 수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중앙값(median), 가장 흔한 값인 최빈값(mode) 등이 있다. 그리고 이 값들은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위치 설정의 기준, 즉 중심 경향값(central tendency)으로도 알려져 있다.

불행히도 평균이라는 말이 미디어에서 등장할 때, 이것을 산술평균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앙값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종종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영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 임금은 산술평균인데 반해 지방정부는 평균 임금을 중앙값으로 따로 보고하는데, 여기서 '평균 소득', 즉 산술평균과 '평균적인 사람의 소득', 즉 중앙값을 구별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또 영국 정부는 주택 공시 가격을 중앙값으로 보고하는데, 그것을 일컫는 말이 '평균 주택 가격'이라서 혼란이 발생한다. '평균-주택 가격인가 아니면 평균 주택-가격인가? '-' 부호의 위치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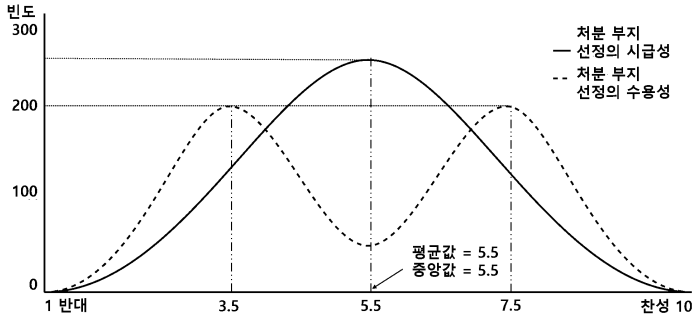
〈다〉

북아메리카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의 신장을 측정한 데이터를 살펴보자. 전형적인 북아메리카 여성의 키(중앙값, 즉 50%의 여성보다 크고 나머지 50%의 여성보다 작은 여성의 키)는 약 165㎝이다. 평균적인 북아메리카 여성의 키(평균값, 즉 모든 여성들의 키를 더해 총 여성 수로 나눈 값)도 약 165㎝이다. 이 데이터에서 중앙값과 평균값은 같으며, 여성의 키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대칭적인 형태로 고르게 퍼져 데이터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이른바 '정규' 분포로 나타난다.

그런데 중앙값과 평균값이 늘 동일한 것은 아니며, 데이터의 분포 상태에 따라 동일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인구의 소득별 비율을 요약해 보여 주는 소득 분포 그래프는 종 모양의 대칭적 형태보다는 오른쪽 '꼬리'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모양을 '두꺼운 꼬리(fat-tailed)' 분포라고 한다. 두꺼운 꼬리 분포는 극단적인 쏠림을 특징으로 하며, 세계 평균 소득은 중간 소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식당 고객의 시간별 방문 수를 보여 주는 그래프는 특정 시간대를 중심으로 두 개의 뚜렷한 봉우리(peak), 즉 두 개의 최빈값을 가지는 '이봉(bi-modal)' 분포로 나타난다.

다음 가상의 사례를 살펴보자. 가상의 A국가 시민들은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 선정이 긴급하다는 '시급성'과 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본인 거주 지역에 처분 부지를 선정하는 결정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에 대해서 대체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식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A국가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한 4,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두 개 사안 각각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는가'를 질문하였고, 설문 참여자에게 10점(1="절대 반대", 10="절대 찬성")의 범위 내에서 무제한의 소수점 단위까지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질문에 대한 응답 모두에서 평균값과 중앙값은 5.5점으로 동일했다. 상세한 응답의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정책 결정자들은 사회에서 평균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시민의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 한 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응답을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참고하기로 했다. 한편,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는 처분 부지 선정의 시급성과 수용성을 묻는 질문 각각에 5.5점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1] 시민 의견 설문 조사 결과

1-1. **〈가〉의 '평균인'과 〈나〉의 '대중의 지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300±30자)**

1-2. **A국가 정부가 시민 ⓐ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나〉, 〈다〉, [그림 1]을 활용하여 비판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현상의 참값(true value)을 파악하고 개별 관찰값과 참값 간 오차(deviance)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평균을 사용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평균의 일반적인 의미와 데이터 특성에 따른 평균 개념의 차이를 구분하여 사용 가능한지를 묻고 있다. <가>는 사회적 현상을 숫자로 측정하고 이를 요약하는 평균 측정법이 전체 중 일부에 대한 복수의 측정과 측정값의 평균값, 즉 반복적인 표본측정과 표본의 산술평균의 산술평균을 통해 계산한 평균값이 전체, 즉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대푯값으로서의 산술평균이 집단의 특성을 통해 개인을 유추할 수 있게 하고, 평균을 이상형 또는 정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나>는 골턴의 일화를 통해 사회적 현상의 참값을 알지 못할 때 다수의 측정을 통해 측정오차를 줄일 수 있고, 중앙값이 측정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평균(average)은 산술평균(mean), 중앙값(mode), 최빈값(median)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미디어 등에서의 평균 개념이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용어가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는 데이터의 분포 특성에 따라 평균값과 중앙값, 최빈값 등이 동일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문제는 <가>의 평균 측정값(즉 산술평균)과 <나>의 대중의 지혜(즉 중앙값)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사실 판단 능력과 <다>의 가상의 사례와 [그림 1]을 통해 요약하여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적) 평균인의 기준이 정책 판단에 활용 가능한지를 묻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확인하고자 했다. 학생들은 지문들 사이의 관련성 파악을 통해 사실 판단 능력을 그리고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주장의 논리적 구성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답안에서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12사문01-02]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 및 차이점을 비교한다.	제시문 <가>, <나>
성취기준 2	[12사문01-03]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과 특징을 비교한다.	제시문 <나>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기준 1	[12정법03-01] 민주 국가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	제시문 <나>, <다>

3.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가>, <나>
성취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제시문 <가>, <나>, <다>
성취기준 3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나>, <다>

나) 자료 출처

-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	데이비드 스피겔할터	웅진지식하우스	2020	49-86	제시문 <가>	○
위험한 숫자들	사너 블라우	더 퀘스트	2022	27-57	제시문 <가>	○
평균의 종말	토드 로즈	21세기북스	2021	41-67	제시문 <가>	○
Vox Populi	Francis Galton	Nature	1907	450-451	제시문 <나>	○
대중의 지혜	제임스 서로위키	랜덤하우스 중앙	2004	8-11	제시문 <나>	○
냉정한 이타주의자	윌리엄 맥어스킬	부키	2017	69-81	제시문 <다>	○
불법행위의 과실 판단과 사회평균인	권영준	비교사법	2015	103-108	제시문 <다>	○

5. 문항 해설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데이비드 스피겔할터. (2020).『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 웅진지식하우스. 49-86쪽.

- 사너 블라우. (2022).『위험한 숫자들』. 더 퀘스트. 27-57쪽.

- 토드 로즈. (2021).『평균의 종말』. 21세기북스. 41-67쪽.

<가>는 많은 수의 수집된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과 그 적용을 산술평균(mean)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평균은 데이터를 요약하는 것과 함께 측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도구적 성격을 가진다. 가우스 등에 따르면 측정값의 참값에 대한 기대 가능한 최대 근접치로서 산술평균은 의미를 가진다. 케틀레는 참값의 추정치인 평균 측정값을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고, 특히 인간의 행동의 특정 패턴을 평균 측정값을 통해 찾으려 하였다. 더욱이, 케틀레는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평균값과 거리를 가진 개별 관찰값으로 오류로 간주하고 평균에 근접한 상황에 대한 찬사와 일탈한 상황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였다.

제시문 <나>

- Galton, Francis. (1907). Vox Populi.『Nature』. 450-451쪽.

- 제임스 서로위키. (2004).『대중의 지혜』. 랜덤하우스중앙. 8-11쪽.

<나>는 도축된 소고기의 무게를 맞추는 대회를 목격한 골턴의 일화를 사례로 하여, 참값, 즉 소고기 무게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수의 관찰 또는 측정을 활용하는 것의 유용성과 이때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으로서 중앙값이 가지는 도구적 의미를 소개한다. 특히, 골턴은 787개의 측정치의 중앙값이 실제 참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수의 의견 표현과 그 중심적인 의견이 실제 정답에 근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평균(average)이 다소 모호한 의미를 가지며, 산술평균(mean), 중앙값(median), 최빈값(mode)의 평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데이터를 요약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는 기준점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때, 집단의 특성을 요약하는 대푯값의 기준 위치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평균값과 중앙값이 사용되는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

제시문 <다>

- 윌리엄 맥어스킬. (2017).『냉정한 이타주의자』. 부키. 69-81쪽.

- 권영준. (2015). 불법행위의 과실 판단과 사회평균인.『비교사법』. 103-108쪽.

- [그림 1]: 가상 사례에서의 설문조사 데이터의 분포

<다>는 3개의 데이터, 즉 북아메리카 여성의 신장(키), 세계 소득, 식당 방문 고객의 분포를 사례로 평균값과 중앙값의 개념을 구분하고, 데이터의 분포 형태에 따라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이 동일한 정규분포와 동일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비정규분포, 즉 두꺼운 꼬리 분포와 이봉 분포를 소개한다. <다>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데이터를 요약하는 평균의 다양한 해석, 즉 3개의 대푯값인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이 동일한 정규분포(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 선정의 시급성)과 평균값과 중앙값은 동일하지만 최빈값은 상이한 비정규분포, 즉 이봉분포(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 선정의 수용성)를 제시문 내의 본문과 [그림 1]을 통해서 제시한다. 그리고, 평균인으로서의 시민 ⓐ의 응답이 개별 관찰값으로 제시되었다.

■논제의 구성

1. <가>의 '평균인'과 <나>의 '대중의 지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300±30자)

(<가>의 산술평균과 평균인)

- <가>의 산술평균은 다수의 관찰치를 합한 값을 관찰 개수로 나눈 값이며, 데이터를 요약한 대푯값으로 활용될 수 있다. 참값을 알기 위해 평균 측정값을 사용하며, 측정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즉 평균값 계산에 필요한 측정수가 증가할수록 산술평균의 평균측정값은 참값에 대한 기대 가능한 근접치로 기능한다.
- 산술평균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숫자로 요약하며, 개별 관찰값의 오차를 최소화한 값이다. 케틀레는 자연 현상인 천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현상인 인간 행동에도 평균측정값을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다.
- 케틀레는 평균인을 평균에 근접하여 오차가 없는 사람으로 보았고, 평균인 이상적인 원형이며 개별 관찰값인 인간을 평균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근접할수록 이상적인 존재로 멀어질수록 혐오스런 존재로 받아들였다.

(<나>의 중앙값과 대중의 지혜)

- <나>의 중앙값은 다수의 관찰치를 수의 크기에 따라 정렬한 후 가운데 위치에 있는 수치이며, 데이터를 요약한 대푯값으로 활용될 수 있다. 참값을 알기 위해 중앙값을 사용하며 관찰값들의 중간 위치, 즉 50%에 위치한 관찰값은 참값과 비교하여 큰 차이(오차)를 가지지 않는다.
- 오류(error)는 오차(deviance)의 의미를 포함하며, 중앙값은 너무 크거나 작은 오차를 제거한 가장 오차가 적은 숫자로 활용될 수 있다.
- 골턴은 천차만별의 사람들, 즉 소고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다양하게 가진 사람들의 경험의 중앙값이 실제 소고기의 무게와 근접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대중의 지혜, 즉 여러 사람들의 의견 중 정중앙의 의견이 참값과 일치할 가능성도 높다고 발견하였다.
- 평균(average)은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대푯값으로서 이 평균값은 데이터가 분포한 형태의 위치 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 모두 이 값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효과가 있어, 이들 평균값은 중심 경향값(central tendency)로 불리기도 한다.
- 평균은 각 데이터의 특성과 보여 주고자 하는 의미를 기준으로 특히 산술평균과 중앙값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될 필요가 있다.

2. A국가 정부가 시민 ⓐ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나>, <다>, [그림 1]을 활용하여 비판하시오. (600±60자)

(<다>의 데이터 분포와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위치 변화)

- <다>는 데이터의 분포 형태에 따라 산술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이 동일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데이터가 하나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정규분포하는 경우에는 산술평균과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이 동일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왼쪽으로 치우쳐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거나 2개의 봉우리를 가진 분포를 보일 경우 산술평균이 중앙값이나 최빈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그림 1]은 <다>의 가상 사례에서의 설문조사 데이터의 분포를 요약하여 제시하며 빈도수를 기준으로 최빈값의 위치가 상이하고, 본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산술평균과 중앙값이 일치함을 보여 준다.
- 이후 <다>는 정책 결정에 '평균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평균인'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시도를 '중립적'인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 의견을 다양한 평균의 개념을 활용해 추정하는 접근으로 비유하고, 그 평균인을 상징하는 시민 ⓐ의 응답 결과를 제시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값의 근접치로서의 평균의 기능과 활용에 대한 설명】 ① 참값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울 경우 근접값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 근접값이 임의의 개별적인 관찰값이 아니라 다수의 관찰값을 요약한 특정값으로서의 평균값이다. 【제시문 <가>의 참값의 근접치로서의 '산술평균'의 기능과 활용에 대한 설명】 ② 평균인은 참값으로부터의 총오차를 최소화하는, 즉 측정값의 총합을 측정한 개수로 나눈 값인 산술평균 방식의 평균 측정값을 가진 사람이다. ③ 참값에 대한 기대 가능한 근접치로서 평균인은 오차가 없는 이상적인 존재로 여겨지며, 평균인의 개념은 오차에 대해 부정적이다. 【제시문 <나>의 참값의 근접치로서의 '중앙값'의 기능과 활용에 대한 설명】 ④ 대중의 지혜는 참값으로부터 오차가 큰 관찰값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차를 최소한으로 가진 중앙값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⑤ 숫자를 크기에 따라 정렬하여 산출하는 중앙값은 관찰값이 차지한 상대적 위치를 중심으로 산출되며, 참값과의 오차를 최소한 근접치로서의 성격보다는 참값을 보다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기능성을 가진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고, ⑤가 부족하지만 논리성이 충분한 경우	2등급
	①, ②, ④ 중 한 개가 부족하고, ③, ⑤가 부족하지만 논리성이 충분한 경우	3등급
	①, ②, ④ 중 한 개가 부족하고, ③, ⑤가 부족하면서 논리성이 미흡한 경우	4등급
	①, ②, ④ 중 두 개가 부족하고, ③, ⑤가 부족하지만 논리성이 충분한 경우	5등급
	①, ②, ④ 중 두 개가 부족하고, ③, ⑤가 부족하면서 논리성이 미흡한 경우	6등급
	①을 충족하고 ②, ③, ④, ⑤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개인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의 의의와 문제점 설명】 ①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에 '사회에서 평균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시민'의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한 결정을 <나>의 '대중의 지혜'에서의 의사결정과 연계하고, 여기서 '평균'이 가지는 다의미성을 '산술평균'과 '중앙값'으로 구분한다. - 단,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와 같은 표본추출의 방법이나 설문 조사의 타당성 등의 연구방법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논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질문한 내용이 아니므로 감점한다. ② 정책에 대한 시민 전체의 관점과 평균적인 시민의 관점에 차이(오차 또는 오류 등)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히고, 관련 사안에 대한 시민 의견의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하여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평균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제시문 <다>의 본문과 [그림 1]의 내용에 대한 분석】 ③ 평균적인 시민의 관점과 시민 ⓐ의 관점의 일치 여부는 데이터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림 1]은 시민 ⓐ의 응답이 '시급성'에 대해서는 시민 다수의 의견과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기준에서 동일하지만, '수용성'에 대해서는 시민 소수의 의견에 해당함을 설명한다. ④ 더 나아가 [그림 1]은 평균적인 시민이 '시급성'에 대해서는 한 개의 평균을 중심으로, 즉 중립적인 의견으로 집중되어 있고 '수용성'에 대해서는 두 개의 평균을 중심으로, 즉 2개의 대비되는 의견을 가진 하위 집단으로 분리될 수 있고 각 집단은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데이터 분포를 활용해 시민 ⓐ의 의견 활용의 타당성을 평가】 ⑤ 시민 ⓐ는 사안에 대해서 사회의 평균적인 경험을 대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산술평균이나 중앙값에 해당하는 시민 ⓐ의 의견을 시민 전체의 의견에 대한 최대 근접치로 사용하는 것은 '시급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나, '수용성'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더 좋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대푯값(즉 평균)과의 일치 여부가 아닌 데이터의 분포 또는 퍼짐의 정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는 답안도 가능하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고, ⑤가 부족하지만 논리성이 충분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하고, ⑤가 부족하지만 논리성이 충분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하고, ⑤가 부족하면서 논리성이 미흡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중 두 개가 부족하고, ⑤가 부족하지만 논리성이 충분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중 두 개가 부족하고, ⑤가 부족하면서 논리성이 미흡한 경우	6등급
	①, ②를 충족하고 ③, ④, ⑤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1.

<가>와 <나> 모두 참값을 알아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평균의 활용을 이야기한다. <가>의 '평균인'은 산술평균을 통해 도출된 평균 측정값에 해당하는 인간이며, 총오류를 최소화한 근접치로 오류 없는 인간의 표상이다. <나>의 '대중의 지혜'는 중앙값을 통해 도출된 사람들의 평균적인 의견이며, 중앙에 위치한 의견이 참값과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결정임을 보여 준다. 이들은 참값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다수의 데이터를 요약한 수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평균인은 산술평균 그리고 대중의 지혜는 중앙값으로 그 수치를 산출하는 방식에서는 차이점을 가진다. (316자)

1-2.

A국 정부는 평균적인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며, 시민 ⓐ를 평균적인 시민으로 보는 것은 평균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문제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평균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보여 주고 싶은 현상에 따라 산술평균과 중앙값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두 개의 정책사안, 즉 '시급성'과 '수용성'에 대한 시민 전체의 평균적인 의견에 대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다>는 특히 데이터 분포 형태에 따라 평균값과 중앙값의 일치 여부가 달라지며, 이는 대푯값으로서의 평균이 때로는 중심적인 경향을 보여 주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시민 ⓐ의 응답은 두 개 사안 모두에 대해서 시민 전체 의견의 평균값과 중앙값과 일치하여, 그 의견을반영하려는 정부의 결정은 오차를 최소화하는 타당한 결정이면서 민주적인 결정일 수 있다. 하지만, 시급성에 대해서 시민 ⓐ는 산술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의 모든 평균을 기준으로 시민 전체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지만, 수용성에 대해서는 최빈값에서 시민 전체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수용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이봉으로 분포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민 ⓐ를 이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균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24자)

2-2. 문항카드 ② <인문계열 1회차 2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회차) / 문항 (2-1, 2-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소비, 욕망, 경쟁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2

〈가〉

'명품'하면 무엇이 떠오르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70%는 고급스런 이미지를, 19%는 브랜드의 전통을 떠올린다. 무조건 값비싼 제품이라고 해서 명품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명품을 고급스럽고 비싼 제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 추산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1인당 명품 소비액은 325달러로 미국의 280달러를 넘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올해 한국인 전체의 명품 소비액은 전년보다 24% 늘어난 16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치 문화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명품 매장은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이고 특급 호텔은 SNS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 '호캉스'를 하는 투숙객으로 붐빈다. 몇 년씩 적금을 부어 고급 브랜드 시계나 보석을 사는 행태는 이미 일반화됐다. 명품을 소비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소비는 더욱 부추겨진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무슨 문제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사치와 허영이 개인을 넘어 한 사회의 문화가 된 것은 경계해야 할 현상이다. 최근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22%만이 '명품을 과시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이 명품을 통한 과시를 긍정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부의 과시가 용인되는 것은 '돈 많은 게 최고'라는 가치관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재력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는 사회에서 명품 소비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 된다. 이에 대해 외신은 "한국이 글로벌 명품 시장에서 '별'처럼 빛난다."면서, "한국에서는 명품 아이템이 곧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 같다."라고 꼬집고 있다.

한국 상황이 심각한 것은 단순히 부자들만이 아니라 서민들까지 명품 구매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욕망의 충족이라는 점에 있어 평등해진 사회임을 의미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임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그나마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명품을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명품을 과시한다면 결국 남들과의 차이는 다시 소멸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세상의 가치가 돈으로 귀결되는 사회에서 삶은 명품 소비와 함께 역설적이게도 더욱 궁핍해진다.

〈나〉

보통 사람들은 욕망을 어떤 대상에 대한 어느 한 주체의 관계로 기술한다. 그리고 욕망의 근원을 욕망 주체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결코 자연 발생적이지 않다. 욕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한 대상을 욕망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나의 내부에서 생겨난 감정이 아니라 나의 외부에서 그 누군가로부터 빌려온 감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라르는 욕망을 '매개자'라고 하는 제3자

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상과의 관계로 정의한다. 이러한 관계는 욕망의 모방적 속성을 나타내는데, 돈키호테가 광기 어린 행동을 하는 것은 그가 전설의 기사인 아마디스를 은연중에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닮고자 하는 욕망,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싶은 욕망, 다시 말해 모방 욕망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지라르는 모방 욕망의 기본적 속성이 형이상학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이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델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것이 그것이다. 욕망의 이러한 속성은 흔히 실제적인 사용 가치가 없는 대상을 욕망하는 현상, 게다가 없는 가치를 부여하면서까지 그 대상을 욕망하는 현상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 명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것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소유를 통해 존재의 가치가 상승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특히 모방 욕망의 형이상학적 속성에서 주체와 매개자 사이의 거리는 욕망의 강도를 결정짓는 요소이면서, 이 욕망이 개인들 사이의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주체가 모델을 자신과는 다른 우월자로 공공연히 인정하고 애초부터 경쟁자로 생각지 않을 경우, 주체의 욕망은 강렬하지 않을뿐더러 사회적 갈등도 격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체가 매개자와의 차이를 부정하고 스스로 그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모델은 같은 대상을 욕망하는 경쟁자가 되며 이 경쟁은 집단 전체를 위협하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모델에 대한 적대감이 확인되는 순간 주체의 욕망은 배가되지만, 그 주체 역시 모델의 적대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욕망하는 개인 간의 관계가 평등한 집단일수록 왜 갈등과 폭력이 커지는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

〈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다. 욕망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연을 정복하고 문명을 이루면서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욕망은 욕구와 구분된다. 욕구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생물학적이고 본능적 필요에 대한 바람이며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라면, 욕망은 타자와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과 평가를 받는 것이 욕망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타 쉐프가 운영하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할 때 그 스테이크 자체를 좋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는다는 것을 남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욕망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타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욕망을 마음껏 표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억압하거나 변형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욕망은 항상 제한되고 억압된다. 억압된 욕망은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을 다르게 만든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남을 많이 의식한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나의 직업이나 외양이 어떻게 판단될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을 그렇게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정말 외부의 다른 사람일까? 라캉에 따르면, 타자란 물리적으로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타자란 나와는 다른 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자기 안에서 자기로 환원시킬 수 없는 '낯선 것'을 말한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것이며, 나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타자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욕망의 중심에는 항상 나르시시즘이 놓인다. 라캉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실은 우리 자신의 자아"라고 말하듯이, 이 나르시시즘 때문에 욕망은 자기실현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한 사람의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지난 과거를 살펴보아야 한다. 어려서 물질적 궁핍함 속에서 자란 사람이 유독 과시 소비에 몰입한다거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이 더욱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내면의 타자가 클수록 욕망은 강렬해진다. 그리고 그 욕망이 강렬해질수록 자아는 소외된다. 욕망이 자기 존재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끊임없이 과시 소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아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2-1. **<가>에서 서술된 '명품' 소비 현상을 <나>의 관점에서 해석하시오. (300±30자)**

2-2. **<나>와 <다>가 각각 말하는 '욕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일차적으로 수험생의 독해 능력을 묻는다. 이 능력은 제시된 예문을 문제가 요구하는 관점에 따라 요약하고 비교하는 것을 통해 평가한다. 특히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데, 이 물음은 각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통해 평가한다.

문항 2-1은 하나의 내용을 다른 내용을 통해 해석하라고 함으로써 요약된 내용을 유추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문항 2-2는 서술된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음으로써 요약하는 능력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다.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본 문항은 수험생이 두 내용 간에 함축된 공통 기준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도덕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1	[12윤사03-07] 현대의 실존주의, 실용주의가 주장하는 윤리적 입장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도덕적 삶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나>
성취기준 2	[12윤사03-03]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쾌락의 추구와 금욕의 삶을 강조하는 윤리적 입장을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과 한계를 토론할 수 있다.	제시문 <다>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12생윤05-02]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으며 윤리적 소비 실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가>

3.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 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나>, <다>
성취기준 2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제시문 <가>

4.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제시문 <가>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매일경제			2023.8.6		제시문 <가>	○
르네 지라르	김모세	살림	2008	52-54	제시문 <나>	
자료	이광모				제시문 <다>	

5. 문항 해설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김모세, 《르네 지라르》, 살림, 2008, 52~54쪽.

제시문 <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명품 소비 현상을 서술한다. 명품 소비 현상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부추겨진다. 그 결과 부자들만이 아니라 서민들까지 소비 대열에 합류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누구든 돈만 있으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을 이루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사회임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서로 과시 소비를 통해 보여 주려고 하는 만큼 삶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시문 <나>: 매일경제, 2023.08.06

제시문 <나>는 욕망이란 기본적으로 욕망하는 주체의 내부에서 생겨난 감정이 아니라 외부에서 빌려온 감정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욕망이란 항상 타인의 욕망에 대한 모방 욕망이라는 것이다. 욕망하는 주체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이유 때문이다. 이때 핵심은

모방하는 주체와 모델 사이의 거리이다. 둘 사이에 차이가 없어질 때, 주체와 모델은 같은 대상을 놓고 경쟁 관계에 들어서게 되며, 그 경쟁 관계는 집단 전체를 위협하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제시문 <다>: 이광모, 2024

제시문 <다>도 욕망이란 욕구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욕망의 근원이 타인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타인이란 주체가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으로 환원할 수 없는 낯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욕망의 근원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신의 내면에 놓이게 되며, 그런 한 욕망은 자기애적 나르시시즘에 근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욕망은 이런 까닭에 자기 존재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며, 욕망하는 이유는 자아를 실현하는데 놓인다. 이때 내면의 무의식적 자아와 의식적 자아 간의 간격이 커질수록 욕망은 격렬해지며 자아는 소외된다.

■논제의 구성

2-1. <가>에서 서술된 '명품' 소비 현상을 <나>의 관점에서 해석하시오. (300±30자)

문항 1은 제시문 <가>를 요약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요약된 내용을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시문 <가>를 제시문 <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명품 소비 현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따라 하게 된다는 것은 모방 욕망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부자들만이 아니라 서민들까지 소비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은 모방 욕망의 형이상학적 속성, 즉 욕망하는 주체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 사회가 누구든 돈만 있으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한 사회라는 것은 욕망하는 주체와 모델 사이의 거리가 소멸된 사회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넷째,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서로 과시 소비를 통해 보여 주려고 하는 만큼 삶은 더욱 궁핍해질 것이라는 점은 주체와 모델 간의 차이가 소멸된 사회에서는 갈등이 더욱 격화된다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2-2. <나>와 <다>가 각각 말하는 '욕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600±60자)

문항 2는 욕망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두 제시문을 독해하고, 두 욕망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600자로 서술하기를 요구한다.

제시문 <나>는 주체의 욕망이란 자연발생적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빌려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욕망은 항상 사회 속에서 타인을 전제로 한다. 주체가 이렇게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이유는 스스로 모델과 같이 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데 놓인다. 이때 주체와 모델 간의 차이가 소멸될수록 욕망은 격화되고 경쟁은 치열해진다.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가 말하는 욕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공통점]
- 욕망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성립한다.

[차이점]
- 욕망의 근원은 제시문 <나>에 있어서는 타인이지만, 제시문 <다>에서는 욕망하는 주체 자신의 내면이다.
- 제시문 <나>에서는 욕망하는 이유가 뛰어난 모델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데 있다면, 제시문 <다>에서는 내면의 자기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아를 실현하려는 데 있다.
- 제시문 <나>에서는 욕망하는 주체와 모델(타인) 간의 차이가 소멸될수록 욕망의 강도는 강해지고 사회는 경쟁적으로 되는 반면, 제시문<다>에서는 욕망하는 자아와 자신 안의 무의식적 자아(타인) 간의 간격이 커질수록 욕망은 강렬해지고 자기 소외는 심해진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가>가 서술하는 명품 소비 현상을 제시문 <나>에 근거해서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① 명품 소비의 현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따라 하게 된다는 것은 욕망의 모방적 성격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② 부자들만이 아니라 서민들까지 소비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은 모방 욕망의 형이상학적 속성, 즉 주체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욕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③ 우리 사회가 누구든 돈만 있으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한 사회라는 것은 욕망하는 주체와 모델 사이의 거리가 소멸된 사회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④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서로 과시 소비를 통해 보여 주려고 하는 만큼 삶은 더욱 궁핍해질 것이라는 점은 모델과 주체 간의 차이가 소멸된 사회에서는 갈등이 더욱 격화된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고 논리적 연결이 분명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연결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하지만 논리적 연결이 분명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하면서 논리적 연결이 불분명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중 두 개가 부족하지만 논리적 연결이 분명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중 두 개가 부족하면서 논리적 연결이 불분명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중 한 개만 충복하는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나>와 <다>가 말하는 욕망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야 한다.**】** [공통점] ① 욕망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성립한다. [차이점] ① 욕망의 근원은 제시문 <나>에 있어서는 타인이지만 제시문 <다>에서는 욕망하는 주체 자신의 내면이다. ② 제시문 <나>에서는 욕망하는 이유가 뛰어난 모델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데 있다면, 제시문 <다>에서는 내면의 자기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아를 실현하려는 데 있다. ③ 제시문 <나>에서는 욕망하는 주체와 모델(타인) 간의 차이가 소멸될수록 욕망의 강도는 강해지고 사회는 경쟁적으로 되는 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욕망하는 자아와 자신 안의 무의식적 자아(타인) 간의 간격이 커질수록 욕망은 강렬해지고 자기 소외는 심해진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했으나 연결이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	2등급
	①은 충족하였으나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은 충족하고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하며, 연결이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	4등급
	①은 충족하였으나 ②, ③, ④ 중 두 개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하면서, 논리적 연결이 불충분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7. 예시 답안

2-1.

한국의 명품 소비는 SNS를 통해 확산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소비는 더욱 부추겨진다. 이것은 우리의 욕망은 내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빌려온 모방 욕망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때 명품 소비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는 것은 곧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이유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욕망의 형이상학적 속성을 통해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서민까지 명품 소비에 합세함으로써 삶이 더욱 궁핍해진다는 것은 욕망하는 주체와 모델 간의 차이가 소멸될 때 경쟁은 격화되고 사회적 갈등은 심화된다는 주장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324자)

2-2.

제시문 <나>와 <다>는 공통적으로 욕망이란 주체의 내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때 타인이 누구인가인데, 제시문 <나>는 타인이란 주체 밖의 다른 주체라고 말하는 반면, <다>는 내 안에 자기로 환원되지 않는 낯선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욕망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그 욕망의 근원은 다르게 이해된다. 즉 <나>에 있어 욕망의 기원은 주체 밖에 놓이는 반면, <다>는 주체와 내 안의 무의식적 자아 간의 간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차이는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이유 또한 다르게 만든다. <나>에서 그 이유는 욕망하는 주체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방하려는 모델의 존재 가치로 상승시키려는 데 있다면, <다>에서는 욕망이란 자기애적 나르시시즘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욕망하는 주체의 자기 발견에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욕망의 강도 또한 다르게 이해된다. <나>에서는 주체와 타인, 즉 모델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나의 욕망은 그 강도가 약해지고 사회적 갈등은 적어지는 반면, <다>의 욕망은 내 안의 타자와 욕망하는 주체 간의 간격이 커질수록 강해지며, 주체의 소외는 심해지게 된다. (612자)

2-3. 문항카드 ③ <인문계열 2회차 1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회차) / 문항 (1-1, 1-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 사회,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국어
	핵심개념 및 용어	경쟁,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삶의 질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1

〈가〉

"만약 이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결국 세상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체스 게임이겠죠. 와,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제가 그 말들 중 하나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이 될 수만 있다면 졸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여왕이 되는 것이 더 좋기는 하지만요."

이 말을 하고 앨리스는 조금 부끄러워져서 진짜 여왕을 살짝 쳐다보았다. 그러나 여왕은 유쾌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쉽지. 네가 좋다면 하얀 여왕의 졸이 될 수가 있단다. 하얀 여왕의 아기 고양이는 시합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거든. 둘째 칸에서부터 시작하렴. 여덟째 칸에 도착하면 너도 여왕이 될 수가 있단다."

바로 그 순간, 웬일인지 그들은 달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몇 번이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달리기 시작했는지 앨리스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단지 기억나는 것은 그들이 손을 잡고 달리고 있었고, 여왕이 너무나 빨라서 간신히 속도를 맞추기에 바빴다는 것뿐이었다. 그런데도 여왕은 계속해서 "더 빨리! 더 빨리!"라고 소리쳤다. 앨리스는 더 빨리 뛸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말할 틈조차 없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들 주변에 있는 나무며 다른 것들의 위치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어느 것 하나 뒤로 젖히고 앞으로 달려 나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중략)…

이제 그들은 너무나 빨리 달려서 마침내 땅에 발을 대지 않고 공중에 살짝 떠서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앨리스가 완전히 지친 순간, 갑자기 그들은 멈추었다. 앨리스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차고 눈앞이 어지러웠다.

여왕은 앨리스를 나무에 기대어 서게 하고 친절하게 말했다.

"이제 조금 쉬도록 하렴."

앨리스는 깜짝 놀라 당혹해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머나, 우리가 계속 이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건가요? 모든 것이 아까와 똑같은 자리에요!"

"당연하고 말고, 어떨 거라고 생각했지?"

여왕이 물었다.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한참 동안 빨리 달리면 어딘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아직은 조금 숨을 헐떡이며 앨리스가 말했다.

"느림보 나라 같으니! 자, 여기에서는 보다시피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면 계속 달릴 수밖에 없단다. 어딘가 다른 곳에 가고 싶다면, 최소한 두 배는 더 빨리 뛰어야만 해!"

여왕이 말했다.

- 루이스 캐럴, 《거울 나라의 앨리스》

〈나〉

현대인들은 자신에게서 시간이 빠져나가고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느낌을 점점 더 강하게 받는다. 시간은 마치 석유처럼 소비되는, 그래서 점점 더 희소하고 비싸지는 원자재처럼 인식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비하면 역설이다. 이러한 시간 부족의 느낌은 최근 수십 년간 강해졌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멀티태스킹처럼 주어진 시간 동안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려는 사회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유로운 시간은 증가해야 한다.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데 시간이 덜 들게 되므로 시간은 풍부해져야 한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시간이 점점 빠듯해지고 있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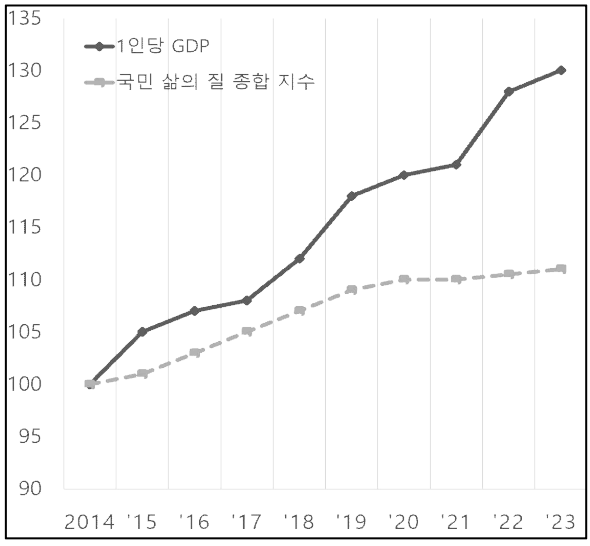
이메일을 한 통 쓰는 것이 종이 편지를 한 통 쓰는 것보다 두 배 정도 빠르다고 해 보자. 1990년에 평일 기준 하루에 편지를 열 통 쓰고 받았고 이를 위해 총 두 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보면, 이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서신 교환에 매일 한 시간만 필요하다. 보내고 받는 메시지 양이 동일하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자유 시간'이 한 시간 생겨나서 다른 일에 쓸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읽고 보내는 메시지가 두 배로 많아진다면 매일 서신 교환에 드는 시간은 이전과 똑같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과거처럼 출생에 의해 미리 결정되지 않고 생애 동안 안정적이지 않으며, 지속적인 경쟁에 의한 협상 과정에 놓여 있다. 그런데 경쟁에서 승패를 결정하고 차별화하는 원칙은 결국 성과다. 그래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한 가속과 시간 절감은 경쟁 우위를 얻게 해 주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에 그칠 뿐이다. 경쟁의 사회적 논리에 따르면, 경쟁하는 사람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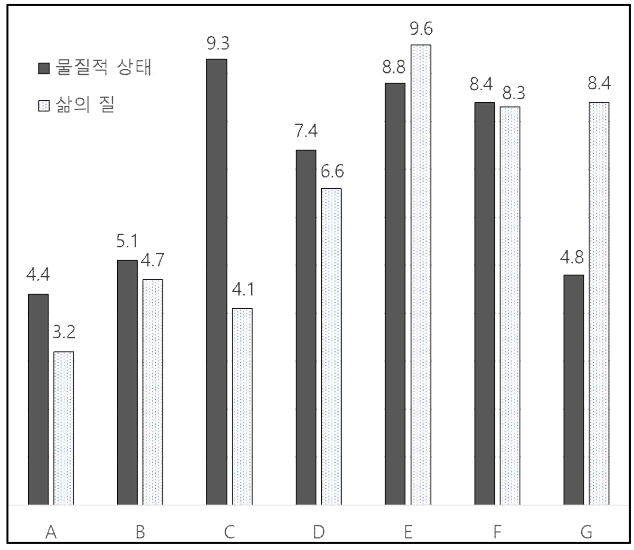
〈다〉

현대의 효율 개념은 19세기 새로운 과학 분야인 열역학의 실험 과정에서 나타났다.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실험하고 있었던 엔지니어는 열의 유량과 엔트로피를 측정하기 위하여 '효율(efficiency)'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효율은 에너지와 노동 및 자본을 최소로 소비하여 최단 시일 내에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산출량을 뜻하게 되었다. 기술유토피아주의자들은 좀 더 효율적인 기계와 효율적인 시간의 이용이 엄청난 물질적 풍요와 자유 시간을 주어 사람들을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하리라 믿었다.

경제적 과정에서 효율이라는 관념을 가장 대중화시킨 사람은 테일러였다. 테일러는 초시계를 이용하여 개별 노동자의 과업을 가장 작은 유형의 확인 가능한 작업 요소로 나누고 그 각각을 측정했다. 이는 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노동자 직무의 개별 구성 요소에서 소요된 평균 시간과 최적 시간을 계산한 테일러는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소한 성과마저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가에 관해 권고할 수 있었다. 효율의 열풍은 세상을 휩쓸었다. 많은 이가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면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양은 줄어들고 더 많은 부와 자유 시간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효율 사회는 전국의 사무실과 공장, 학교와 시민 단체에서 확립되었다.



[그림 1] A국 1인당 GDP 및 국민 삶의 질 추이
(2014년을 100으로 보고 산출)



[그림 2] 2023년 7개국의 물질적 상태와 삶의 질 비교
(물질적 상태와 삶의 질 모두 10점 만점 기준)

1-1. **<가>의 앨리스가 느끼는 당혹스러움을 <나>의 논지를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300±30자)**

1-2. **<다>의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의 한계를 [그림 1], [그림 2],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수험생들이 효율성을 중시하고 경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더 좋은 삶이라는 가치와 연관해서 성찰해 보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의 발전이 삶의 풍요를 가져오리라는 믿음과 경쟁의 사회적 의미와 연계해서 생각해 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루이스 캐럴의 소설《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내용을 일부 발췌해 문제 상황을 구성하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문화의 역사적 기원과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시간 부족을 느끼는 현대인의 역설적인 삶의 현실을 제시문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더 좋은 삶의 지표로 사용되곤 해 왔던 GDP와 삶의 질에 대한 평가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및 사회적 통계와 관련된 데이터 해석 역량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10통사01-02] 사례를 통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의미를 성찰한다.	제시문 <나>
성취기준 2	[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제시문 <다>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1	[12윤사04-05]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제시문 <가>, <나>

3.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12생윤04-01]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여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제시문 <다>

4. 교과명: 국어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 하고 평가한다.	제시문 <가>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거울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현대문학	2011	47~50	제시문 <가>	○
소외와 가속	하르트무트 로자	앨피	2020	27~38	제시문 <나>	○
노동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	민음사	1996	114~115	제시문 <다>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루이스 캐럴, 《거울 나라의 앨리스》, 현대문학, 2011, 47~50쪽.

제시문 <가>는 루이스 캐럴의 소설 중 일부이다. 앨리스는 세상이 체스 게임이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를 상상하며 자신도 게임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자 갑자기 앨리스는 여왕과 함께 달리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앨리스는 숨이 가쁘도록 달렸지만,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을 당혹스러워한다. 그것은 앨리스와 함께 주변도 같이 달렸기 때문이다. 여왕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면 계속 달릴 수밖에 없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면 두 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달리기는 일종의 경쟁을 의미한다. 이 제시문은 사회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뛰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시문 <나>: 하르트무트 로자, 《소외와 가속》, 앨피, 2020, 27~38쪽.

제시문 <나>는 근대 이후 기술 발전과 사람들의 시간 부족 현상의 관계를 분석한다. 기술 발전은 노동 효율성이 높인다. 그에 따라 사람들은 자유 시간도 늘어나리라 기대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시간 부족을 느낄 뿐이다. 제시문에 따르면 이 역설적인 현상은 사회적 경쟁 때문에 일어난다. 근대 이후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되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경쟁에서 최소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쉼 없이, 그리고 더 많이 일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왜 시간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지를 설명한다.

제시문 <다>: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민음사, 1996, 114~115쪽.

제시문 <다>는 효율 개념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산했는지를 말한다. 본래 열역학에서 사용된 개념인 효율은 최소 시간에 최소 자원으로 최대 산출을 이루어 내는 상황을 뜻하게 되었다. 기술유토피아주의자들은 효율적인 기계와 효율적인 시간 이용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 많은 시간을 줌으로써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하리라고 믿었다. 이러한 효율 개념은 테일러를 통해 널리 확산했는데, 그는 노동자의 작업 과정과 요소를 분석하고 측정하여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 효율성의 이념은 열풍이라고 불릴 만큼 사회 전반에 확산했고, 효율 사회라는 사회적 이념을 확립하였다.

■ **논제의 구성**

1-1. <가>의 앨리스가 느끼는 당혹스러움을 <나>의 논지를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300±30자)

논제가 요구하는 것은 앨리스가 느끼는 당혹스러움의 의미를 <나>의 논지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 앨리스의 당혹스러움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 그것이 제시문 <나>에서 등장한 시간 부족에 관한 역설적 현상과 유사하다는 것을 밝힌 뒤,
- 제시문 <나>의 논지가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사회적 경쟁이 심화하면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밝혀
- 앨리스의 당혹스러움이 사회적 경쟁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1-2. <다>의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의 한계를 [그림 1], [그림 2],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600±60자)

[그림 1]은 A국의 1인당 GDP와 삶의 질 지수의 변화추이를 보여 주는 그래프이고, [그림 2]는 A국 포함한 여러 나라의 물질적 상태와 삶의 질을 비교한 자료이다.

논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의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과 그 한계를 제시문 <나>와 두 그림 자료를 활용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 먼저 <다>의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이 어떤 한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제시문 <나>를 활용해 밝힌 뒤,
- [그림 1]과 [그림 2]의 의미를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은 기술유토피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효율적인 기계와 효율적인 시간 이용을 통해 우리의 삶을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고 더 많은 자유 시간을 갖는, 더 좋은 사회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이다.
- 제시문 <나>가 보여 주듯 효율적인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 시간을 주지는 못했다. 이는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이러한 한계는 [그림 1]이 보여 주듯 A국가의 1인당 GDP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해서 삶의 질도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그림 2]의 국가 간 비교는 물질적 상태와 삶의 질 사이에 뚜렷한 비례적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 준다.
-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까닭은 제시문 <나>가 보여 주듯 사회적 경쟁이 심화하면, 더 효율적인 사회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이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앨리스가 느낀 당혹스러움을 설명】 ① 앨리스의 당혹스러움은 빠르게 달렸음에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 때문이다. 【제시문 <나>의 논지】 ② <나>의 논지에 따르면 효율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에 여유가 생기리라는 기대와 달리 현실에서 시간 부족을 느끼는 역설적 현상은 사회적 경쟁 때문이다. 【제시문 <나>의 논지를 통해 앨리스의 당혹스러움 설명】 ③ <나>에 따르면 경쟁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 만약 다른 경쟁자도 나와 똑같은 성과를 낸다면, 나는 제자리에 머무는 셈이다. 내가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한다. ④ 앨리스가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 상황은 이러한 경쟁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고 글의 논리적 완성도와 문장의 완성도가 높은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논리적 완성도나 문장의 완성도 중 하나가 미흡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글의 완성도가 미흡한 경우	3등급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①, ④가 미흡한 경우	4등급
	①, ③, ④를 충족하고, ②가 미흡한 경우(<나>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5등급
	①, ④를 충족하고, ②와 ③이 미흡한 경우	6등급
	②를 충족하고 ①, ③, ④가 모두 미흡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가 모두 미흡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의 내용과 그 한계를 <나>를 활용하여 밝히기】 ①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은 (기술유토피아주의자들의 관점처럼) 사회적 효율성이 높아지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더 많은 자유 시간이 주어져 사람들을 더 좋은 삶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다. ② 그러나 <나>가 보여 주듯 더 효율적인 기술이 개발되어도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다고 확언할 수 없다. 이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한 사회적 경쟁 상태에서는 기술의 발전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는 계속, 더 많이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자료에 대한 해석】 ③ [그림 1]은 삶의 질 종합지수가 1인당 GDP의 성장만큼 비례해서 커지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도리어 그 간극은 벌어지고 있다. 이는 물질적 풍요를 곧바로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라는 해석은 잘못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④ 실제로 [그림 2]의 국가 간 비교 자료는 물질적 상태와 삶의 질 사이에 비례적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 준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삶의 질은 그만큼 이르지 못하거나 거꾸로 물질적 상태는 풍요롭지 않아도 삶의 질이 높은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의 논지와 그림 자료에 대한 해석을 연결하여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의 한계 설명하기】 ⑤ [그림 1], [그림 2], <나>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 도달한 효율 사회가 곧바로 더 좋은 삶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비록 효율성의 증가가 우리의 삶을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해 줄 수는 있으나 과도한 경쟁은 우리를 더 지치게 하고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삶으로 이끌 수도 있다.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은 이런 점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제한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고 글의 논리적 완성도와 문장의 완성도가 높은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고 논리적 완성도나 문장의 완성도 중 하나가 미흡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글의 완성도가 미흡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⑤가 미흡한 경우	4등급
	①, ②, ⑤를 충족하였으나 ③, ④가 미흡한 경우(그림 자료 해석이 미흡한 경우)	5등급
	③,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①, ②가 미흡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세 항목 이상이 부족하고 글의 완성도가 미흡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미흡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7. 예시 답안

1-1.

앨리스는 자신도 세상이라는 체스 게임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한다. 게임은 곧 경쟁을 뜻하며, 달리기는 그런 경쟁에 대한 비유다. 하지만 앨리스는 아무리 달려도 결국은 제자리에 있음을 알고 당혹해 한다. <나>의 논지에 따르면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시간 부족을 느끼는 까닭은 경쟁 때문이다. 경쟁에 노출된 사람들은 앨리스처럼 힘껏 달려야 겨우 제자리를 지킬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다. 앨리스의 당혹스러움은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도 함께 달리는 경쟁의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비유라 할 수 있다. (311자)

1-2.

효율은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최소로 하고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기술유토피아주의자들은 효율적인 기계의 사용과 효율적인 시간의 이용이 인류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약속한다고 믿었다. 효율 사회는 그런 믿음의 상징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믿음과는 달랐다.

[그림 1]은 2014년을 기점으로 A국의 1인당 실질 GDP 성장 지수와 국민 삶의 질 지수 사이의 관계를 보여 준다. GDP는 사회의 효율성과 물질적 상태를 보여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 지표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GDP의 성장만큼 삶의 질이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역시 C국과 G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물질적 상태와 삶의 질 사이의 비례적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효율 사회가 더 좋은 삶을 가져다주리라는 믿음이 현실과 충돌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현실을 경쟁의 사회적 의미로 설명한다. 오늘날 우리는 지속적인 경쟁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수밖에 없으며, 끝없이 일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효율적인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 부족에 시달리며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이유이다. (643자)

2-4. 문항카드 ④ <인문계열 2회차 2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회차) / 문항 (2-1, 2-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감성, 취향, 예술, 계급, 교육
예상 소요 시간	50 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2

〈가〉

나는 도시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나와 다른 배경을 지닌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열서너 살 무렵, 나는 같은 반 친구 한 명과 깊은 우정을 나눴다. 그는 당시 우리 도시에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에서 근무하던 교수의 아들이었다. 어느 날엔가 음악 선생이 우리에게 연주곡을 들려주고는 무슨 곡인지 맞혀 보라고 말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손을 번쩍 들고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무소르그스키의 〈민둥산에서의 하룻밤〉이요!" 나는 이 광경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나에게 그 수업은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내 가족들에게 이런 부류의 음악은 참을 수 없었고 조롱거리일 뿐이었다. 우리 집에서는 이런 걸 "잘난 척하는 음악"이라고 불렀다. 어쩌다가 그런 음악이 나오는 방송이 라디오에 잡히면 우리 가족은 서둘러 끄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미사에 온 것은 아니잖아."

파리에서 공부 중인 형과 누나가 있었던 그는 작가나 영화감독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습득한 것이었다. 그는 내게 고다르의 영화나 베케트의 연극에 관해 이야기했고, 나는 나 자신이 매우 무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내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 특히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싶다는 갈망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나를 매료시켰고, 나는 그를 닮고자 열망했다. 그리고 나 역시 고다르와 베케트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다. 고다르 영화나 베케트 연극을 본 적도 없는데 말이다. 나는 속임수 쓰는 법을 배웠다.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 지식을 내 것인 양 주장했다. 진실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전력을 다해 나 자신에게 만들어 주고자 한 외양과 이미지뿐이었다.

그는 잭 케루악*을 숭배했고, 기타 연주를 즐겼으며, 히피 문화에 동질감을 느꼈다. 문화는 줄곧 그의 세계였다. 그와 달리 나는 68년 5월 혁명**과 정치적 저항의 영향을 받았다. 나는 학교 문화와 그것이 요구하는 훈육에 저항했다. 나는 소란스러웠고, 순종적이지 않았다. 자칫했다간,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나를 학교 교육을 완전히 거부하는 방향으로 떠내려가도록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열등한 나 자신을 마주해야 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잔인했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는 자신이 교분을 나누는 사람에게, 마치 그 역시 예전부터 자신과 동일한 실존적·문화적 경험을 해 왔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그렇게 전제함으로써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우정도 역사라는 중력을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공존을 시도하는 두 개의 체화된 사회적 역사였다.

---

* 잭 케루악(1922~1969):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

** 68년 5월 혁명: 1968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저항운동이자 총파업 투쟁.

〈나〉

사람들은 누구나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능력을 지닌다고 여긴다. 즉 나이와 신분을 떠나서 똑같이 미적 쾌락을 느끼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공통감각'이다. 공통감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의 법칙처럼 인간 안에 본래 존재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르디외는 이에 반대한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림이나 자연 풍광을 보면서 느끼는 감성은 계급적으로 차이가 난다. 계급적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미적 취향이 학교나 가정에서 익힌 훈련에 따라서 다르게 길들여진다는 점을 가리킨다. 나아가 이러한 미적 취향이 사회적으로 '옳음/그름'의 형식으로 작용하도록 강제력을 띤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르디외는 미학과 윤리를 분리하지 않는다. 미술 작품이나 음악에 대한 취향은 현실 세계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성향'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예술에 대한 순수주의를 강조하는 미적 성향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즐기고 있는 부르주아적 계급 기반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이것은 안락한 삶을 지향하는 윤리적 성향과 깊숙이 맞물려 있다. 예술과 윤리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미적 취향이 사회적 주체들을 계급적으로 구분하며 이것이 다시 '고급 취향/대중 취향'과 같은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미적-윤리적 관계가 '지배자/피지배자'의 역학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름다운 것/추한 것', '탁월한 것/천박한 것'의 구별은 사회적 구도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각 주체는 객관적 분류 체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게 되고, 그 자리에서 '높음/낮음'의 형식으로 지배 관계가 형성된다.

문화 활동이 권력 형식으로 전이되는 이러한 과정에는 교육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예술 작품을 보고 첫눈에 반하거나 순식간에 희열을 느낄 수는 없다. 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할 때는 감정적 융합, 인지 행위, 해독 작업을 거치기 마련이다. 즉 작품의 내재적 논리에 익숙해져야 한다. 명시적이건 암묵적이건 사물을 지각하고 음미하는 도식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해독 능력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다. 이러한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이다. 예술 작품에 대한 안목은 바로 교육의 산물이다. 교육 수준의 정도가 예술에 대한 '고급 취향/대중 취향'을 구별하는 계기가 되며, 거꾸로 예술에 대한 취향이 계급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취향은 그림이나 음악과 같은 대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음식에 대한 기호, 가구 취향, 패션 감각 등도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의 실천이 사실은 취향의 논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일상의 문화가 사람들의 쾌락과 감성을 지배하는 것이다. 감성의 형성은 사회적 분류 체계로 작동함으로써 사회적 지배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저항 의식을 억압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다〉

예술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주요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매튜 아놀드는 순수예술을 인류의 주요한 정신적 성취로 파악했으며 이를 통해 '무정부 상태의 대중'을 '천박한 본성'에서 구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역사적으로 예술 교육은 특정 기예를 특정 전문가 집단에게 숙련시키는 예술가 교육 이상이었다. 예술 교육은 공동체적 삶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신적 모델을 제시하여 대중들을 계도하는 '시민 교육'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세기 보스턴의 엘리트들은 새로 유입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비영리 예술 단체를 설립하여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을 구별하고 전자의 우월성을 제도화시켜 나갔다. 이때 고급 예술의 대중 문화에 대한 상징적 우위는 전자가 후자의 문제를 교정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정명(定命)을 포함했다.

역사적으로 예술을 통한 시민 교육 기획의 근저에는 예술을 문화의 정수로 파악하는 엘리트적 인식이 깔려 있다. 엘리트가 선도하는 예술 교육 정책은, 고급 예술을 일반 대중에게 보급한다는 '문화 민주화' 정책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전후 서구의 복지국가 체제하에서 진행된 문화 민주화 정책은 아놀드의 예술교육론에 그 뿌리를 두었다. 문화 민주화 정책은 예술을 통해 대중의 저급 문화를 교화하고자 했으며 도시 공동체에서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는 노동자와 이민자들을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계도하고자 했다. 그런데 좋은 취향으로 나쁜 취향을 대체하려는 이 같은 시도는 엘리트적 유산에 속한 문화가 다른 모든 것들에 우선한다는 견해를 드러내었고, 문화와 창의성이 일부 전문적인 예술가들에게만 속한다는 생각을 강화하였다.

2-1. **<가>에 나타난 '나'의 경험을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2-2. **<다>에 제시된 '문화 민주화' 정책의 이념과 특징을 요약하고, 이에 대해 <나>를 바탕으로 비판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미학과 취향이 윤리적·정치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는 제시문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문 <가>의 '나'가 도시의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경험한 문화 충격을 분석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지 보고자 했다. 또 <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서 제시된, 우수한 예술과 좋은 취향을 대중에게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저급한 문화를 교화하고 계도한다는 '문화 민주화'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묻고자 했다.

2-1번 문항은 <가>의 화자의 경험을 <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문제다. 이 문항은 <가>에 나타난 '나'의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이 단지 개인적 차원이 아닌, 계급적 차이에 기반한 사회·문화적 차원의 문제임을 파악할 수 있는지 보고자 했다. 더불어 '나'가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며 느낀 감정 또한, 취향과 감성이 사회적 주체들을 계급적으로 구분하는 작용에 기인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는지 보고자 했다.

2-2번 문항은 <다>에서 기술하고 있는 '문화 민주화'의 정책의 이념과 특징을 요약한 후, 이를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비판하는 문제다. <다>에서 제시된 문화 민주화 정책은 순수예술이 인류의 주요한 정신적 성취라는 전제하에 고급 예술을 일반 대중에게 보급함으로써 대중을 교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 아래 실시된 정책은 엘리트와 대중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엘리트 문화의 문화적 우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 지배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또 문화와 예술이 사실은 전문적 예술가나 엘리트층에게만 속한다는 생각을 강화하였다. 이 문항은 <나>의 관점을 활용하여 <다>의 문화 민주화 정책의 이념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교과명: 국어
<table><tr><th colspan="2">과목명: 문학</th><th>관련</th></tr><tr><td>성취기준 1</td><td>[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td><td>제시문 <가></td></tr></table></td></tr>
</table>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12사문02-0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제시문 <가>, <나>, <다>
성취기준 2	[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제시문 <나>, <다>
성취기준 3	[12사문03-02] 하위문화의 의미를 주류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다양한 하위문화의 특징과 기능을 분석한다.	제시문 <나>

3.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12생윤05-01]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예술과 윤리의 관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나>,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랭스로 되돌아가다	디디에 에리봉 (이상길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21년	191~196	제시문 <가>	○
취향의 정치학	홍성민	현암사	2012년	40~42	제시문 <나>	○
예술교육의 정치: 시민성 개념을 중심으로	심보선	문화와 사회	2020년	16~19, 28	제시문 <다>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디디에 에리봉,『랭스로 되돌아가다』(문학과지성사, 2021)

이 글은 '나'가 도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만난 친구에게서 받았던 문화 충격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성장 과정 내내 자연스럽게 엘리트 문화를 경험해 온 친구는 음악, 연극, 영화 및 문학 등에서 '나'와는 다른 식견과 감상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그와 닮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지만, 그럴수록 스스로가 무지하고 열등하다고 느끼게 될 뿐이었다. '나'는 이 간극이 쉽게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서로 다른 계급적 기반과 문화적 경험을 지닌 친구와 '나' 사이의 차이를 '두 개의 체화된 사회적 역사'라고 설명한다.

제시문 <나> : 홍성민,『취향의 정치학』(현암사, 2012)

이 글은 우리의 미적 취향이나 예술적 감성이, 우리 안에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닌, 계급적 배경과 관련된 것이자 훈련을 통해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미학과 윤리는 분리되지 않는데, 이는 취향과 감성이 사람들을 계급적으로 구분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급 취향과 저급 취향', '탁월한 것과 천박한 것'과 같이 취향과 감성을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나누는 것은, '옳음과 그름', '높음과 낮음'의 형식으로 전이되면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성의 형성은 사회적 지배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저항 의식을 억압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제시문 <다> : 심보선,「예술교육의 정치: 시민성 개념을 중심으로」(『문화와 사회』28권 3호, 2020)

이 글은 우수한 예술을 대중들에게 보급함으로써 대중을 일깨우고자 했던 '문화 민주화'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문화 민주화 정책은, 순수예술을 인류의 정신적 성취로 여기고 이를 통해 천박한 본성의 대중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 아놀드의 예술교육론에 뿌리를 둔다. 문화 민주화 정책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들에게 고급 예술을 가르치고 그들의 저급한 취향을 좋은 취향으로 대체함으로써 대중을 교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고급 문화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는 엘리트 중심주의를 공고히 하였고, 문화와 창의성이 일부 탁월한 예술가들에게만 속한다는 생각을 강화하였다.

■ 논제의 구성

2.1 <가>에 나타난 '나'의 경험을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2-1번 문항은 제시문 <가>에 나타난 '나'의 경험을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문제다. 이 문항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나'의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이 단지 개인적 차원의 경험만이 아니며, '나'와 친구의 계급적 차이에 기반한 사회·문화적 문제임을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나'가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며 느낀 부러움, 열등감 등의 감정 또한, 취향과 감성이 사회적 주체들을 계급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좋은 취향/나쁜 취향' '탁월한 것/천박한 것' '아름다운 것/추한 것'이 '높음/낮음'의 권력 형식으로 전이되는 작용에서 기인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2 <다>에 제시된 '문화 민주화' 정책의 이념과 특징을 요약하고, 이에 대해 <나>를 바탕으로 비판하시오. (600±60자)

2-2번 문항은 제시문 <다>에서 기술하고 있는 '문화 민주화' 정책의 이념과 특징을 요약한 후, 이를 제시문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비판하는 문제다. 이 문항의 답안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문화 민주화 정책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에서 제시된 문화 민주화 정책은, 순수예술을 인류의 주요한 정신적 성취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고급 예술을 일반 대중에게 보급하면 공동체적 삶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정신적 모델을 대중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믿음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 아래 문화 민주화 정책은 좋은 취향을 길러 낼 수 있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을 교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민주화 정책은 '엘리트와 대중', '순수예술의 탁월성과 대중문화의 저급성',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 등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감성을 배치하고, 그러한 구도 아래 엘리트 문화의 문화적 우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 지배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또 문화와 예술이 사실은 전문적 예술가나 엘리트층에만 속한다는 생각을 강화함으로써 대중은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는 능동적 주체가 아닌, 고급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교화의 대상, 피동적 존재라는 생각을 강화하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2-1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논제에 대한 파악】 ① 제시문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가>를 분석적으로 읽어야 한다. <가> 제시문을 단순히 요약하거나 <가>와 <나>를 각각 요약하는 것은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제시문 <가>의 상황 파악】 ② <가>의 '나'는 도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자신과 계급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친구를 만나 문화 충격을 받는다. 성장 과정 내내 엘리트 문화를 경험해 온 친구는 음악, 연극, 영화 및 문학 등에서 '나'와는 다른 식견과 감상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제시문 <나>의 논지 파악】 ③ 미적 취향과 예술적 감성의 형성은 계급적 배경과 관련되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훈련을 통해 길들여지는 것이다. 【제시문 <나>의 논지를 통해 <가>를 설명】 ④ '나'와 친구 사이의 예술적 식견의 차이는 서로 다른 계급 기반에서 교육받고 성장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⑤ '나'가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며 느낀 부러움, 열등감 등의 감정은 취향과 감성이 사회적 주체들을 계급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좋은 취향/나쁜 취향', '탁월한 것/천박한 것', '아름다운 것/추한 것'이 '높음/낮음'의 권력 형식으로 전이되는 작용에서 기인한 것이다. 【기타 가능한 서술】 ⑤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하는 경우에도 평가할 수 있다. ⑤ '나'는 친구와의 자신 사이의 미적 감성의 간극이 쉽게 해소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으며, 서로 다른 계급적 기반을 지닌 둘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두 개의 체화된 사회적 역사'라고 명명한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논리성이 불충분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⑤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④, ⑤가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④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혹은 ①, ③을 충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2-2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논제에 대한 파악】 ① 제시문 <다>의 '문화 민주화'의 정책의 이념과 특징을 먼저 요약한 후, 이를 제시문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비판하여야 한다. 요약이 없거나 요약한 것에 대한 비판적 서술이 없는 경우는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제시문 <다>에 제시된 '문화 민주화' 정책의 이념과 특징 요약】 ② 문화 민주화 정책은, 순수예술은 인류의 주요한 정신적 성취라는 전제 하에 이러한 예술을 일반 대중에게 교육한다면 대중의 저급한 취향을 계도하고 공동체적 삶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신적 모델을 가르칠 수 있다는 믿음을 이념으로 한다. ③ 이러한 이념 아래 문화 민주화 정책은 좋은 취향을 길러낼 수 있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의 저급한 문화를 교화하고 노동자와 이민자를 계도하고자 한다.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다>를 비판】 ④ 문화 민주화 정책은 '순수예술의 탁월성과 대중문화의 저급성',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전제로 하며 전자를 상징적 우위에 놓는다. 이를 통해 엘리트 문화의 수월성이 윤리적으로 옳고 권력적 우위에 놓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 지배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저항 의식을 억압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⑤ 문화 민주화 정책의 바탕에는 문화와 예술의 정수는 순수예술과 고급 예술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감성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대중적 취향이나 대중 예술은 평가 절하되며 대중의 창조적 역량 역시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예술교육에서 대중을 능동적 주체로 여기기보다 교화의 대상, 피동적 존재로 여긴다는 점에서도 비판할 수 있다. 【기타 가능한 서술】 ⑤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하는 경우에도 평가할 수 있다. ⑤ 문화 민주화 정책은 엘리트적 예술과 엘리트층의 문화만이 우수한 것이고 대중의 문화나 대중예술은 가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강화한다. 겉으로는 문화를 민주화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문화와 예술의 엘리트 중심주의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논리성이 불충분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⑤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④, ⑤가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④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혹은 ①, ③을 충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7. 예시 답안

2-1.

<가>에서 '나'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에게서 받았던 문화 충격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예술에 대하여 자신과는 다른 안목과 식견을 지닌 친구를 보며 '나'는 그와 닮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낄 뿐이다. <나>에 근거하면 '나'와 친구 사이의 간극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형성된 미적 감성의 계급적 차이다. 또 '나'의 열등감은 '좋은 취향/나쁜 취향'이라는 미적 감성이 '높음/낮음'의 권력 형식으로 전이되는 작용에 기인한 것이다. 계급적 차이가 쉽게 해소될 수 없음을 느끼며 '나'는 이를 '두 개의 체화된 역사'라고 명명한다. (320자)

2-2.

<다>에 제시된 문화 민주화 정책은, 순수예술이 인류의 주요한 정신적 성취라는 전제 아래 예술교육을 통해 공동체적 삶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신적 모델을 대중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믿음을 이념적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이념 아래 문화 민주화 정책은 좋은 취향을 길러낼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통해 대중의 저급한 문화를 교화하고 도시의 노동자와 이민자를 계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나>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 민주화 정책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다. 첫째, 문화 민주화 정책은 '엘리트와 대중',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만들고, 이러한 구도 아래 전자가 윤리적으로 옳고 권력적 우위에 놓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제도화하였다. 결국 이를 통해 사회적 지배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저항 의식을 억압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비판할 수 있다. 둘째, 문화 민주화 정책의 바탕에는 문화와 예술의 정수가 순수예술과 고급 예술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계급적 역학 관계에 따른 취향의 사회적 구도에서 대중적 취향이나 대중 예술은 저급한 것이며 대중의 창조적 역량 역시 평가 절하된다. 문화 민주화 정책은 대중을 능동적 주체로 여기기보다 교화의 대상, 피동적 존재로 여긴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651자)

2-5. 문항카드 ⑤ <자연계열(약학부 제외) 1, 2, 3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약학부 제외) / 1-1, 1-2, 2-1, 2-2, 3-1, 3-2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핵심개념 및 용어	최대, 최소, 극한, 적분, 함수의 연속, 사잇값 정리
예상 소요 시간	9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가>

이차방정식 $ax^2+bx+c=0$의 두 근을 α, β라고 하면,

$$\alpha+\beta=-\frac{b}{a},\ \alpha\beta=\frac{c}{a}$$

<나>

다항식의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식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

$$a^2+b^2=(a+b)^2-2ab,$$
$$a^3+b^3=(a+b)^3-3ab(a+b)$$

<다>

함수 $y=f(x)$가 닫힌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최대·최소 정리에 따라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최댓값과 최솟값을 가진다. 이때 이 구간에서 $f(x)$의 극댓값, 극솟값, $f(a)$, $f(b)$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댓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솟값이 된다.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1-1. 이차방정식 $x^2+(\ln k)x-(\ln k+2)=0$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α, β라고 할 때, 두 실근 α, β의 차가 최소가 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1-2. 삼차함수 $f(x)=(x^2-1)(x+3k)$의 극댓값과 극솟값의 합이 최대가 되는 실수 k의 값과 그때 극댓값과 극솟값의 합을 구하시오. (단, $-1\le k\le 1$)

<라>

함수 $f(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곡선 $y=f(x)$와 x축 및 두 직선 $x=a$, $x=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A는

$$A=\int_a^b |f(x)|dx$$

<마>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a, b, c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일 때,

$$\int_a^c f(x)dx+\int_c^b f(x)dx=\int_a^b f(x)dx$$

<바>

점 (x_1, y_1)과 직선 $ax+by+c=0$ 사이의 거리 d는

$$d=\frac{|ax_1+by_1+c|}{\sqrt{a^2+b^2}}$$

제시문 <라>, <마>, <바>를 읽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_n에 대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자연수 n에 대하여 $a_1=1$이고 $a_n<a_{n+1}$이다. 함수 $f(x)=\frac{2x}{e^2-1}e^{x^2}$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a_n$, $x=a_{n+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A_n이 $A_n=e^{2n-1}$이다.

2-1. 함수 $f(x)$의 a_1부터 a_n까지의 정적분을 이용하여 a_n을 구하시오.

2-2. x축, y축에 모두 접하고 중심이 점 (a_n, a_n)인 원이 직선 $y=\left(\tan\frac{1}{n}\right)x$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_n, Q_n이라 하자. 선분 $\mathrm{P}_n\mathrm{Q}_n$의 길이를 l_n이라 할 때 $\lim_{n\to\infty} l_n^2$의 값을 구하시오.

<사>

함수 $f(x)$가 닫힌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 \neq f(b)$이면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k$인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것을 사잇값의 정리라고 한다.

함수 $f(x)$가 닫힌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와 $f(b)$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사잇값의 정리에 의하여 방정식 $f(x)=0$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아>

명제 $p \rightarrow q$가 참이면 그 대우 $\sim q \rightarrow \sim p$도 참이므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에는 그 대우가 참임을 증명해도 된다.

제시문 <사>, <아>를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3-1. 방정식 $x^{2n}+x^{2n-1}+\cdots+x^2+x-1=0$이 열린구간 $(-2,1)$에서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단, n은 자연수)

3-2. 함수 $f(x)$가 닫힌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0$, $f(b)>0$이다. 다음 명제의 대우를 말하고 그것이 참임을 증명하시오.

방정식 $f(x)=0$이 열린구간 (a,b)에서 실근을 갖지 않는다면 열린구간 (a,b)의 모든 x에 대하여 $f(x)>0$이다.

3. 출제 의도

명제, 함수, 방정식, 미분과 적분 등은 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제반 학문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본 문제들은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등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들로부터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문제들을 통해 학생들이 제시문들을 읽고 함수의 최대 최소, 이차방정식, 연속함수의 성질, 정적분, 삼각함수, 수열, 수열의 극한, 방정식의 근 등에 대한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제시문 <가>, <나>, <다>	[10수학01-01]다항식의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 [10수학01-08]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12수학Ⅱ01-04]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 1-1	[10수학01-01]다항식의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 [10수학01-08]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10수학01-11]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 1-2	[10수학01-01]다항식의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 [10수학01-08]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12수학Ⅱ01-04]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2수학Ⅱ02-08]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라>, <마>, <바>	[10수학02-05]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Ⅱ03-03]정적분의 뜻을 안다. [12미적03-05]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문제 2-1	[12수학Ⅰ03-01]수열의 뜻을 안다. [12수학Ⅰ03-03]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12수학Ⅱ03-03]정적분의 뜻을 안다. [12미적03-05]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문제 2-2	[10수학02-05]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Ⅰ02-02]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12미적02-04]삼각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 있다.
제시문 <사>, <아>	[10수학03-05]명제의 역과 대우를 이해한다. [10수학03-07]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을 이해한다. [12수학Ⅱ01-04]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 3-1	[12수학Ⅰ03-03]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12수학Ⅱ01-04]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 3-2	[10수학03-05]명제의 역과 대우를 이해한다. [10수학03-07]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을 이해한다. [12수학Ⅱ01-04]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	고성은	좋은책신사고	2020	11-16, 51-54, 126-128, 190-194
	고등학교 수학I	김원경	비상교육	2020	71-88, 127-133,
	고등학교 수학II	이준열	천재교육	2020	35-40, 83-90, 121-127
	고등학교 미적분	황선욱	미래엔	2020	71-74, 166-167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 <나>, <다>에서는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와 닫힌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댓값, 최솟값에 대해서 소개한다. <문제 1-1>에서는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여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문제 1-2>에서는 극댓값과 극솟값의 합의 최댓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라>, <마>, <바>에서는 정적분의 성질과 정적분을 활용하여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소개한다. <문제 2-1>에서는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 2-2>에서는 삼각함수의 극한을 이용하여 주어진 값의 극한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사>, <아>에서는 사잇값의 정리와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에 대해서 소개한다. <문제 3-1>에서는 사잇값의 정리를 활용하여 주어진 구간에서 방정식이 실근을 가짐을 보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 3-2>에서는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말하고 그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1-2	① <1-1>, <1-2>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한다. ② <1-1>에서 곱셈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1-1>에서 두 실근의 차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다. ④ <1-2>에서 도함수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⑤ <1-2>에서 곱셈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⑥ <1-2>에서 최댓값을 구할 수 있다. 1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논리 전개가 완벽한 경우 2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논리 전개나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3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5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4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③과 ⑥ 요건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요건 중 2가지를 만족시키는 경우 5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4등급 기준 제외) 6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7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8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9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2-1 2-2	① <2-1>에서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 ② <2-1>에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 ③ <2-1>에서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여 a_n을 구할 수 있다. ④ <2-2>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⑤ <2-2>에서 선분의 길이 l_n을 구할 수 있다. ⑥ <2-2>에서 삼각함수의 극한을 이용하여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1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논리 전개가 완벽한 경우 2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논리 전개나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3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5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4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③과 ⑥ 요건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요건 중 2가지를 만족시키는 경우 5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4등급 기준 제외) 6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7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8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9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① <3-1>에서 사잇값의 정리를 정확히 이해한다. ② <3-1>에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 ③ <3-1>에서 사잇값의 정리를 활용하여 두 개의 실근을 가짐을 증명할 수 있다. ④ <3-2>에서 명제의 대우를 바르게 말할 수 있다. ⑤ <3-2>에서 명제의 가정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⑥ <3-2>에서 사잇값의 정리를 활용하여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수 있다.	
3-1 3-2	1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논리 전개가 완벽한 경우 2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논리 전개나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3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5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4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③과 ⑥ 요건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요건 중 2가지를 만족시키는 경우 5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4등급 기준 제외) 6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7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8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9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7. 예시 답안

■ 1-1

주어진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은

$$D=(\ln k)^2+4(\ln k+2)=(\ln k+2)^2+4>0$$

이므로 이차방정식은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또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lpha+\beta=-\ln k,\ \alpha\beta=-(\ln k+2)$$

이다. 따라서 두 근 α,β의 차의 제곱은

$$(\alpha-\beta)^2=(\alpha+\beta)^2-4\alpha\beta=(\ln k)^2+4\ln k+8=(\ln k+2)^2+4$$

이고, $\ln k=-2$, 즉 $k=e^{-2}=\frac{1}{e^2}$일 때, 최소이다.

따라서 두 근의 차가 최소가 되는 실수 k의 값은 $k=e^{-2}=\frac{1}{e^2}$이다.

■ 1-2

도함수 $f'(x)=2x(x+3k)+x^2-1=3x^2+6kx-1$이다.

이차방정식 $f'(x)=0$의 판별식

$$D/4=9k^2+3>0$$

이므로 $f'(x)=0$은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f'(x)=0$의 두 실근을 α, β $(\alpha<\beta)$라고 하면 $f'(x)=0$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lpha+\beta=-2k,\ \alpha\beta=-\frac{1}{3}$$

이다. 따라서

$$\alpha^2+\beta^2=(\alpha+\beta)^2-2\alpha\beta=4k^2+\frac{2}{3},$$

$$\alpha^3+\beta^3=(\alpha+\beta)^3-3\alpha\beta(\alpha+\beta)=-8k^3-2k$$

삼차함수 $f(x)$의 삼차항의 계수가 1로 양수이고 $\alpha<\beta$이므로 $f(\alpha)$는 극댓값, $f(\beta)$ 극솟값이다.

따라서

$$\begin{aligned} f(\alpha)+f(\beta) &= \alpha^3+\beta^3+3k(\alpha^2+\beta^2)-(\alpha+\beta)-6k \\ &= -8k^3-2k+12k^3+2k+2k-6k \\ &= 4k^3-4k \end{aligned}$$

여기서 $g(k)=4k^3-4k$라고 하면, $g'(k)=4(3k^2-1)$이므로 $g'(k)=0$에서 $k=\pm\frac{1}{\sqrt{3}}$이다.

k	-1	$\cdots$	$-\frac{1}{\sqrt{3}}$	$\cdots$	$\frac{1}{\sqrt{3}}$	$\cdots$	1
$g'(k)$		$+$	0	$-$	0	$+$	
$g(k)$	0	$\nearrow$	$\frac{8\sqrt{3}}{9}$	$\searrow$	$-\frac{8\sqrt{3}}{9}$	$\nearrow$	0

따라서 $k=-\frac{1}{\sqrt{3}}=-\frac{\sqrt{3}}{3}$일 때 $f(\alpha)+f(\beta)$를 최대로 하고 최댓값은 $g\left(-\frac{\sqrt{3}}{3}\right)=\frac{8\sqrt{3}}{9}$ 이다.

■ 2-1

함수 $f(x)$의 a_1부터 a_n까지의 정적분은

$$\int_{a_1}^{a_n}\frac{2x}{e^2-1}e^{x^2}dx=\int_{a_1}^{a_2}\frac{2x}{e^2-1}e^{x^2}dx+\int_{a_2}^{a_3}\frac{2x}{e^2-1}e^{x^2}dx+\cdots+\int_{a_{n-1}}^{a_n}\frac{2x}{e^2-1}e^{x^2}dx=e+e^3+\cdots+e^{2n-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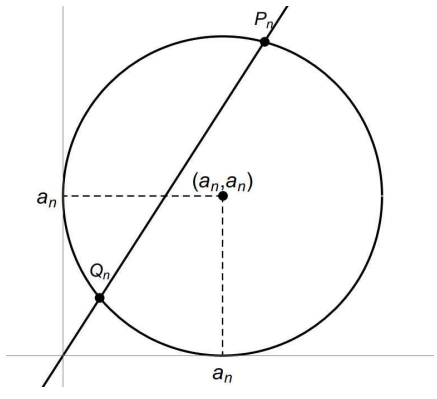
$$\frac{1}{e^2-1}\left(e^{a_n^2}-e\right)=\sum_{k=1}^{n-1}e^{2k-1}=\frac{1}{e^2-1}\left(e^{2n-1}-e\right)$$

따라서 $a_n^2=2n-1$, 즉 $a_n=\sqrt{2n-1}$이다.

■ 2-2

점 (a_n,a_n)과 직선 $\left(\tan\frac{1}{n}\right)x-y=0$ 사이의 거리를 d_n으로 놓으면

$$d_n=\frac{\left|\left(\tan\frac{1}{n}\right)a_n-a_n\right|}{\sqrt{\tan^2\frac{1}{n}+1}}$$



이다. 한편 $l_n=2\sqrt{a_n^2-d_n^2}$ 이므로,

$$\begin{aligned} l_n^2 &= 4\left(a_n^2-d_n^2\right) \\ &= 4\left(a_n^2-\frac{a_n^2\left(\tan\frac{1}{n}-1\right)^2}{1+\tan^2\frac{1}{n}}\right) \end{aligned}$$

이다. 이때 삼각함수의 성질에 의하여 $1+\tan^2\frac{1}{n}=\sec^2\frac{1}{n}$이므로

$$4\left(a_n^2-\frac{a_n^2\left(\tan\frac{1}{n}-1\right)^2}{1+\tan^2\frac{1}{n}}\right)=4a_n^2\left(1-\frac{\left(\tan\frac{1}{n}-1\right)^2}{\sec^2\frac{1}{n}}\right)=8a_n^2\left(\frac{\tan\frac{1}{n}}{\sec^2\frac{1}{n}}\right)=8a_n^2\left(\sin\frac{1}{n}\cos\frac{1}{n}\right)$$ 이다.

또한 $a_n = \sqrt{2n-1}$ 이므로

$$l_n^2 = 8(2n-1)\left(\sin\frac{1}{n}\cos\frac{1}{n}\right) \quad \text{이다.}$$

이때, $t = \frac{1}{n}$이라 하면, $n\to\infty$일 때, $t\to 0$ 이므로

$$\lim_{n\to\infty} l_n^2 = \lim_{n\to\infty} 8(2n-1)\left(\sin\frac{1}{n}\cos\frac{1}{n}\right) = \lim_{t\to 0} 8\left(\frac{2}{t}-1\right)(\sin t\cos t)$$
$$= \lim_{t\to 0} 8(2-t)\frac{\sin t}{t}\cos t = 16$$

이다.

■ 3-1

$f(x) = x^{2n} + x^{2n-1} + \cdots + x^2 + x - 1$라 하자. $f(0) = -1 < 0$이다. 한편,

$$f(-2) = (-2)^{2n} + (-2)^{2n-1} + \cdots + (-2)^2 + (-2) - 1 = \frac{(-2)^{2n+1} - (-2)}{-2-1} - 1 = \frac{2}{3}\times 4^n - \frac{5}{3}$$

이고, n은 자연수이므로 $f(-2) \geq \frac{2}{3}\times 4 - \frac{5}{3} = 1 > 0$이다. 또한 $f(1) = 2n - 1 > 0$이다.

사잇값의 정리에 의하여 방정식 $f(x) = 0$은 -2와 0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고, 0과 1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므로 열린구간 $(-2, 1)$에서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 3-2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열린구간 (a, b)의 어떤 x에 대하여 $f(x) \leq 0$이면 방정식 $f(x) = 0$은 열린구간 (a, b)에서 실근을 갖는다.'

이다.

조건에 의하여 $f(c) \leq 0$인 실수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만약 $f(c) = 0$이면 $x = c$는 방정식 $f(x) = 0$의 근이다.

만약 $f(c) < 0$이면 $f(a) > 0$이므로 사잇값의 정리에 의하여 방정식 $f(x) = 0$은 a와 c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고 또한 $f(b) > 0$이므로 c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따라서 방정식 $f(x) = 0$은 열린구간 (a, b)에서 실근을 갖는다.

2-6. 문항카드 ⑥ <자연계열(약학부) 1, 2, 3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약학부) / 1-1, 1-2, 2-1, 2-2, 3-1, 3-2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핵심개념 및 용어	최대, 최소, 극한, 적분, 사잇값 정리, 수학적 귀납법
예상 소요 시간	9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가>

이차방정식 $ax^2+bx+c=0$의 두 근을 α, β라고 하면,

$$\alpha+\beta=-\frac{b}{a},\ \alpha\beta=\frac{c}{a}$$

<나>

함수 $y=f(x)$가 닫힌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최대·최소 정리에 따라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최댓값과 최솟값을 가진다. 이때 이 구간에서 $f(x)$의 극댓값, 극솟값, $f(a)$, $f(b)$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댓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솟값이 된다.

제시문 <가>, <나>를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1-1. **이차방정식 $x^2-(e^k-2)x-2e^k+1=0$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α, β라고 할 때, $\alpha^3+\beta^3$이 최소가 되는 실수 k의 값과 그때 $\alpha^3+\beta^3$의 값을 구하시오.**

1-2. **삼차함수 $f(x)=(x^2-1)(x+3k)$의 극댓값과 극솟값의 합이 최대가 되는 실수 k의 값과 그때 극댓값과 극솟값의 합을 구하시오. (단, $-\sqrt{3}\le k\le\sqrt{3}$)**

<다>
명제 $p \rightarrow q$가 참이면 그 대우 $\sim q \rightarrow \sim p$도 참이므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에는 그 대우가 참임을 증명해도 된다.

<라>
함수 $f(x)$가 닫힌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 \neq f(b)$이면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k$인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것을 사잇값의 정리라고 한다.
함수 $f(x)$가 닫힌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와 $f(b)$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사잇값의 정리에 의하여 방정식 $f(x)=0$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제시문 <다>, <라>를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2-1. **함수 $f(x)$가 닫힌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0$, $f(b)>0$이다.**

다음 명제의 대우를 말하고 그것이 참임을 증명하시오.

방정식 $f(x)=0$이 열린구간 (a,b)에서 실근을 갖지 않는다면 열린구간 (a,b)의 모든 x에 대하여 $f(x)>0$이다.

2-2. **양수 k에 대하여 삼차방정식 $x^3-2x=k$가 닫힌구간 $[-k,k]$에서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마>

함수 $f(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곡선 $y = f(x)$와 x축 및 두 직선 $x = a$, $x =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A는

$$A = \int_a^b |f(x)| dx$$

<바>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a, b, c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일 때,

$$\int_a^c f(x)dx + \int_c^b f(x)dx = \int_a^b f(x)dx$$

<사>

점 (x_1, y_1)과 직선 $ax + by + c = 0$ 사이의 거리 d는

$$d = \frac{|ax_1 + by_1 + c|}{\sqrt{a^2 + b^2}}$$

<아>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할 때, 다음 두 가지를 증명하면 된다.

(i) $n =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

(ii) $n =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 = k + 1$일 때도 명제 $p(n)$이 성립한다.

자연수에 대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이와 같은 방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한다.

제시문 <마>, <바>, <사>, <아>를 읽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_n에 대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자연수 n에 대하여 $a_1 = 1$이고 $a_n < a_{n+1}$이다. 함수 $f(x) = \frac{2x}{e^2 - 1}e^{x^2}$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 = a_n$, $x = a_{n+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A_n이 $A_n = e^{2n-1}$이다.

3-1. **x축, y축에 모두 접하고 중심이 점 (a_n, a_n)인 원이 직선 $y = \left(\tan\frac{1}{n}\right)x$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_n, Q_n이라 하자. 선분 $\mathrm{P}_n\mathrm{Q}_n$의 길이를 l_n이라 할 때 $\lim_{n\to\infty} l_n^2$의 값을 구하시오.**

3-2.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sum_{m=1}^{n^2} \frac{1}{a_m} \geq n$$

3. 출제 의도

명제, 함수, 방정식, 미분과 적분 등은 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제반 학문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본 문제들은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등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들로부터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문제들을 통해 학생들이 제시문들을 읽고 함수의 최대 최소, 이차방정식, 연속함수의 성질, 정적분, 삼각함수, 수열, 수열의 극한, 방정식의 근, 수학적 귀납법 등에 대한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제시문 <가>, <나>	[10수학01-01]다항식의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 [10수학01-08]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12수학Ⅱ01-04]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 1-1	[10수학01-01]다항식의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 [10수학01-08]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12수학Ⅱ02-08]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문제 1-2	[10수학01-01]다항식의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 [10수학01-08]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12수학Ⅱ01-04]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2수학Ⅱ02-08]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다>, <라>	[10수학03-05]명제의 역과 대우를 이해한다. [10수학03-07]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을 이해한다. [12수학Ⅱ01-04]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 2-1	[10수학03-05]명제의 역과 대우를 이해한다. [10수학03-07]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을 이해한다. [12수학Ⅱ01-04]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 2-2	[12수학Ⅱ01-04]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2수학Ⅱ02-09]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제시문 <마>, <바>, <사>, <아>	[10수학02-05]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Ⅱ03-03]정적분의 뜻을 안다. [12미적03-05]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문제 3-1	[10수학02-05]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Ⅰ02-02]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12수학Ⅰ03-03]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12미적02-04]삼각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 있다. [12미적03-05]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문제 3-2	[12수학Ⅰ03-04]Σ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2수학Ⅰ03-08]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명제를 증명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	고성은	좋은책신사고	2020	11-16, 51-54, 126-128, 190-194
	고등학교 수학I	김원경	비상교육	2020	71-88, 127-133, 139-150
	고등학교 수학II	이준열	천재교육	2020	35-40, 83-97, 121-127
	고등학교 미적분	황선욱	미래엔	2020	71-74, 166-167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 <나>에서는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와 닫힌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댓값, 최솟값에 대해서 소개한다. <문제 1-1>에서는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여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문제 1-2>에서는 극댓값과 극솟값의 합의 최댓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다>, <라>에서는 사잇값의 정리와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에 대해서 소개한다. <문제 2-1>에서는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말하고 그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 2-2>에서는 사잇값의 정리를 활용하여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는 구간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마>, <바>, <사>, <아>에서는 정적분의 성질과 정적분을 활용하여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소개한다. <문제 3-1>에서는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값을 구하고, 삼각함수의 극한을 이용하여 주어진 값의 극한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 3-2>에서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1-2	① <1-1>, <1-2>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한다. ② <1-1>에서 곱셈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1-1>에서 $\alpha^3+\beta^3$의 최솟값과 실수 k의 값을 구할 수 있다. ④ <1-2>에서 도함수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⑤ <1-2>에서 곱셈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⑥ <1-2>에서 최댓값을 구할 수 있다. 1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논리 전개가 완벽한 경우 2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논리 전개나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3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5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4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③과 ⑥ 요건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요건 중 2가지를 만족시키는 경우 5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4등급 기준 제외) 6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7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8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9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2-1 2-2	① <2-1>에서 명제의 대우를 바르게 말할 수 있다. ② <2-1>에서 명제의 가정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③ <2-1>에서 사잇값의 정리를 활용하여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수 있다. ④ <2-2>에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한다. ⑤ <2-2>에서 k의 값의 범위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⑥ <2-2>에서 사잇값의 정리를 활용하여 실근을 갖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1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논리 전개가 완벽한 경우 2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논리 전개나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3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5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4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③과 ⑥ 요건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요건 중 2가지를 만족시키는 경우 5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4등급 기준 제외) 6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7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8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9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1 3-2	① <3-1>에서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여 a_n을 구할 수 있다. ② <3-1>에서 선분의 길이 l_n을 구할 수 있다. ③ <3-1>에서 삼각함수의 극한을 이용하여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④ <3-2>에서 주어진 부등식을 이해할 수 있다. ⑤ <3-2>에서 $n=k$에서 $n=k+1$이 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⑥ <3-2>에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다. 1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논리 전개가 완벽한 경우 2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논리 전개나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3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5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4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③과 ⑥ 요건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요건 중 2가지를 만족시키는 경우 5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4등급 기준 제외) 6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7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8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9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7. 예시 답안

■ 1-1

주어진 이차방정식의 판별식

$$D=e^{2k}-4e^{k}+4+8e^{k}-4=e^{2k}+4e^{k}>0$$

이므로 이차방정식은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또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lpha+\beta=e^{k}-2,\ \alpha\beta=1-2e^{k}$$

이다. 따라서

$$\alpha^3+\beta^3=(\alpha+\beta)^3-3\alpha\beta(\alpha+\beta)=(e^{k}-2)^3-3(1-2e^{k})(e^{k}-2) \quad \cdots\cdots ①$$

이다. 이때 $t=e^{k}\ (t>0)$라고 두고, $f(t)=(t-2)^3-3(1-2t)(t-2)$라 하자.

$$f'(t)=3(t-2)^2+6(t-2)-3(1-2t)=3t^2-3=3(t+1)(t-1)$$

이므로 $f'(t)=0$에서 $t=\pm 1$이다.

t	0	…	1	…
$f'(t)$		−	0	+
$f(t)$		↘	−4	↗

따라서 $t=1$, 즉 $k=0$일 때, $\alpha^3+\beta^3$의 최솟값은 $f(1)=-4$이다.

(별해) ①로부터 $g(k)=(e^k-2)^3-3(1-2e^k)(e^k-2)$라 하면,

$g'(k)=e^k\{3(e^k-2)^2+6(e^k-2)-3(1-2e^k)\}=3e^k(e^k+1)(e^k-1)=0$

이므로 $g'(k)=0$에서 $k=0$이다.

k	$\cdots$	0	$\cdots$
$g'(k)$	$-$	0	$+$
$g(k)$	↘	-4	↗

따라서 $k=0$일 때, $\alpha^3+\beta^3$의 최솟값은 $g(0)=-4$이다.

■ 1-2

도함수 $f'(x)=2x(x+3k)+x^2-1=3x^2+6kx-1$이다.

이차방정식 $f'(x)=0$의 판별식

$$D/4=9k^2+3>0$$

이므로 $f'(x)=0$은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f'(x)=0$의 두 실근을 α, β $(\alpha<\beta)$라고 하면 $f'(x)=0$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lpha+\beta=-2k,\ \alpha\beta=-\frac{1}{3}$$

이다. 따라서

$$\alpha^2+\beta^2=(\alpha+\beta)^2-2\alpha\beta=4k^2+\frac{2}{3},$$

$$\alpha^3+\beta^3=(\alpha+\beta)^3-3\alpha\beta(\alpha+\beta)=-8k^3-2k$$

삼차함수 $f(x)$의 삼차항의 계수가 1로 양수이고 $\alpha<\beta$이므로 $f(\alpha)$는 극댓값, $f(\beta)$는 극솟값이다.

따라서

$$\begin{aligned}f(\alpha)+f(\beta)&=\alpha^3+\beta^3+3k(\alpha^2+\beta^2)-(\alpha+\beta)-6k\\&=-8k^3-2k+12k^3+2k+2k-6k\\&=4k^3-4k\end{aligned}$$

여기서 $g(k)=4k^3-4k$라고 하면, $g'(k)=4(3k^2-1)$이므로 $g'(k)=0$에서 $k=\pm\frac{1}{\sqrt{3}}$이다.

k	$-\sqrt{3}$	$\cdots$	$-\frac{1}{\sqrt{3}}$	$\cdots$	$\frac{1}{\sqrt{3}}$	$\cdots$	$\sqrt{3}$
$g'(k)$		$+$	0	$-$	0	$+$	
$g(k)$	$-8\sqrt{3}$	↗	$\frac{8\sqrt{3}}{9}$	↘	$-\frac{8\sqrt{3}}{9}$	↗	$8\sqrt{3}$

따라서 $k=\sqrt{3}$일 때 $f(\alpha)+f(\beta)$를 최대로 하고 최댓값은 $g(\sqrt{3})=8\sqrt{3}$ 이다.

■ 2-1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열린구간 (a,b)의 어떤 x에 대하여 $f(x)\le 0$이면 방정식 $f(x)=0$은 열린구간 (a,b)에서 실근을 갖는다.'

이다.

조건에 의하여 $f(c)\le 0$인 실수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만약 $f(c)=0$이면 $x=c$는 방정식 $f(x)=0$의 근이다.

만약 $f(c)<0$이면 $f(a)>0$이므로 사잇값의 정리에 의하여 방정식 $f(x)=0$은 a와 c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고, 또한 $f(b)>0$이므로 c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따라서 방정식 $f(x)=0$은 열린구간 (a,b)에서 실근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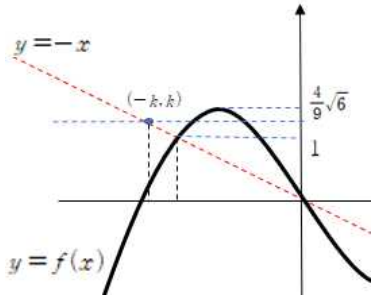
■ 2-2

$f(x)=x^3-2x$라 하면 방정식 $f(x)=k$의 근은 곡선 $y=f(x)$와 $y=k$의 교점의 x좌표이다.

$f'(x)=3x^2-2$이므로 $f'(x)=0$에서 $x=\pm\frac{\sqrt{6}}{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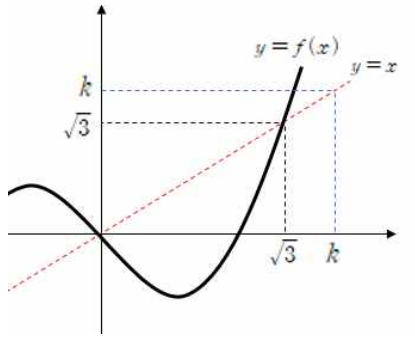
x		$-\frac{\sqrt{6}}{3}$		$\frac{\sqrt{6}}{3}$	
$f'(x)$	+	0	-	0	+
$f(x)$	↗	$\frac{4}{9}\sqrt{6}$	↘	$-\frac{4}{9}\sqrt{6}$	↗

$0<k\le 1$인 경우에는 $f(-k)-k=-k^3+k=k(1-k^2)>0$이므로 $f(-k)\ge k$이다. $f(0)=0$이므로 사잇값의 정리에 의하여 $f(x)=k$는 구간 $[-k,0]$에서 실근을 갖는다.



$1<k\le\frac{4}{9}\sqrt{6}$인 경우에는 $f\left(-\frac{\sqrt{6}}{3}\right)=\frac{4}{9}\sqrt{6}>k$이므로 $f(x)=k$는 구간 $[-\frac{\sqrt{6}}{3},0]$에서 실근을 갖는다. 또 $-k<-1<-\frac{\sqrt{6}}{3}$이므로 $f(x)=k$는 구간 $[-k,0]$에서 실근을 갖는다.

한편, $k>\frac{4}{9}\sqrt{6}$인 경우에는 방정식 $f(x)=k$는 $x<\sqrt{2}$인 근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방정식 $f(x)=k$가 닫힌구간 $[\sqrt{2},k]$에서 실근을 가져야 한다. 함수 $f(x)$는 $[\sqrt{2},k]$에서 증가하고 $f(\sqrt{2})=0$이므로 $f(k)\ge k$가 되어야 한다. 이 부등식을 풀면 $k^3-3k\ge 0$이므로 $k\ge\sqrt{3}$이다.



모든 경우를 고려하면 구하는 k의 값의 범위는 $0<k\le\frac{4}{9}\sqrt{6}$ 또는 $k\ge\sqrt{3}$이다.

■ 3-1

함수 $f(x)$의 a_1부터 a_n까지의 정적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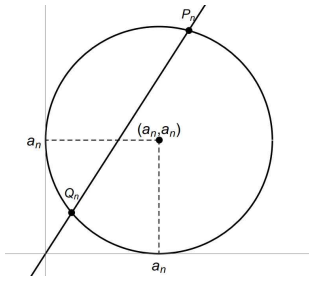
$$\int_{a_1}^{a_n}\frac{2x}{e^2-1}e^{x^2}dx=\int_{a_1}^{a_2}\frac{2x}{e^2-1}e^{x^2}dx+\int_{a_2}^{a_3}\frac{2x}{e^2-1}e^{x^2}dx+\cdots+\int_{a_{n-1}}^{a_n}\frac{2x}{e^2-1}e^{x^2}dx=e+e^3+\cdots+e^{2n-3}$$

$$\frac{1}{e^2-1}\left(e^{a_n^2}-e\right)=\sum_{k=1}^{n-1}e^{2k-1}=\frac{1}{e^2-1}\left(e^{2n-1}-e\right)$$

따라서 $a_n^2=2n-1$, 즉 $a_n=\sqrt{2n-1}$이다.

점 (a_n,a_n)과 직선 $\left(\tan\frac{1}{n}\right)x-y=0$ 사이의 거리를 d_n으로 놓으면

$$d_n = \frac{\left|\left(\tan\frac{1}{n}\right)a_n - a_n\right|}{\sqrt{\tan^2\frac{1}{n}+1}}$$



이다. 한편 $l_n = 2\sqrt{a_n^2 - d_n^2}$ 이므로,

$$l_n^2 = 4\left(a_n^2 - d_n^2\right) = 4\left(a_n^2 - \frac{a_n^2\left(\tan\frac{1}{n}-1\right)^2}{1+\tan^2\frac{1}{n}}\right)$$

이다. 이때 삼각함수의 성질에 의하여 $1+\tan^2\frac{1}{n} = \sec^2\frac{1}{n}$ 이므로

$$4\left(a_n^2 - \frac{a_n^2\left(\tan\frac{1}{n}-1\right)^2}{1+\tan^2\frac{1}{n}}\right) = 4a_n^2\left(1 - \frac{\left(\tan\frac{1}{n}-1\right)^2}{\sec^2\frac{1}{n}}\right) = 8a_n^2\left(\frac{\tan\frac{1}{n}}{\sec^2\frac{1}{n}}\right) = 8a_n^2\left(\sin\frac{1}{n}\cos\frac{1}{n}\right)$$

이다. 또한 $a_n = \sqrt{2n-1}$ 이므로

$$l_n^2 = 8(2n-1)\left(\sin\frac{1}{n}\cos\frac{1}{n}\right)$$

이다. 이때, $t = \frac{1}{n}$ 이라 하면, $n\to\infty$ 일 때, $t\to 0$ 이므로

$$\lim_{n\to\infty} l_n^2 = \lim_{n\to\infty} 8(2n-1)\left(\sin\frac{1}{n}\cos\frac{1}{n}\right) = \lim_{t\to 0} 8\left(\frac{2}{t}-1\right)(\sin t\cos t)$$
$$= \lim_{t\to 0} 8(2-t)\frac{\sin t}{t}\cos t = 16$$

이다.

■ 3-2

$a_n = \sqrt{2n-1}$ 이므로 주어진 부등식은

$$\sum_{m=1}^{n^2}\frac{1}{\sqrt{2m-1}} \geq n \qquad \cdots\cdots ②$$

이다.

$n=1$일 때 $\frac{1}{\sqrt{1}} \geq 1$ 이므로 ②가 성립한다.

$n=k$일 때 부등식 $\sum_{m=1}^{k^2}\frac{1}{\sqrt{2m-1}} \geq k$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위 부등식의 양변에 $\frac{1}{\sqrt{2k^2+1}} + \frac{1}{\sqrt{2k^2+3}} + \cdots + \frac{1}{\sqrt{2(k+1)^2-1}}$ 을 더하면

$$\sum_{m=1}^{k^2}\frac{1}{\sqrt{2m-1}} + \frac{1}{\sqrt{2k^2+1}} + \frac{1}{\sqrt{2k^2+3}} + \cdots + \frac{1}{\sqrt{2(k+1)^2-1}}$$
$$\geq k + \frac{1}{\sqrt{2k^2+1}} + \frac{1}{\sqrt{2k^2+3}} + \cdots + \frac{1}{\sqrt{2(k+1)^2-1}}$$

여기에서,

$$\sum_{m=1}^{k^2}\frac{1}{\sqrt{2m-1}} + \frac{1}{\sqrt{2k^2+1}} + \frac{1}{\sqrt{2k^2+3}} + \cdots + \frac{1}{\sqrt{2(k+1)^2-1}} = \sum_{m=1}^{(k+1)^2}\frac{1}{\sqrt{2m-1}}$$ 이고

$\frac{1}{\sqrt{2k^2+1}}+\frac{1}{\sqrt{2k^2+3}}+\cdots+\frac{1}{\sqrt{2(k+1)^2-1}}$ 의 항의 개수는 $2k+1$이므로

$$\sum_{m=1}^{(k+1)^2}\frac{1}{a_m} \geq k+\frac{2k+1}{\sqrt{2(k+1)^2-1}}=k+\sqrt{\frac{4k^2+4k+1}{2k^2+4k+1}}=k+\sqrt{1+\frac{2k^2}{2k^2+4k+1}}\geq k+1$$

이므로 $n=k+1$일 때도 ②가 성립한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

2-7. 문항카드 ⑦ <재외국민 특별전형_국어 1~40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4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전 계열 / 1~40	
출제 범위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객관식 4지선다형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제시문

1. 다음 중 비음이 아닌 것은? (2점)

① ㅁ ② ㄴ ③ ㅇ ④ ㄹ

2. 다음 중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는? (2점)

① ㄷ ② ㅂ ③ ㅈ ④ ㅎ

3. 다음 중 <보기>의 음운 현상에 속하는 것은? (3점)

〈보기〉

파열음이 뒤에 오는 비음에 동화되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① 감기[강기] ② 신문[심문]
③ 닫는[단는] ④ 닳는[달른]

4. 다음 중 표준어의 단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ㅗ'와 'ㅜ'는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뒤쪽에 속하는 모음이다.
② 'ㅏ'와 'ㅡ'는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높은 모음이다.
③ 'ㅟ'와 'ㅗ'는 발음할 때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는 모음이다.
④ 'ㅔ'와 'ㅚ'는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앞쪽에 속하는 모음이다.

5. 다음 중 단어의 구조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3점)

① 정답다 ② 지우개
③ 꽃병 ④ 높이

6. 다음 밑줄 친 단어 가운데 품사가 다른 하나는? (3점)
① 빨리 학교 다녀와.
② 재빠르게 놀이터로 뛰어갔다.
③ 나는 멀리 공을 던졌다.
④ 방금 철수가 도착했다.

7. '부지런한 사람은 언제나 성공한다'에서 '부지런한'의 품사는? (2점)
① 명사 ② 관형사 ③ 동사 ④ 형용사

8. 밑줄 친 조사의 용법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2점)
① 영희가 강아지를 좋아한다.
② 오늘은 달이 늦게 떴다.
③ 나는 범인이 아니다.
④ 민희는 마음씨가 곱다.

9. 다음 중 문장의 짜임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2점)
① 지영이가 어디 가냐고 물었다.
②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③ 여행을 떠나려고 짐을 꾸렸다.
④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10~11】<보기>는 중세국어 자료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ᄇᆞᆯ휘 기픈 남ᄀᆞᆫ ᄇᆞᄅᆞ매 아니 뮐씨 곶 됴코 여름 하ᄂᆞ니
ᄉᆡ미 기픈 므른 ᄀᆞᄆᆞ래 아니 그츨씨 내히 이러 바ᄅᆞ래 가ᄂᆞ니

10. 밑줄 친 어절의 현재 의미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3점)
① 불휘 – 뿌리 ② 여름 - 여름
③ ᄀᆞᄆᆞ래 – 가뭄에 ④ 바ᄅᆞ래 - 바다에

11. 위의 표기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기픈'과 같이 이어적기 방식에 따라 표기하고 있다.
② '됴코'에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적용되었다.
③ '남ᄀᆞᆫ'은 '남+ᄀᆞᆫ'으로 분석된다.
④ 현대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문자가 사용되었다.

12. 다음 밑줄 친 고유어의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① 우리는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오솔길을 걸어갔다.
→ 폭이 좁은 호젓한 길
② 어린 녀석이 어른들 대하는 태도가 제법 곰살궂었다.
→ 무뚝뚝하고 건방졌다.
③ 우리는 어느덧 후미진 골목에 접어들었다.
→ 아주 구석지고 으슥한
④ 하라면 하지 웬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 쓸데없는 말

13.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① 자꾸 코를 곯아서 잘 수가 없다.
② 그 사람 재산은 겉잡아도 30억원은 넘는다.
③ 이 가격이면 거저 사시는 것입니다.
④ 생선을 구웠더니 몸에 생선 냄새가 배었어.

14. 다음 관용 표현의 뜻풀이가 알맞지 않은 것은? (3점)
① 어안이 벙벙하다
→ 뜻밖에 놀랍거나 기막힌 일을 당하여 어리둥절하다
② 국물도 없다
→ 돌아오는 몫이나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
③ 칼자루를 쥐다
→ 어떤 일에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다
④ 바가지를 쓰다
→ 어려운 일이나 난처한 일을 당하여 몹시 애쓰다

15. 다음 속담 중 풀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누워서 침 뱉기
→ 남에게 말을 좋게 해야 자기에게도 좋은 반응이 돌아온다는 말.
② 우물 안 개구리
→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도토리 키재기
→ 정도가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서로 다툼을 이르는 말.
④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아무리 애를 써도 보람이 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6.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올바르지 <u>않은</u> 것은? (2점)
① 나도 <u>너만큼</u> 부지런하다.
② 이제 그만 비가 그쳐야 <u>할텐데</u>.
③ 이 일을 <u>하는 데</u> 며칠이 걸렸다.
④ 학교에 <u>가는데</u> 비가 오기 시작했다.

17. <보기>의 맞춤법 규정과 관련된 단어가 <u>아닌</u> 것은? (3점)

〈**보기**〉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
8.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

① 이르다 ② 누르다
③ 푸르다 ④ 치르다

18.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어문규범에 <u>어긋난</u> 것은? (2점)
① <u>칠흙</u>같이 캄캄한 밤
② 편지를 <u>갈가리</u> 찢어 버렸다.
③ 그는 <u>번번이</u> 매년 나에게 선물을 준다.
④ <u>짤따란</u>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19. 다음 <보기>의 예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한자성어는? (3점)

〈**보기**〉

많은 학생들이 경기에 참여해서 실력을 뽐냈지만 그녀의 실력은 역시 (　　)이었다.

① 마이동풍(馬耳東風) ② 금의환향(錦衣還鄕)
③ 동문서답(東問西答) ④ 군계일학(群鷄一鶴)

20. 다음 중 한자의 독음이 적절한 것은? (2점)
① 空氣 - 공기 ② 國旗 - 국민
③ 入社 - 입학 ④ 高價 - 저가

【21 ~ 2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은 상식에 물을 만한 것이 아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생활의 당연한 기능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서는 물건을 가져야 하고, 더욱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해야만 그것을 즐길 수 있다. 소유, 그것도 더 많은 소유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어떤 인물을 "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 따위가 가능하단 말인가? 오히려 존재의 본질이 소유이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것이다.

(나) 그러나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은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삶의 가장 주요한 문제로 삼아 왔다. 부처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버리라고 가르쳤다. 또 예수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오히려 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될 것이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고 하였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소유와 존재를 깊이 연구하였고, 실제 삶의 경험 속에서 그 구분의 토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소유와 존재는 삶의 두 가지 기본 양식이며, 그것이 개인적 성격은 물론 사회적 성격의 유형 차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 다음 두 편의 시에는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차이가 드러난다. 하나는 일본 시인 바쇼(1644~1694), 다른 하나는 영국 시인 테니슨(1809~1892)의 시이다. 두 시인은 비슷한 경험, 즉 산책 중에 꽃을 본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였다. 먼저 테니슨의 시를 보자.

갈라진 돌담에 핀 한 송이 꽃이여,
너를 틈 사이에서 뽑아
뿌리째 내 손에 들고 있네.
작은 꽃이여, 만일 너에 관한 것,
뿌리와 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때 나는 신도 인간도 훤히 알 수 있으리라.

그리고 바쇼의 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이 피어 있네.
울타리 밑에!

(라) 이 두 시의 차이는 크다. 테니슨의 반응은 (㉡) 그는 꽃을 '뿌리째' 뽑아 낸다. 그는 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꽃의 본질을 놓고 지적 명상에 잠기지만, 꽃은 그 관심의 결과로 죽어 버린다. 여기서 테니슨은 살아 있는 것을 해체함으로써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바쇼의 반응은 아주 다르다. 그는 꽃을 뽑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꽃에 손을 대지조차 않는다. 다만 가만히 살펴볼 뿐이다.

21. ㉠의 문맥적 의미는? (3점)
① 소유와 존재는 선택할 수 없다.
② 누구나 소유를 선택한다.
③ 누구나 존재를 선택한다.
④ 소유와 존재는 구분될 수 없다.

22. ㉡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내용은? (2점)
① 꽃을 소유하려는 것이다.
② 꽃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③ 꽃을 죽이고자 한 것이다.
④ 꽃을 존재하는 대로 두려는 것이다.

23. 각 단락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가)에서는 세속적 관점에서 보는 소유와 존재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주로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소유와 존재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대조적인 예를 제시하여 논의의 근거로 삼고 있다.
④ (라)에서는 비교를 통하여 소유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다.

24. 윗글의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진술은? (2점)
①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은 상식을 따라야만 옳은 결론을 낼 수 있군"
② "예수는 자기를 잃어도 온 세상을 얻으면 유익한 것이라 설파했군"
③ "소유와 존재는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삶의 양식이군"
④ "동양은 주로 소유를. 서양은 주로 존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군"

【25~28】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99년 신경 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퍼셉션』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라는 제목으로 실린 논문이 있다. 당시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의 대니얼 사이먼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다. 그는 흰 옷과 검은 옷을 입은 학생 여러 명을 두 조로 나누어 같은 조끼리만 이리저리 농구공을 주고받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리고 이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이렇게 주문하였다. "검은 옷을 입은 조는 무시하고 흰 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만 세어 주세요"라고. 동영상은 1분 남짓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흰 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를 맞히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 절반은 왜 이런 간단한 실험을 하는지 목적을 파악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 사실 실험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 준 동영상 중간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학생이 걸어 나와 가슴을 치고 퇴장하는 장면이 무려 9초에 걸쳐 등장한다. 재

미있는 사실은 동영상을 본 사람들 중 절반은 자신이 고릴라를 ⓐ보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고릴라를 알아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한 이들에게 고릴라의 등장 사실을 알려 주고 동영상을 다시 보여 주자, 분명 먼젓번 동영상에서는 고릴라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서 실험자가 자신을 놀리려고 다른 동영상을 보여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 도대체 왜 이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일까?

(다) 대니얼 사이먼스는 이를 '무주의 맹시'라고 칭했다. 이는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정말 황당한 소리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런 경험을 한다.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 다만 내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들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존재하였다. 하지만 평소에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오늘에서야 뇌가 인지한 것이다.

(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우리의 신체는 눈만이 빛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진화해 왔다. 그래서 눈이 손상되거나 다른 이유로 기능을 잃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눈 자체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눈동자를 지나 눈알 안쪽으로 파고든 빛은 망막의 시각 세포에 의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그리고 이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눈의 반대편, 즉 뒤통수 쪽에 위치한 뇌의 시각 피질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본다.

25.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질문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② 개념을 정의(定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권위 있는 연구 결과를 논의의 실마리로 삼고 있다.
④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어지는 연역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26. 각 단락의 내용에 어긋나는 것은? (2점)
① (가) - 사람들은 동영상을 보면서 패스 횟수를 헤아렸다.
② (나) - 동영상은 고릴라가 나오거나 나오지 않는 것의 두 종류가 있었다.
③ (다) -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지만 못 보는 경우가 있다.
④ (라) - 눈동자를 지난 빛은 망막에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27. ⓐ ~ ⓓ 중 다른 셋과는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은? (2점)
① ⓐ　　② ⓑ
③ ⓒ　　④ ⓓ

28. ㉠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를 뒷받침하는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점)
① 실연한 뒤에 유난히 행복한 연인들의 모습이 눈에 자주 띈다.
②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의 늙은 모습에 마음이 짠했던 날에는 유난히 나이 든 어른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③ 다리를 다친 후 유난히 휠체어를 탄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④ 따뜻한 봄이 오니 들판에 피어난 이쁜 꽃들이 유난히 눈에 띈다.

【29 ~ 32】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나)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2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① (가)는 반복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가)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바람을 노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③ (나)는 반어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바람을 노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30.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는 젊은 시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말이군.
②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란 마음속에 맺힌 부정적인 것을 뜻하는 말이군.
③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는 이기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지적한 말이군.
④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는 가진 자들에게도 가혹한 추위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이군.

31. ⓐ와 ⓑ의 내포적 의미가 적절히 짝지어진 것은? (3점)

	ⓐ	ⓑ
①	순수	위안
②	순수	순수
③	시련	위안
④	시련	순수

32. ㉠에 쓰인 수사법이 보이지 <u>않는</u> 것은? (2점)

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②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③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④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33~36】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요?"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단 몸뚱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그자도 물 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목욕탕 속을 휘 돌아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의 이야기에는 무심히 이구석 저구석에서 멱을 감는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린다.

"실상은 누워 떡먹기지. 나두 이번에 가서 해오면 세 번째나 되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쿨리(苦力) 말씀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오는 것인데, 그 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넨다, 하하하."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 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리어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속아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번 ⓐ<u>그자</u>의 상판때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옳지! 그래서 ⓑ<u>이자</u>의 형이 헌병 군조라는 것을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반색을 한 게로군!'

나는 이런 생각도 하여 보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앉았었다.

ⓒ<u>궐자</u>는 벙벙히 듣고 앉았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이리저리 바라보고 빙긋 웃으며 또다시 말을 잇는다.

"왜 남선 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은고 하니, 이 남쪽은 내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만주로 기어들어가거나 남으로 현해탄(玄海灘)을 건너서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누구나 그늘보다는 양지가 좋으니까, 요보들 생각에도 일년 열두 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주린 배를 채우기는 고사하고 보릿고개에는 시래기죽으로 부증이 나서 뒈질 지경인 바에야, 번화한 동경, 대판에 가서 흥청망청 살아 보겠다는 요량이거든. 그러니 촌의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계집애들까지 나두 나두 하고 나서거든. 뭐 모집이야 쉽지!"

"흥..... 그럴 거야!"

"아직 북선 지방은 우리 내지인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히 사니까 응모자가 적지만, 그것도 미구불원에 쪽박을 차고 나설 거라, 허허허."

ⓓ<u>이자</u>는 자기 설명에 만족한 듯이 대단히 득의만면이다.

"그래 그렇게 모집을 해가면 얼마나 생기나요?"

촌뜨기는 구수하다는 듯이 침을 흘리며 듣는다.

"㉠얼마가 뭐요. 여비가 있지, 일당이 또 있지,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하는 데에 일 원서부터 이 원이니까, 그건 회사와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령 방적회사의 여직공 같은 것은 임금도 싼데다가 모집원의 수수료도 헐하고, 광부 같은 것은 지금 시세로도 일 원 오십 전으로 이 원 오십 전까지라우. 가령 천 명만 맡아 가지고 와서 보구려. 이삼 삭 동안 여비나 일당에서 남는 것은 그까짓 건 다 그만두고라도 일천오륙백 원, 근 이천 원은 ㉡간데없는 것일 게니, 그런 벌이가 이판에 어디 있소? 하하하. 나도 맨 처음에, 그건 제주도에서 모집하여 갔지만, 그때에 오백 명 모아다 주고 실살고로 남긴 것이 천 원이었고, 둘째 번에는 올 가을 팔백 명이나 북해도 족미(足尾)탄광에 보내고 이천 원 돈이 들어왔다우."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자는 입의 침이 없이 천 원, 이천 원을 신이 나서 뇌며 목욕탕 속에서 나왔다.

"예에, 예에, 그럴 거예요!"

하며, 일평생에 들어 보지도 못하던 천(千)자가 붙은 돈액수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귀를 기울이고 앉았던 시골자는, 때를 다 밀었는지 그 장대한 구릿빛 나는 유착한 몸집을 벌떡 일으키어 다시 욕탕 속에 출렁 집어넣으면서 만족한 듯이 또다시 말을 붙이었다.

"그래 조선 농군들이 가서 그런 공사일을 잘들 하나요?"

"잘 하구 못 하는 것은 내가 아랑곳 있겠소마는, 하여간 요보는 말을 잘 듣고 쿨리만은 못해도 힘드는 일을 잘 하는데다가 삯전이 헐하니까 안성맞춤이지. 그야 처음 데려갈 때에는 품삯도 많고 일은 드러누워서 떡먹기라고 ㉢푹 삶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빚까지 갚아 주는데야 제아무런 놈이기로 아니 따라 나설 놈이 있겠소. 한번 따라 나서기만 하면야 전차(前借)가 있는데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지.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헐하긴 고사하고 굶어 뒈진다기루 하는 수 있나, 하하하."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의만면하여 모집 방법의 비책까지 도도히 설명을 하여 주고 앉았다.

나는 좀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하며 앉았으려니까, 승객이 다 올라탔는지, 별안간에 욕객의 한 떼가 또 왁자하고 들이 밀려오기에 나는 그만 듣고 ㉣몸을 훔치기 시작하였다.

- 염상섭, <만세전>

33. ⓐ~ⓓ 중 지칭하는 인물이 같지 않은 것은? (3점)

① ⓐ그자
② ⓑ이자
③ ⓒ궐자
④ ⓓ이자

34. ㉠~㉣이 지닌 뜻이 적절하게 풀이된 것은? (2점)

① '얼마가 뭐요'는 '이윤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뜻이다.
② '간데없는 것'은 '낭비하여 사라짐'이란 뜻이다.
③ '푹 삶아야'는 '달래거나 꾀어서 자기 말을 잘 듣게 만들어야'란 뜻이다.
④ '몸을 훔치기'는 '몸을 재빨리 피하기'란 뜻이다.

35. 이 글의 시점(視點)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① 작품 속 주인공인 '나'가 서술자이다.
②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③ 서술자가 소설 속 인물들의 내면심리를 모두 알 수 있다.
④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는 듯하여 독자에게 친근감을 준다.

36. 위 작품에 나타난 현실을 잘못 이해한 것은? (3점)
① 조선 여자들은 무급으로 일본의 방적공장으로 끌려갔다.
② 조선 남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본의 탄광으로 지원했다.
③ 일본의 조선 침탈은 남쪽 지역에서 북쪽 지역으로 진행되었다.
④ 일본의 회사들은 조직적으로 조선의 노동자들을 모집하였다.

【37~40】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ᄃᆞᆯ하 노피곰 도ᄃᆞ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져재 녀러신고요
어긔야 즌 ᄃᆡ ᄅᆞᆯ ᄃᆞᄃᆡ욜셰라
어긔야 어강됴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긔야 내 가논 ᄃᆡ 졈그ᄅᆞᆯ셰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 미상, <정읍사>

(나)
님다히 쇼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쟈ᄒᆞ니
오ᄂᆞᆯ도 거의로다 ᄂᆡ일이나 사ᄅᆞᆷ올가
내ᄆᆞᅀᆞᆷ 둘ᄃᆡ업다 어드러로 가쟛말고
잡거니 밀거니 ⓐ높픈뫼히 올라가니
ⓑ구롬은 ᄏᆞ니와 안개ᄂᆞᆫ ᄆᆞᄉᆞ일고
산쳔(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보며
지쳑(咫尺)을 모ᄅᆞ거든 쳔리(千里)ᄅᆞᆯ ᄇᆞ라보랴
ᄎᆞᆯ하리 믈ᄀᆞ의가 ᄇᆡ길히나 보쟈ᄒᆞ니

ⓒ<u>ᄇᆞ람</u>이야 ⓓ<u>믈결</u>이야 어둥졍 된뎌이고
샤공은 어ᄃᆡ가고 븬ᄇᆡ만 걸렷ᄂᆞ니.
강텬(江天)의 혼자셔셔 디ᄂᆞᆫ히ᄅᆞᆯ 구버보니
님다히 쇼식(消息)이 더옥아득 ᄒᆞᆫ뎌이고

- 정철, <속미인곡> 중에서

(다)

천만리 머나먼 길히 ⓔ<u>고은님</u> 여희옵고
ᄂᆡ ᄆᆞᄋᆞᆷ 둘ᄃᆡ업서 냇ᄀᆞ에 안쟈시니
ⓔ<u>져믈도 내ᄋᆞᆺᄀᆞᆺᄒᆞ여 우러밤길 녜놋다</u>

- 평시조

37.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가)는 반복적으로 삽입된 후렴구가 보인다.
② (나)는 정확한 4·4조의 음수율을 구사하고 있다.
③ (다)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정형시의 하나이다.
④ (가), (나), (다)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3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점)
① ㉠, ㉡은 모두 멀리 있는 님을 뜻한다.
② ㉡, ㉢은 모두 그리운 님을 뜻한다.
③ ㉠, ㉢은 모두 나를 버린 무정한 님을 뜻한다.
④ ㉠, ㉡, ㉢은 모두 사별(死別)한 님을 뜻한다.

39. ⓐ~ⓓ 중에서 내포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2점)
① ⓐ ② ⓑ ③ ⓒ ④ ⓓ

40. 다음 밑줄 그은 곳에서 ⓔ에 쓰인 수사법이 나타나지 <u>않는</u> 것은? (3점)
① 조국을 언제 떠났노. <u>파초의 꿈은 가련하다</u>
② 여름의 강둑은 <u>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u>
③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u>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u>
④ 딴은 밤을 새워 <u>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u>

3. 출제 의도

2025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어 필답시험은 학생들이 그간 충실한 국어 실력을 학습하였는가, 대학 진학 후 어려움 없이 전공 과정에 적응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문법 영역 20문항에서는 국어 음운이 지닌 성격에 대한 이해도, 국어 통사 구문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국어 어휘 및 관용적 표현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였고 비문학 및 문학 영역 20문항에서는 과학지문, 인문지문, 현대소설, 현대시, 고전시가를 출제하여 독해력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문맥에 따른 글 내용의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기준1	[12언매02-01]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의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한다.	문항 1 문항 2 문항 3 문항 4
	성취기준2	[12언매02-02]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품사에 따른 개별 단어의 특성을 탐구한다.	문항 6 문항 7 문항 8
	성취기준3	[12언매02-03] 단어의 짜임과 새말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생활에 활용한다.	문항 5
	성취기준4	[12언매02-04]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	문항 12 문항 13 문항 14 문항 15
	성취기준5	[12언매02-05]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문항 9
	성취기준6	[12언매02-08]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	문항 10 문항 11 문항 19 문항 20
	성취기준7	[12언매02-11]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	문항 16 문항 17 문항 18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1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문항 29 문항 30 문항 31 문항 32 문항 33 문항 34 문항 35 문항 36
	성취기준2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	문항 37 문항 38 문항 39 문항 40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언어와 매체	방민호 외	미래엔	2020	
언어와 매체	민현식 외	천재교육	2023	
국어 (슬픔이 기쁨에게)	신유식 외	미래엔	2017	14
국어 (소유냐 존재냐)	민현식 외	좋은책신사고	2017	372
국어 (고릴라를 못 본 이유)	박안수 외	비상	2017	176
국어 (눈, 정읍사)	최원식 외	창비	2017	222, 244

5. 문항 해설

(1)~(20)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음운의 변동과 정확한 발음, 한글맞춤법의 원리, 국어의 올바른 표현 등의 단원을 바탕으로 출제했다. 이 중에서 음운 변동, 준말, 띄어쓰기와 맞춤법, 높임 표현, 인용 표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질문하였다.

(21)~(24)는 소유와 존재의 선택에 대한 에리리프롬의 글이다. 철학적인 내용은 담은 지문으로 이 지문을 통하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가, 다소 특이하게 표현된 내용들을 문맥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5)~(28)은 본다는 것의 의미를 묻는 지문이다. 과학 지문에 담긴 정보를 단락별로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가,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가 등을 묻고자 하였다.

(29)~(32)는 현대시 두 편를 담았다. 김수영의 <눈>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바람을 담고 있고,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바람을 담고 있는데 이 점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또, 시어의 상징 의미, 표현법의 특징 등도 물었다.

(33)~(36)은 염상섭의 <만세전>으로 이 소설을 통하여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성, 소설과 현실의 관계, 소설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37)~(40)은 고려시대의 문학인 <정읍사>와 조선시대의 문학인 <속미인곡>, <천만리 머나먼길~>을 담았다. 세 편의 공통점은 이별한 님을 그리워한다는 점인데, 다양한 시어로 표현된 것의 내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 감정이입 등의 수사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6.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기준	배점
1~40	모두 객관식 문항으로서 문항별 기준이 필요 없음	2점, 3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번	④	11번	③	21번	②	31번	①
2번	③	12번	②	22번	①	32번	③
3번	③	13번	①	23번	④	33번	②
4번	②	14번	④	24번	③	34번	③
5번	③	15번	①	25번	④	35번	③
6번	②	16번	②	26번	②	36번	①
7번	④	17번	④	27번	①	37번	②
8번	③	18번	①	28번	④	38번	②
9번	①	19번	④	29번	③	39번	①
10번	②	20번	①	30번	④	40번	②

2-8. 문항카드 ⑧ <재외국민 특별전형_영어 1~33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 / 1~33	
출제 범위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영어I, 영어II,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객관식 5지선다형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제시문

* 각 문항 3점, 단 33번 문항은 4점

[1-3] <보기>에 나열된 의미들을 포함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1. <보기> (1) the act of forbidding by authority
(2) an order to restrain or stop
① prohibition ② restoration ③ enforcement ④ availability
⑤ disputation

2. <보기> (1) a stable or shed for horses or cattle
(2) a booth or stand in which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or in which some business is carried on
(3) a chair-like seat in a theater, separated from others by arms or rails
① carriage ② buckle ③ stall ④ compartment ⑤ hut

3. <보기> (1) prevailing tendency, mood, or inclination
(2) temperamental makeup
(3) the tendency of something to act in a certain manner under given circumstances
① disposition ② trend ③ emotion ④ composure ⑤ sensitivity

[4-6] 아래 주어진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4. Kazakhstan has a population of 20 million and one of the lowest population densities in the world, less than 6 people per square kilometer.
① a population ② lowest ③ densities ④ less than ⑤ no error

5. It is easy to see that we are living in a time of rapid and radical social change. It is much less easy to grasp the fact that such change will inevitable affect the nature of those disciplines that both reflect our society and help to shape it.
① less ② inevitable ③ disciplines ④ both ⑤ no error

6. People who have lived through abuse, severe losses or other stressful event are more likely to develop depression.
① people ② have lived ③ event ④ likely ⑤ no error

[7-9] 밑줄 친 표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7. Contemplation is the highest expression of man's intellectual and spiritual life. It is a spiritual wonder.
① boredom ② curiosity ③ doubt ④ marvel ⑤ confusion

8. Person-centered thinking and planning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an action plan that is focused on what is important to and for the person.
① hinder ② complicate ③ encourage ④ impede ⑤ disrupt

9. The story of a hero's downfall was truly tragic, evoking a deep sense of sorrow and loss among the audience.
① celebratory ② humorous ③ heartbreaking ④ trivial ⑤ pleasant

[10-12] 문맥상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10. New Zealand's government believes it has come up with a unique plan to end tabacco ( )—a lifetime ban for those aged 14 or younger.
① smoke ② smoking ③ smoked ④ smoken ⑤ smokes

11. Motherhood is a transformative journey that encompasses a wide range of emotions and experiences. From the moment a child is born, a mother's life becomes ( ) with nurturing, caring, and guiding their little one through life's ups and downs.
① intertwined ② divided ③ scattered ④ encouraged ⑤ distributed

12. Our human body is comprised of various biochemical constituents that help us function throughout the day. Those biochemical constituents are ( ) from the food we eat. Food is the source of energy that we need to function normally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in a given day. So in short what we eat is what we are!
① absorbed ② inhaled ③ collected ④ circulated ⑤ extracted

[13-15] A 'slap bracelet' (or 'snap bracelet') is a bracelet invented by a Wisconsin teacher Stuart Anders in 1983, sold originally under the brand name of "Slap Wrap". Consisting of layered, flexible stainless steel bands, sealed within a fabric, silicone, or plastic cover, it can snap around a wrist when slapped on it with some force. (A). The original Slap Wraps were 23 cm (9.1 in) in length, 2.5 cm (0.98 in) wide, and made of steel 0.15 mm (0.0059 in) thick. Some copy versions used thinner steel, which was more likely to break and/or cut the wearer, the dangers of which first came to light in 1990, soon after they were released. It was a (B) among teenagers and younger children in the early 1990s. It was available in a wide variety of patterns and colors. The bracelet was banned in several schools following reports of injuries from worn out or modified versions. In 2018, different slap bracelets were recalled: "The slap bracelet's metal wristband can pierce the protective fabric around it and expose sharp edges, posing a laceration hazard to young children".

13. 괄호 (A)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문장을 고르시오.
① Kids can afford to buy snap bracelets.
② Parents also want to buy snap bracelets for themselves.
③ It can have many different colors and/or designs.
④ Snap bracelets are not always available at shops.
⑤ Snap bracelets are often used as game tools for children.

14. 괄호 (B)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① fad ② fable ③ fake ④ fantasy ⑤ fate

15. 윗글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① The snap bracelet was invented by a teacher in the 1980s but the bracelet was completely banned from schools in 2018.
② The copy snap bracelets used thicker steel than the original version, which caused injuries on children's wrists.
③ Snap bracelets were produced in a wide range of colors, patterns, or designs.
④ The original snap bracelet prompted several copy products, but they were not sold as well as 'Slap Wrap'.
⑤ In 2018, schools collected all the snap bracelets from their students and prohibited their use.

[16-17] Teachers' expectations and how these expectations affect students' participation and performance in physical education have been examined to a great degree by a large number of researchers. (A) their research, females perceive no differential treatment or expectations in their teachers' behavior toward males and females. Factors contributing to this finding include female students' perceptions of their teacher's general and gender-role-stereotyped expectations, as well as their feelings toward co-educational education, and negative influences that decrease enjoyment and participation. (B), a competitive atmosphere, and the curriculum, are two primary factors affecting females'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 toward physical education. Also, the curriculum, peers' positive attitudes, and the teacher are factors that positively affect female students' participation and attitudes toward physical education. Schools and curriculum developers in particular,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students' feelings, diverse needs, and suggestions, if they want to design a more effective, and equitable, school programs and curriculum that are free of gender stereotypes.

16. 괄호 (A)와 (B) 안에 들어갈 수 있는 <u>가장 적절한</u> 표현을 고르시오.

① (A) Following (B) Also
② (A) However (B) Moreover
③ (A) Following (B) In addition
④ (A) According to (B) In addition
⑤ (A) In accordance with (B) On the contrary

17. 윗글의 내용과 <u>일치하지 않는</u> 것을 고르시오.

① The research shows that female students do not particularly feel that they are discriminated in physical education.
② The research examines diverse factors that may influence students in their performance in physical education.
③ The research argues that since there is no evidence of gender bias in physical education, further steps to improve the curriculum may not be necessary.
④ The research finds that 'competition' is one crucial factor that affects students' performance in physical education.
⑤ The research implies that if schools help students to build better relationships with their peers and teachers, this will also improve students' performance in physical education.

[18-19] Wole Soyinka, Nigeria's Nobel-winning author, sees his country's many problems—misgoverning politicians, systemic corruption, violent extremists, kidnapping bandit—yet he does not despair. At 87, he says Nigeria's youth may have the energy and the know-how to get the troubled country back on track. It is up to the new generation "to decide whether they want to keep going along the same chugging one-track train", or chart a new course, Soyinka said. He (A) credits young Nigerians—about 64 million between 15 and 35 years of the country's more than 200 million people—for trying to fundamentally reform the country.

18. 밑줄 친 (A)와 가장 가까운 표현을 고르시오.
① trusts ② respects ③ esteems ④ authorizes ⑤ protects

19.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An Author's Despair for Nigeria
② An Author's Hope in Young People
③ An Author's Power for New Course
④ An Author's Credit for Country's Change
⑤ An Author's Decision for Future

[20-21] The more caring societies are in terms of re/distributing wealth more equally, (A) the rate of poverty and violence, (B) the status distinctions, and the more likely people are to enjoy better physical and mental health. If people are to thrive, they need to thrive not only as individuals, but as members of communities, and as political persons. Because of this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conditions that foster people's capacity to form caring, responsible and intimate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as family members, friends, members of a community, and citizens of a state.

20. 괄호 (A)와 (B)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① (A) the fewer (B) the lower
② (A) the lower (B) the fewer
③ (A) the more (B) the higher
④ (A) the higher (B) the more
⑤ (A) the lesser (B) the fewer

21.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Conditions for a Caring Society
② The Role of a Community in Taking Care of Citizens
③ The Importance of Economic Justice for a Caring Society
④ The Role of Politics in Taking Care of People
⑤ The Importance of an Individual-Centered Caring System

[22-24] When confronted with a heated argument, it's crucial (A) to employ effective strategies (B) to de-escalate tension and foster constructive dialogue. First, practice active listening by focusing on the speaker's words without interrupting. This demonstrates respect and validates their perspective. Second, maintain a calm demeanor and avoid (C) to respond impulsively. Take deep breaths (D) to manage emotions and respond thoughtfully rather than reactively. Third, seek common ground by acknowledging areas of agreement and reframing disagreements in a neutral or positive light. This promotes understanding and reduces conflict, (E) paving the way for a more productive conversation.

22.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How to Win Arguments
② Techniques for Starting Arguments
③ Tips for Avoiding Arguments
④ Strategies for De-escalating Arguments
⑤ Methods for Ignoring Arguments

23. 논쟁 중 이해를 촉진하고 갈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윗글에서 제시한 것을 고르시오.
① Acknowledging areas of agreement
② Escalating disagreements
③ Avoiding the discussion
④ Responding impulsively
⑤ Ignoring the speaker

24. 밑줄 친 표현 중에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A) to employ ② (B) to de-escalate ③ (C) to respond
④ (D) to manage ⑤ (E) paving

[25-26] Cultural translation refers to the process of conveying ideas, concepts, or texts from one cultural context to another. It involves not just linguistic translation but also understanding and adapting cultural nuances, beliefs, and values. Effective cultural translation requires sensitivity to differences in language, customs, traditions, and worldviews between cultures. It aims to (A) gaps in understanding and facilitate meaningful communication across diverse cultural boundaries.

25. 윗글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① Cultural translation involves only linguistic aspects.
② Effective cultural translation requires ignoring cultural nuances.
③ The goal of cultural translation is to create cultural barriers.
④ Cultural translation aims to facilitate meaningful communication across cultural boundaries.
⑤ Cultural translation primarily focuses on scientific experimentation.

26. 괄호 (A)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① bridge ② build ③ expand ④ raise ⑤ deepen

[27-28] The old proverb (A) applies here—learning all about anxiety is central to recovery. For example, education includes examining (B) the physiology of the 'flight-or-fight' response, which is the body's way to deal with impending danger. For people with anxiety disorders, this response is inappropriately triggered by situations that are generally harmless. Education is an important way to promote control over symptoms.

27. 괄호 (A) 안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a stitch in time saves nine'
②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③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④ 'practice makes perfect'
⑤ 'knowledge is power'

28. 밑줄 친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The method by which the body digests and absorbs nutrients from food.
② The way the body adjusts to changes in environmental temperature.
③ The process by which the brain consolidates and stores new memories during sleep.
④ The physiological reaction that occurs in response to a perceived harmful event, attack, or threat to survival.
⑤ The process by which the body relaxes and recovers after exercise.

[29-30] Sleeping well directly affects your mental and physical health. Fall short and it can take a serious toll on your daytime energy, productivity, emotional balance, and even your weight. Yet many of us regularly toss and turn at night, struggling to get the sleep we need. Getting a good night's sleep may seem like an impossible goal when you're wide awake at 3 a.m., but you have much more control over the quality of your sleep than you probably realize. (A) Just as the way you feel during your waking hours often hinges on how well you sleep at night, so the cure for sleep difficulties can often be found in your daily routine. Unhealthy daytime habits and lifestyle choices can leave you tossing and turning at night and adversely affect your mood, brain and heart health, immune system, creativity, vitality, and weight. Whether you struggle to fall asleep when you get into bed or wake up in the night and find it difficult to go back to sleep, the solution often lies in establishing healthy sleep habits, known as "sleep hygiene". By improving your sleep hygiene, you can fall asleep faster, stay asleep for longer, boost your overall health, and improve how you think and feel during the day.

29. 윗글의 내용을 가장 올바르게 요약한 것을 고르시오.
① Medication is the best solution for sleep difficulties.
② Creativity and weight are unrelated to sleep quality.
③ Falling asleep quickly is more important than staying asleep throughout the night.
④ Daytime habits and lifestyle choices have no effect on sleep quality.
⑤ Improving sleep hygiene can enhance both mental and physical health.

30. 밑줄 친 (A)를 한국어로 가장 올바르게 번역한 것을 고르시오.
① 당신이 깨어 있는 동안의 기분이 밤에 얼마나 잘 자는지에 달려 있는 것처럼, 수면 문제의 해결책은 종종 일상 생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② 당신이 깨어 있는 동안의 기분이 밤에 얼마나 잘 먹는지에 달려 있는 것처럼, 수면 문제의 해결책은 종종 식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③ 당신이 깨어 있는 동안의 기분이 밤에 얼마나 운동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처럼, 수면 문제의 해결책은 종종 운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④ 당신이 깨어 있는 동안의 기분이 밤에 얼마나 많은 수면을 취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처럼, 수면 문제의 해결책은 종종 휴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⑤ 당신이 깨어 있는 동안의 기분이 밤에 얼마나 자주 깨어나는지에 달려 있는 것처럼, 수면 문제의 해결책은 종종 스트레스 관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1-32] Roman and Greek mythologies are rich tapestries of stories that have shaped Western culture and literature. Greek mythology, which (A) Roman mythology, is filled with tales of gods and heroes, such as Zeus, the king of the gods, and Hercules, the legendary hero known for his incredible strength and twelve labors. These stories were deeply woven into the everyday life of ancient Greeks, influencing their rituals, beliefs, and understanding of the world. Roman mythology, while heavily influenced by Greek mythology, developed its unique aspects. Many Roman gods were borrowed from Greek mythology but given Latin names and slightly altered characteristics. For instance, the Greek god Zeus became Jupiter in Roman mythology, and the Greek hero Hercules was known as Heracles. Roman mythology also emphasized the greatness of Rome and its divine destiny, often incorporating historical events and figures into the mythological framework.

31. 윗글에서 언급된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의 차이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① Greek mythology focuses solely on nature, while Roman mythology focuses solely on warfare.
② Roman mythology often includes historical events and figures.
③ Roman gods have no equivalent in Greek mythology.
④ Greek mythology was influenced by Roman mythology.
⑤ Roman mythology has no gods or heroes.

32. 괄호 (A)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① succeeds ② follows ③ connects ④ constructs ⑤ predates

[33] A strong memory depends on the health and vitality of your brain. (A) Whether you're a student studying for final exams, a working professional interested in doing all you can to stay mentally sharp, or a senior looking to preserve and enhance your grey matter as you age, there's lots you can do to improve your memory and mental performance. (B) The human brain has an astonishing ability to adapt and change—even into old age. This ability is known as neuroplasticity. (C) With the right stimulation, your brain can form new neural pathways, alter existing connections, and adapt and react in ever-changing ways. (D) The brain's incredible ability to reshape itself holds true when it comes to learning and memory. (E) You can harness the natural power of neuroplasticity to increase your cognitive abilities, enhance your ability to learn new information, and improve your memory at any age.

33. 윗글에서 다음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 They say that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but when it comes to the brain,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this old proverb simply isn't true.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 출제 의도

대학 교육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수준의 단어에 대한 이해도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폭넓게 다루는 다양한 시사 주제들을 소개하는 영어 지문의 독해와 이해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학생들이 입학 후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확인하고자 했다. 평가에 활용되는 단어들과 지문들의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파악하고 추론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시사적인 내용과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55호 [별책14] "영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영어		
	과목명: 영어		관련
	성취기준 1	과목명: 영어Ⅰ [12영Ⅰ03-06]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문항 1,2,3,4,5,6,7,8,9,10,11,12
	성취기준 2	과목명: 영어Ⅱ [12영Ⅱ03-04]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추론할 수 있다.	문항 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1-3) Merriam-Webster Dictionary		Online		
(5) Superstructuralism	Richard Harland	Superstructuralism (Online)		
(12) "What we eat is what we are!"	Heavenly Feul (Online)			
(4-20) Science&Health, Culture section	BBC	Online		
(13-15) Wikipedia	Wikipedia	Online		
(16-17) Guardians Education & Culture		Online		
(18-19) AP News https://apnews.com/article/entertainment-business-kidnapping-lagos-nigeria-f9846162e6a87fda20ddfdb77e4a63b7	CHINEDU ASADU	Ap news online	2021	
(20-21) Care and Capitalism	Cathleen Lynch	Polity	2022	
(22-24) "6-Tips for De-Escalating an Argument"		PsychCentral (Online)		
(25-26) "Cultural Transl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roblem, and Responses"	Boris Buden	Translation Studies Vol 2, Issue 2, 2009		
(27-28) "Managing and Treating Anxiety"		Better Health Channel (Online)		
(29-30) "How to Sleep Better"	Melinda Smith, M.A. and Lawrence Robinson	HelpGuide.org (Online)		
(31-32) Theoi Greek Mythology		Online		
(31-32) Encyclopedia Britannica		Online		
(33) "How to Improve Your Memory"	Melinda Smith, M.A. and Lawrence Robinson	HelpGuide.org (Online)		

5. 문항 해설

1~3, 7~9번 문제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활용되는 단어들의 영어 의미를 학생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했으며, 4~6번 문제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소개하는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평가하고자 했다. 그리고 10번~33번 문제에서는 학생들의 지문 독해 역량과 내용 이해를 평가하고자 했는데, 특히 고등학교 교과과정 전반에서 다루는 일반적이고 시사적인 주제 (로마와 그리스 신화, 돌봄사회, 문화번역, 잠과 기억의 문제, 역사와 다양한 문화, 교육 등)에 근거해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이해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지문들을 활용해서 본 평가 대상인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수정 보완해서 사용함으로써 지문의 주제 자체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은 최소화하면서 학생들의 독해 역량을 평가하도록 했다.

6.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기준	배점
1~33	모두 객관식 문항으로서 문항별 기준이 필요 없음	3점, 4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번	①	12번	①	23번	①
2번	③	13번	③	24번	③
3번	①	14번	①	25번	④
4번	⑤	15번	③	26번	①
5번	②	16번	④	27번	⑤
6번	③	17번	③	28번	④
7번	④	18번	①	29번	⑤
8번	③	19번	②	30번	①
9번	③	20번	②	31번	②
10번	②	21번	①	32번	⑤
11번	①	22번	④	33번	②

2-9. 문항카드 ⑨ <재외국민 특별전형_수학 1~20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4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 / 1~20	
출제 범위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I, 수학II
	핵심개념 및 용어	객관식 5지선다형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제시문

1. $x=\sqrt{5}-1$, $y=\sqrt{5}+1$일 때, x^3-y^3의 값은? [4점]

① -32 ② -16 ③ 8 ④ 16 ⑤ 32

2. 다항식 x^4+ax^2+b가 $(x-1)^2$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a-b$의 값은? (단, a, b는 상수) [4점]

① -5 ② -4 ③ -3 ④ -2 ⑤ -1

3. 다항식 $x^2+ax-12$가 자연수 m, n에 대하여 $(x+m)(x-n)$의 꼴로 인수분해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개수는? [6점]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7개

4. 복소수 $z=k(2-i)+1-i$에 대하여 z^2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값의 곱은? [4점]

① -1 ② $-\frac{1}{2}$ ③ 0 ④ $\frac{1}{2}$ ⑤ 1

5. 함수 $y=\frac{1}{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y=\frac{3x+16}{x+5}$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이때 $m+n$의 값은? (단, m, n은 상수) [4점]

① -2 ② -1 ③ 0 ④ 1 ⑤ 2

6. 두 집합 $X=\{1,3,5\}$, $Y=\{1,2,3,4,5\}$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일대일함수의 개수는? [6점]

① 10개 ② 20개 ③ 30개 ④ 60개 ⑤ 120개

7. 부등식 $\left(\frac{1}{10}\right)^{1-2x} \le 10^{x+5}$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는? [4점]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8. 방정식 $\log_2 x \times \log_2 7x = 15$의 두 근을 α, β라고 할 때, $\alpha\beta$의 값은? [4점]

① -7 ② $-\frac{1}{7}$ ③ 0 ④ $\frac{1}{7}$ ⑤ 7

9. 함수 $f(x)=\begin{cases} x-6 & (x<8) \\ \log_2 x-1 & (x\ge 8) \end{cases}$ 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방정식 $(g\circ g)(a)=32$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은? [6점]

① -4 ② -2 ③ 0 ④ 2 ⑤ 4

10. $\sin\theta+\cos\theta=\frac{1}{3}$일 때, $\sin^3\theta+\cos^3\theta$의 값은? [6점]

① $\frac{5}{27}$ ② $\frac{7}{27}$ ③ $\frac{1}{3}$ ④ $\frac{11}{27}$ ⑤ $\frac{13}{27}$

11.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x^2+2x\sin\theta+\frac{3}{4}\geq 0$ 이 성립할 때, $\cos\theta$의 최솟값은?

(단, $-\frac{\pi}{2}\leq\theta\leq\frac{\pi}{2}$) [6점]

① 0 ② $\frac{1}{2}$ ③ $\frac{\sqrt{2}}{2}$ ④ $\frac{\sqrt{3}}{2}$ ⑤ 1

12. 수열 $\{a_n\}$이 $a_1=1$, $a_{n+1}=\frac{a_n}{2a_n+1}$ $(n=1,2,3,\cdots)$ 으로 정의될 때, a_5는? [6점]

① $\frac{1}{13}$ ② $\frac{1}{11}$ ③ $\frac{1}{9}$ ④ $\frac{1}{7}$ ⑤ $\frac{1}{5}$

13. 수열 $\{a_n\}$은 $a_1=5$이고, $\sum_{k=1}^{n}(a_{k+1}-a_k)=n^2$ $(n\geq 1)$ 을 만족시킬 때, a_{10}은? [6점]

① 66 ② 71 ③ 76 ④ 81 ⑤ 86

14.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x-1)f(x)=x^2+3x+a$ 를 만족시킬 때, $a+f(-1)$의 값은? (단, a는 상수) [4점]

① -2 ② -1 ③ 0 ④ 1 ⑤ 2

15. 다음 <보기>에서 $x=0$에서 미분가능한 함수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6점]

<보기>

㉠ $y=\sqrt{|x|}$ ㉡ $y=|x|$ ㉢ $y=x\sqrt{|x|}$ ㉣ $y=x|x|$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16. 곡선 $y=x^3+1$ 위의 점 $A(-1,0)$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할 때, 선분 AB의 길이는? [4점]

① $3\sqrt{10}$ ② $\sqrt{95}$ ③ 10
④ $\sqrt{105}$ ⑤ $\sqrt{110}$

17. 닫힌구간 $[-2,2]$에서 함수 $f(x)=x^3-3x^2+k$ 의 최댓값이 8일 때, 함수 $f(x)$의 최솟값은? (단, k는 상수) [4점]

① -12 ② -10 ③ -8 ④ -6 ⑤ -4

18. 연속함수 $f(x)=\int 1dx+2\int xdx+3\int x^2dx+\cdots+n\int x^{n-1}dx$ 에 대하여 $f(0)=10$, $f(1)=25$일 때, 자연수 n의 값은? [6점]

① 5 ② 10 ③ 15 ④ 20 ⑤ 25

19. 정적분 $\int_{-2}^{3}(2|x|-3)dx$의 값은? [4점]

① -5 ② -4 ③ -3 ④ -2 ⑤ -1

20.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int_{2}^{x}f(t)dt=x^3+x^2-4x+a$ 를 만족할 때, $a+f(2)$의 값은? (단, a는 상수) [6점]

① 4 ② 8 ③ 12 ④ 16 ⑤ 20

3. 출제 의도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순열, 수열,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과 적분 등은 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제반 학문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 과정의 수학, 수학 I, 수학 II 과목에서 학습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본 문제들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학생들이 대학에서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수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 및 논리력을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수학

문항	과목명	관련 성취 기준
1	수학	다항식의 연산 [10수학01-01] 다항식의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
2	수학	나머지정리 [10수학01-02] 항등식의 성질을 이해한다. [10수학01-03] 나머지정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수학	인수분해 [10수학01-04]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4	수학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10수학01-05] 복소수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
5	수학	도형의 이동,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10수학02-08] 평행이동의 의미를 이해한다. [10수학04-04] 유리함수 $y=\frac{ax+b}{cx+d}$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한다.
6	수학	함수, 순열과 조합 [10수학04-01]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10수학05-02] 순열의 의미를 이해하고,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
7	수학Ⅰ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2수학Ⅰ01-03] 지수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12수학Ⅰ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8	수학Ⅰ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2수학Ⅰ01-04] 로그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12수학Ⅰ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9	수학, 수학Ⅰ	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0수학04-03] 역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Ⅰ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0	수학, 수학Ⅰ	다항식의 연산, 삼각함수 [10수학01-01] 다항식의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 [12수학Ⅰ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11	수학, 수학Ⅰ	명제, 삼각함수 [10수학03-08] 절대부등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간단한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다. [12수학Ⅰ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12	수학Ⅰ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수학적 귀납법 [12수학Ⅰ03-02] 등차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12수학Ⅰ03-06]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한다.
13	수학Ⅰ	수열의 합 [12수학Ⅰ03-04] $\sum$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4	수학Ⅱ	함수의 연속 [12수학Ⅱ01-04]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5	수학Ⅱ	미분계수 [12수학Ⅱ02-03] 미분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이해한다.
16	수학Ⅱ	도함수의 활용 [12수학Ⅱ02-06]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17	수학Ⅱ	도함수의 활용 [12수학Ⅱ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18	수학Ⅱ	부정적분 [12수학Ⅱ03-01] 부정적분의 뜻을 안다. [12수학Ⅱ03-02] 함수의 실수배, 합, 차의 부정적분을 알고,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19	수학Ⅱ	정적분 [12수학Ⅱ03-03] 정적분의 뜻을 안다. [12수학Ⅱ03-04]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20	수학Ⅱ	정적분 [12수학Ⅱ03-03] 정적분의 뜻을 안다. [12수학Ⅱ03-04]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고등학교 수학	황선욱 외	미래엔	2020	13-47, 51-66, 193-207, 219-257, 261-273
고등학교 수학	고성은 외	좋은책 신사고	2020	11-39, 43-56, 183-198, 209-245, 249-261
고등학교 수학I	권오남 외	교학사	2020	12-69, 74-107, 116-165
고등학교 수학I	홍성복 외	지학사	2020	10-65, 68-92, 114-163
고등학교 수학II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20	31-45, 53-104, 111-133
고등학교 수학II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20	29-42, 52-111, 114-129

5. 문항 해설

2025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는 대학 진학 후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1번~6번의 여섯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의 방정식과 부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복소수, 도형의 이동, 집합과 함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7번~13번의 일곱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 I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수열의 합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14번~20번의 일곱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 II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다항함수의 도함수, 부정적분, 다항함수의 정적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교과서의 본문과 연습문제를 응용하여 출제한 문항으로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수험생들이라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6.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기준	배점
1~20	모두 객관식 문항으로서 문항별 기준이 필요 없음	4점, 6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번	①	6번	④	11번	②	16번	①
2번	③	7번	⑤	12번	③	17번	①
3번	④	8번	④	13번	⑤	18번	③
4번	④	9번	②	14번	②	19번	④
5번	①	10번	⑤	15번	③	20번	②